2020년도 조사연구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현황 및 향후 방안 연구

SSN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조 사 연 구 위 원 회

2020년도 조사연구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현황 및 향후 방안 연구

SSN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조 사 연 구 위 원 회

연구진

연구책임: 김도영(제주국제대학교 상담복지학과 교수)
공동연구: 문현주(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진은설(사단법인 청소년과미래 대표)
김홍철(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전문연구원)
김경옥(파란나라장애인주간활동센터장)
고창우(아동·청소년정신재활시설 우리야 대표)
오종철(지평경영컨설팅그룹주식회사 대표이사)

자문위원(가나다순)

고수희(평안전문요양원 원장)
김지선(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윤상은(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목 ▸ 차

Ⅰ. 서론 ····· 1
1. 연구추진근거 ····· 3
2. 연구 방법 ····· 5

Ⅱ. 이론적 배경 ····· 11
1.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 13
2. 생애주기별 복지인구 현황 ····· 14
3.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예산분석 ····· 27
4. 생애주기별 전달체계 ····· 38

Ⅲ. 조사결과 ····· 51
1. 설문조사 결과 ····· 53
2. 전문가 초점집단면접 결과 ····· 142
3. 제주특별자치도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에 대한 SWOT 분석 ····· 155

Ⅳ. 결론 및 제언 ····· 159
1. 연구결과 요약 ····· 161
2. 제언 ····· 177

■ 참고문헌 ····· 186

■ 부록 ····· 187

표 목차

<표Ⅰ-1> 설문지 배부 및 회수현황 ····· 6
<표Ⅰ-2> 설문도구 구성 ····· 7
<표Ⅱ-1> 지역별 주민등록인구 추이 ····· 15
<표Ⅱ-2> 총인구 추이 ····· 17
<표Ⅱ-3> 생애주기별 인구규모 변화-전국 ····· 20
<표Ⅱ-4> 제주특별자치도 생애주기별 인구규모 변화 ····· 25
<표Ⅱ-5>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증가율 추이 ····· 28
<표Ⅱ-6> 제주특별자치도 생애주기 예산 추이 ····· 29
<표Ⅱ-7> 연도별 생애주기 예산 추이 ····· 31
<표Ⅱ-8> 연도별 아동·청소년 예산 추이 ····· 33
<표Ⅱ-9> 연도별 청장년 예산 추이 ····· 34
<표Ⅱ-10> 연도별 노인 예산 추이 ····· 35
<표Ⅱ-11> 연도별 전생애 예산 추이 ····· 36
<표Ⅱ-12>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관 현황 ····· 38
<표Ⅱ-13>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현황 ····· 39
<표Ⅱ-14> 2019년 도내 아동·청소년 복지 서비스 민간 전달체계 ····· 41
<표Ⅱ-15> 2019년 도내 청장년 복지 서비스 민간 전달체계 ····· 45
<표Ⅱ-16> 2019년 도내 노인 복지 서비스 민간 전달체계 ····· 48
<표Ⅱ-17> 생애주기별 역대 정부의 복지정책 ····· 49
<표Ⅲ-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54
<표Ⅲ-2> 삶의 만족도 ····· 58
<표Ⅲ-3> 제주에 대한 소속감·연대감을 느끼는 정도 ····· 60
<표Ⅲ-4> 제주지역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 ····· 62
<표Ⅲ-5> 제주지역의 복지서비스에 불만족한 가장 큰 이유 ····· 64
<표Ⅲ-6> 제주지역의 전반적인 사회보장 수준 ····· 66
<표Ⅲ-7> 도내 사회보장 확대 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 ····· 68
<표Ⅲ-8> 제주지역 문제점의 심각성 ····· 70

<표Ⅲ-9> 순위별 본인의 현재 걱정거리 ····· 72
<표Ⅲ-10> 걱정거리에 대한 해결방법 ····· 74
<표Ⅲ-11> 도움제공 시 이용의향 ····· 76
<표Ⅲ-12> 도움 제공 시 이용할 의향이 없는 가장 큰 이유 ····· 79
<표Ⅲ-13> 제주지역의 고용 관련 가장 필요한 정책 ····· 82
<표Ⅲ-14> 제주지역의 소득 관련 가장 필요한 정책 ····· 85
<표Ⅲ-15> 제주지역의 보건 의료(건강)서비스 관련 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 ····· 87
<표Ⅲ-16> 제주지역의 돌봄 관련 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 ····· 90
<표Ⅲ-17> 제주지역의 교육 관련 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 ····· 92
<표Ⅲ-18> 제주지역의 주거생활 및 주거환경 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 ····· 95
<표Ⅲ-19> 제주지역의 여가 및 문화서비스 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 ····· 97
<표Ⅲ-20> 제주지역의 환경 관련 가장 필요한 정책 ····· 100
<표Ⅲ-21> 제주지역의 안전 관련 가장 필요한 정책 ····· 103
<표Ⅲ-22>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 105
<표Ⅲ-23> 청장년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 108
<표Ⅲ-24> 노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 110
<표Ⅲ-25> 지자체 포함 공공기관의 복지서비스 인지도 ····· 112
<표Ⅲ-26>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역할에 대한 인지도 ····· 114
<표Ⅲ-27> 사회복지 혜택이 주민에게 충분히 제공되는지에 대한 생각 ····· 116
<표Ⅲ-28> 사회복지 혜택 필요 시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음 ····· 118
<표Ⅲ-29> 공공기관의 복지서비스 이용만족도 ····· 120
<표Ⅲ-30> 공공기관 복지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 ····· 122
<표Ⅲ-31> 민간기관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 125
<표Ⅲ-32> 복지서비스 이용을 위한 민간기관 방문여부 ····· 127
<표Ⅲ-33> 사회복지 혜택 필요 시 민간기관의 도움을 받음 ····· 129
<표Ⅲ-34> 민간기관의 복지서비스 이용만족도 ····· 132
<표Ⅲ-35> 민간기관 복지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 ····· 134
<표Ⅲ-36> 바람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개선사항 ····· 137
<표Ⅲ-37>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 140
<표Ⅲ-38> 초점집단면접조사 참여자 특성 ····· 142
<표Ⅲ-39> 제주특별자치도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에 대한 SWOT분석 ····· 155

그림 목차

[그림Ⅰ-1] 연구 수행 체계 ····· 8
[그림Ⅱ-1] 지역별 주민등록인구 변화 ····· 16
[그림Ⅱ-2] 제주특별자치도 인구 변화 ····· 19
[그림Ⅱ-3] 제주특별자치도 생애주기별 인구 변화 ····· 26
[그림Ⅱ-4]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증가율 추이 ····· 28
[그림Ⅱ-5] 제주특별자치도 생애주기 예산 추이 ····· 30
[그림Ⅱ-6] 연도별 생애주기별 예산 추이 ····· 31
[그림Ⅱ-7] 연도별 생애주기별 예산 비중 ····· 32
[그림Ⅱ-8] 연도별 아동·청소년 예산 추이 ····· 33
[그림Ⅱ-9] 연도별 청장년 예산 추이 ····· 34
[그림Ⅱ-10] 연도별 노인 예산 추이 ····· 36
[그림Ⅱ-11] 연도별 전생애 예산 추이 ····· 37
[그림Ⅱ-12]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조직도 ····· 39
[그림Ⅲ-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 56
[그림Ⅲ-1-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2 ····· 57
[그림Ⅲ-2] 삶의 만족도 ····· 59
[그림Ⅲ-3] 제주에 대한 소속감·연대감을 느끼는 정도 ····· 61
[그림Ⅲ-4] 제주지역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 ····· 63
[그림Ⅲ-5] 제주지역의 복지서비스에 불만족한 가장 큰 이유 ····· 65
[그림Ⅲ-6] 제주지역의 전반적인 사회보장 수준 ····· 67
[그림Ⅲ-7] 도내 사회보장 확대 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 ····· 69
[그림Ⅲ-8] 제주지역 문제점의 심각성 ····· 71
[그림Ⅲ-9] 순위별 본인의 현재 걱정거리 ····· 73
[그림Ⅲ-10] 걱정거리에 대한 해결방법 ····· 75
[그림Ⅲ-11] 도움제공 시 이용의향 ····· 77
[그림Ⅲ-12] 도움제공 시 이용할 의향이 없는 가장 큰 이유 ····· 80

[그림Ⅲ-13] 제주지역의 고용관련 가장 필요한 정책 ····· 83
[그림Ⅲ-14] 제주지역의 소득관련 가장 필요한 정책 ····· 86
[그림Ⅲ-15] 제주지역의 보건 의료(건강) 서비스 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 ····· 88
[그림Ⅲ-16] 제주지역의 돌봄 관련 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 ····· 91
[그림Ⅲ-17] 제주지역의 교육 관련 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 ····· 93
[그림Ⅲ-18] 제주지역의 주거생활 및 주거환경 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 ····· 96
[그림Ⅲ-19] 제주지역의 여가 및 문화서비스 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 ····· 98
[그림Ⅲ-20] 제주지역의 환경 관련 가장 필요한 정책 ····· 101
[그림Ⅲ-21] 제주지역의 안전 관련 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 ····· 104
[그림Ⅲ-22]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 106
[그림Ⅲ-23] 청장년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 109
[그림Ⅲ-24] 노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 111
[그림Ⅲ-25] 지자체 포함 공공기관의 복지서비스 인지도 ····· 113
[그림Ⅲ-26]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역할에 대한 인지도 ····· 115
[그림Ⅲ-27] 사회복지 혜택이 주민에게 충분히 제공되는지에 대한 생각 ····· 117
[그림Ⅲ-28] 사회복지 혜택 필요 시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음 ····· 119
[그림Ⅲ-29] 공공기관의 복지서비스 이용만족도 ····· 121
[그림Ⅲ-30] 공공기관 복지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 ····· 124
[그림Ⅲ-31] 민간기관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 126
[그림Ⅲ-32] 복지서비스 이용을 위한 민간기관 방문여부 ····· 128
[그림Ⅲ-33] 사회복지 혜택 필요 시 민간기관의 도움을 받음 ····· 130
[그림Ⅲ-34] 민간기관의 복지서비스 이용만족도 ····· 133
[그림Ⅲ-35] 민간기관 복지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 ····· 135
[그림Ⅲ-36] 바람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개선사항 ····· 138
[그림Ⅲ-37]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 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 141

【 요 약 】

1. 서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기본법 개정(2013년)으로 국민의 보편적·생애주기적인 특성에 맞춰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도 아동·청소년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장년 및 노년층은 증가하는 인구구조에 변화 속에 복지대상 확대 등 보편적 복지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2020년 보건·복지 분야에 2,683억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복지패러다임의 변화와 예산이 증가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되는 복지서비스가 전 생애주기의 단계적 복지욕구에 따라 중앙정부의 복지정책과 중복되지 않도록 대상과 사업내용을 구분하여 예산 등이 적절하게 배분되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생애주기별(아동・청소년, 청장년, 노인) 현황을 파악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사업과 재정을 분석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의 향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생애주기 사회보장현황 분석

○지역사회보장계획 주기로 인구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제1기가 시작된 2007년 이후부터 매년 증가추이를 보이며 전국대비 높은 증가 비율을 보이고 있다.

■ 생애주기별로 보면, 전국평균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장년기와 노년기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 제주지역의 생애주기별 인구변화는 전국평균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청년의 감소폭은 전국평균보다 높고, 장년기의 증가폭은 전국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노인기의 증가폭은 전국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를 아동·청소년, 청장년, 노인 그리고 전생애(전체 생애주기를 포함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연도 결산자료를 2011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단위로 분석하였다.

■ 매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은 증가였으며 같은 기간 생애주기별 예산 증가율은 전체예산의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았다.

■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예산규모는 전생애, 아동·청소년, 노인, 청장년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청장년의 예산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3. 조사결과

○제주도민의 사회보장 현황파악과 향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331부)를 실시하였고 주요결과를 보면 제주지역의 복지서비스, 사회보장 수준 등은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나 정보부족(복지기관 및 서비스), 희망서비스 부재, 복지서비스의 질 등에서 불만족을 나타냈다. 또한, 도내 사회보장 확대 시 가장 중점에 두어야할 대상으로는 노인, 청장년, 아동·청소년 순으로 나타났다.

■ 생애주기별 제주지역 복지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와 전반적인 사회보장 수준의 만족도는 아동·청소년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노인, 청장년 순으로 나타났다.

■ 생애주기별 제주지역의 복지서비스에 불만족한 가장 큰 이유로는 아동·청소년과 노인은 복지 서비스의 질 불만족, 청장년이 복지 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설문조사에서 제주지역의 복지 영역 중 환경, 고용, 주거, 안전 등의 순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 특히, 환경과 관련하여 전생애에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강화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걱정거리로 '건강' 이라고 꼽았고, 걱정거리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본인 스스로 해결하거나 가족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 대한 의존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람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맞춤형복지 제공, 복지전담인력의 전문성 강화, 복지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낭비제거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지역 간의 사회복지서비스 격차해소 등이 높게 나타났다.

- ■ 아동・청소년은 맞춤형복지 제공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인권보장 강화와 보편적 서비스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응답하였다.
- ■ 청장년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복지전담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개선되어야 하며, 복지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응답하였다.
- ■ 노인은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이 개선되어야 하며, 보편적 서비스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응답하였다.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은 문화, 체육, 활동 지원 확충, 청장년은 일자리 확대, 노인은 은퇴 후 취업 또는 창업 지원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에 전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은 모르고 있으며, 청장년과 노인은 조금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을 이용하고 나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만족도를 보이고 있지만, 문제점으로 전생애에서 공공기관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부족, 민간기관은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초점집단면접에서 아동・청소년, 특히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으며, 노인 대상의 사회보장정책도 잘 이루어졌다는 의견을 보였다. 개입이 시급한 생애주기는 청장년의 사회보장정책이라고 의견을 보였으며, 점차 다양해지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여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4.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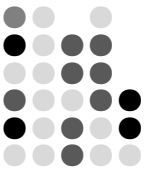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보장 방안에서 필요한 부분은 문화, 체육, 활동 등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 마련'** 이다. 아동·청소년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본인이 원하는 문화,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시설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호체계 강화'** 가 필요하다.

○청장년을 위한 사회보장 방안에서 필요한 부분은 현재 주로 시행되는 고용과 관련된 정책 외에 보건 의료, 돌봄, 교육, 주거, 문화,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장년을 위한 사회보장 정책의 다변화'** 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노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보장 예산에서 **'청장년을 위한 사회보장 예산 확대'** 가 필요하다.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 방안으로는 **'건강한 노후를 위한 사회보장'** 을 위하여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과 안정적인 돌봄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확대'** 가 필요하다. 노인들의 경우 문맹 혹은 디지털 기술부족 등으로 사회보장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노인들이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 제공도구의 다양화'** 가 필요하다.

○생애주기 구분 없이 전 도민을 위한 사회보장 방안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정보 제공'** 이 있다.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 제

주도, 양행정시를 비롯하여 사회보장과 관련된 다양한 민간기관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정보 제공을 통하여 수요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애주기가 구분이 되어있지 않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의 생애주기 구분'** 이 이루어진다면 예산의 효율적 안정성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맞춤형 환경복지서비스 확대'** 를 통해 생애주기를 고려한 환경정책이 펼쳐져야 할 것이다.



Ⅰ 서 론

Ⅰ. 서론

1. 연구 추진 근거

최근의 사회복지정책은 2013년 전면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보편적·생애주기적인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즉,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보장으로 전환되어 소득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보장도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이중섭, 송용화, 2014). 제2차 사회보장계획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취약계층부터 단계적으로 해소하여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 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이용체계의 구축(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을 통해 '공급자 관점의 분절적 사회보장 이용체계를 수요자 욕구 중심의 통합적 이용체계로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추진 기반(인프라) 영역에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를 제안하였다(보건복지부, 2019).

이에 발맞춰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안)" 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안)은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구체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재구조화' 라는 기본방향을 담고 있으며, 돌봄, 배움, 일, 쉼, 노후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마다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득·안전·건강·주거 등 기본적인 생활 기반에서 배제되거나 피해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9).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저출산, 급격한 고령화, 고령자 가구·1인 가구가 증가 되고 있어(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9), 정부에서는 취약한 1인가구와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가구 등의 인구 구조변화를 반영해 돌봄서비스 강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 12. 19.).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구조(2007~2019년 기준)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영유아, 아동・청소년 인구는 감소하고, 장년층과 노인층은 높은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제주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2020). 또한 고령자 1인가구의 비중이 6.9%(1만7810가구)이나 오는 2047년(5만1481가구)에는 14.2%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호남지

방통계청, 2020). 이처럼 아동·청소년 인구의 감소와 장년·노인층이 증가하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생애주기 전반부의 교육, 노동, 주거, 혼인과 출산 등과 같이 복지정책 수요의 규모와 다양성을 모두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지속됨은 물론 이는 정책 수요자의 확대와 연령별, 성별, 계층별로 다변화를 가져온다(김종훈, 2018).

이러한 현상에 발맞춰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제주시: 장애인, 서귀포시: 노인)을 시행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기준선을 등을 수립하였다(2019).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도 제주특별자치도는 보편적 복지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과거의 복지취약계층과 더불어 일반 서민들까지 복지대상을 확대하고, 특히 1인가구 및 고독사 증가 등 새로운 사회문제를 대비하여 다양한 복지대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촘촘한 지역복지 안전망 구축'이라는 추진전략을 설정하였다. 제주시는 인구변화에 맞춘 생애주기에 따른 사람 중심의 통합적 복지접근을 강조하며 '사람중심의 행복도시'라는 추진전략을 설정하였고, 서귀포시는 소외와 차별이 없고, 누구나 복지의 주체와 객체가 될 수 있어 골고루 누리며, 상호간의 긍정적인 복지영향력을 발휘하여 적극 수용하는 복지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사회적 돌봄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라는 추진전략을 설정하였다.

이를 반영하듯 제주특별자치도는 '모두를 배려하는 지역중심의 희망복지 제주구현'을 위해 5대 전략과제와 실행계획에 맞춰 2020년 보건·복지분야에 2683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일환으로 '제주형 통합복지 하나로 시범사업' 운영과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되는 복지서비스가 전 생애주기의 단계적 복지 욕구에 따라 중앙정부의 복지정책과 중복되지 않도록 대상과 사업내용을 구분하여 예산 등이 적절하게 배분되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생애주기를 아동·청소년, 청장년, 노인으로 구분하여 생애주기별 현황을 파악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사업과 재정을 분석하고 사회보장을 실천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의 향후 방안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추진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문헌연구, 설문조사, 초점집단면접(FGI), 자문회의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1) 문헌연구

생애주기별 유형 구분과 복지서비스 현황 등을 살펴보기 위해 각종 문헌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인구 현황과 생애주기별 복지 정책, 전달체계, 복지재정 현황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 이 내용 또한 이론적 배경에 제시하였다.

2) 자문 회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예산 및 기관을 비롯한 전반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본 연구진의 분석결과 및 연구진 내 논의사항 등을 토대로 자문을 구하여 이를 반영하였다.

3) 초점집단면접(FGI)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의 향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설문조사 및 분석 외에 추가적으로 생애주기 영역별 복지(현장)전문가를 섭외하여 초점집단면접(FGI)을 실시하였다.

4) 설문조사 방법 및 기간

본 조사는 제주도민의 사회보장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20년 7월 6일부터 7월 21일까지 15일간 제주도민 3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추출은 아동·청소년, 청장년, 노인 등의 생애주기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을 고려한 사회복지 기관, 시설 등을 집락(cluster)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설문은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349부를 배부하였고, 총 331부가 회수되었다. 검토 결과 331부의 설문지 전체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문항별 무응답 사례는 결측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지 배부 및 회수현황은 <표 Ⅰ-1>과 같다.

<표 Ⅰ-1> 설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구분	배부기관(시설, 단체)	배부 수	회수현황	회수율
사회복지 기관(시설, 단체)	12개소	349부	331부	95%

설문도구는 강창민, 정영태, 홍연숙, 김양이, 고승한(2012), 김미곤, 이태진, 송태민, 우선희, 김성아(2018), 황성준, 김정득, 김은정 등(2019)이 제작한 설문지를 참고하여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도구 구성내용은 <표 Ⅰ-2>와 같다.

〈표 Ⅰ-2〉 설문도구 구성

변수	설문내용	문항 수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거주지, 학력, 혼인여부, 가족수, 연령대별 가족의 수, 직업	8
도민의 삶과 사회보장	삶의 만족도, 제주에 대한 소속감 및 연대감, 제주지역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 제주지역의 복지서비스에 불만족한 이유, 제주지역의 전반적인 사회보장 수준, 사회보장 확대 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	6
사회복지 영역별 제주지역의 문제점과 가장 필요한 정책	영역별 제주지역 문제의 심각성, 현재 걱정거리, 걱정거리에 대한 해결방법, 도움제공 시 이용의향, 도움제공 시 이용할 의향이 없는 이유, 제주지역의 고용, 소득 관련 정책, 제주지역의 보건의료(건강), 돌봄관련, 교육관련, 주거생활 및 주거환경 영역, 여가 및 문화서비스 영역, 환경관련, 안전관련 중 필요한 정책, 아동·청소년, 청장년, 노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	17
공공기관의 복지서비스	공공기관의 복지서비스 인지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인지도, 주민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 혜택의 충분성, 사회복지 혜택 필요 시 공공기관의 도움, 공공기관의 복지서비스 이용만족도, 공공기관 복지서비스의 문제점	6
민간기관의 복지서비스	민간기관의 복지서비스 인지도, 복지서비스 이용을 위한 민간기관 방문여부, 사회복지 혜택 필요 시 민간기관의 도움, 민간기관의 복지서비스 이용만족도, 민간기관 복지서비스의 문제점	5
향후 사회보장 정책의 방향	바람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사항,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2

5) 연구 수행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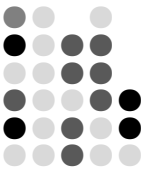
연구영역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계획 및 연구내용 구성	- 아동・청소년, 청장년, 노인으로 나누어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문헌 검토
⇓	
현황 및 특성	- 인구변화 현황 - 전달체계 현황(공공영역, 민간영역) - 예산 및 복지서비스(정책) 현황 : 통계자료 및 보고서 분석, 자문회의
	- 아동·청소년 사회보장의 변화 - 청장년 사회보장의 변화 - 노인 사회보장의 변화
⇓	
생애주기별 사회보장변화	- 설문조사 분석 - FGI 분석
⇓	
결과발표 및 토론회 - 주제발표 / 토론(영역별 실무자, 학계 전문가) -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삼다수홀	
⇓	
생애주기별 사회보장변화 및 향후 방안 제시	

[그림 Ⅰ-1] 연구 수행 체계

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사회보장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 대상, 연구기간, 연구의 범위 등의 제한성으로 인해 연구결과를 반영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예산 분석에 있어 전체 사회보장 예산을 토대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나 시간적 측면에서 대상년도에 제한을 두었고, 내용적 측면에서는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일반회계만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적용하는데 있어 이러한 제한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생애주기별 구분에서 있어 청년, 중년, 장년의 예산 및 사업을 구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청장년을 하나의 생애주기로 묶어 분석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 적용 시 이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제주특별자치도민 중 일부의 도민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Ⅱ 이론적 배경

Ⅱ. 이론적 배경

1.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한 개인이 출생하여 성장하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는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다. 이는 개인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 가는 평생의 일정한 단계별 과정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이를 생애주기라고 정의한다. 생애주기에는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개인의 사건(입학, 취업, 결혼, 직업전화, 은퇴 등)이 있고 이들은 일정한 지표나 정책 등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다. 이에 생애주기는 개인의 전 생애를 비롯해 모든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이슈와 과제에 대해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단순히 개인차원이 아닌 모든 세대, 모든 사람과 관련된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 사회에서 그 사회의 구성원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이들의 생애주기별 다양한 욕구와 과업을 적절하게 반영해야 하며, 특히 사회보장과 같은 복지정책 수립 시에는 발달단계별 과업수행과 그에 따른 다양한 정책적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는 사회복지정책의 만족도와 효율성을 재고하는 데에도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이중섭, 송용호, 2014).

그러나 기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애주기별로 사회보장정책을 수립하여 원활하게 집행하기가 쉽지 않았다. 대상자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대상자를 생애주기별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또 그에 대한 예산을 배분하는 일이 일정부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사회보장을 비롯한 복지정책은 생애주기별 욕구에 맞추기보다 이미 개발된 복지정책을 각 발달단계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하는 정도로 그치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생애주기별 욕구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부의 사회보장정책에서 누락된 영역을 파악하여 생애주기별로 제주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회보장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생애주기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한 개인의 생애주기별 구분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었는

데, 그 중 몇몇의 구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에릭슨(Erikson, 1968)은 개인의 발달단계를 8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1단계: 영아기(0~18개월), 2단계: 유아기18개월(-3세), 3단계: 학령전기(3-6세), 4단계: 학령기(6-12세), 5단계: 청소년기(12-22세), 6단계: 성인초기(22-35세), 7단계: 장년기(35-65세), 8단계: 노년기(65세 이상)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헤비거스트(Havighurst, 1953)는 개인의 발달단계를 6단계로 제시하였는데, 1단계: 유아기(0-6세), 2단계: 아동기(6-12세), 3단계: 청소년기(12-18세), 4단계: 청년기(18-29세), 5단계: 중년기(29-55세), 6단계: 노년기(55세 이후)로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새들러(Sadler, 2015)는 유럽에서의 생애주기 4단계를 제시하였다. 1단계(first age): '배움의 단계'로 학습을 통해 1차 성장이 이루어지는 10대, 20대의 시기, 2단계(second age): '일과 가정을 위한 단계'로써 생산 및 출산(재생산)을 통해 자신만의 생산성을 발휘하고 가정, 직장,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시기, 3단계(third age): '생활'을 위한 단계로 청년기인 제 1연령기 때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1차 성장과는 다른 2차 성장을 통해 자기실현을 추구해가는 시기, 40대~70대 중후반, 4단계(fourth): 노화의 단계로 성공적인 나이듦을 실현해가는 과정이라고 하였다(윌리엄 새들러,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여러 연구자들의 견해를 종합하고, 생애주기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0-19세), 청장년(20-64세), 노인(65세 이상)의 3단계로 크게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2. 생애주기별 복지인구 현황

1) 총 인구추이

제1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시작된 2007년부터 4년 주기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주기의 첫해마다 인구변화를 살펴보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수는 2019년 기준 663,488.5명으로 전국 인구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2007년 인구를 100으로 보았을 때 전국 인구는 증가하고 있었으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는 2015년 109.39, 2019년 118.72로 증가하여 전국대비 높은 증가

율을 보였고 가장 인구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 지역별 주민등록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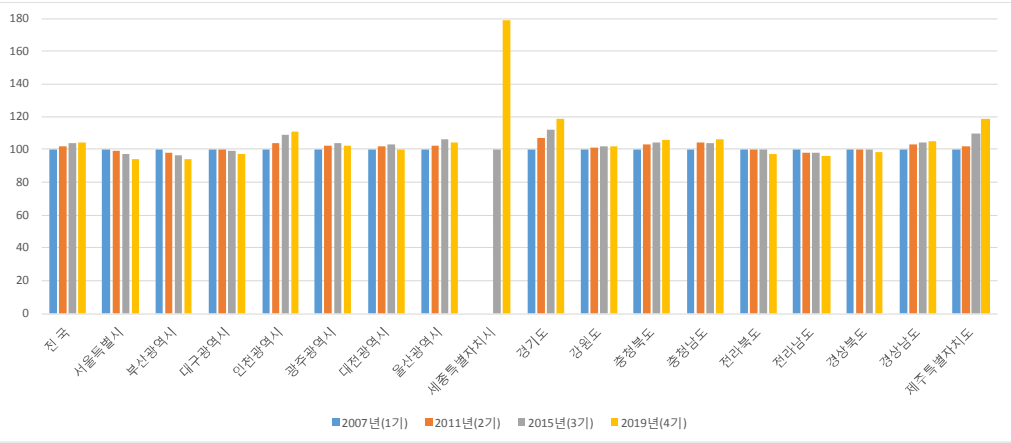
(단위: 명, %)

구 분	2007년(1기)	2011년(2기)	2015년(3기)	2019년(4기)
전 국	49,130,353.5	50,111,475.5	50,951,719	51,337,423.5
	100.00	102.00	103.71	104.49
서울특별시	10,186,938	10,116,242	9,907,155	9,578,974.5
	100.00	99.31	97.25	94.03
부산광역시	3,599,715.5	3,515,775.5	3,478,811.5	3,390,159.5
	100.00	97.67	96.64	94.18
대구광역시	2,494,688	2,486,311	2,471,181.5	2,431,140
	100.00	99.66	99.06	97.45
인천광역시	2,644,483.5	2,749,973.5	2,886,542	2,927,320
	100.00	103.99	109.15	110.70
광주광역시	1,410,621	1,449,341	1,465,091	1,448,843
	100.00	102.74	103.86	102.71
대전광역시	1,470,908.5	1,497,489.5	1,514,389.5	1,471,769.5
	100.00	101.81	102.96	100.06
울산광역시	1,096,244.5	1,123,225.5	1,163,345.5	1,145,705
	100.00	102.46	106.12	104.51
세종특별자치시	-	-	182,610	326,244.5
	-	-	100.00	178.66
경기도	11,006,122	11,754,984.5	12,337,489	13,043,732
	100.00	106.80	112.10	118.51
강원도	1,504,613	1,518,846	1,533,360	1,528,655.5
	100.00	100.95	101.91	101.60
충청북도	1,500,583.5	1,545,467	1,571,121.5	1,589,354.5
	100.00	102.99	104.70	105.92
충청남도	1,984,982	2,073,576.5	2,055,843	2,110,584
	100.00	104.46	103.57	106.33
전라북도	1,865,321	1,858,301.5	1,858,351.5	1,816,000.5
	100.00	99.62	99.63	97.36
전라남도	1,936,380.5	1,901,926	1,894,202.5	1,863,279
	100.00	98.22	97.82	96.22

구 분	2007년(1기)	2011년(2기)	2015년(3기)	2019년(4기)
경상북도	2,684,970.5	2,675,375.5	2,684,089.5	2,653,915.5
	100.00	99.64	99.97	98.84
경상남도	3,184,905	3,276,317	3,336,798.5	3,348,258
	100.00	102.87	104.77	105.13
제주특별자치도	558,877	568,323.5	611,337.5	663,488.5
	100.00	101.69	109.39	118.72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주민등록 연앙인구는 행정안전부에서 공표하는 연말기준 주민등록인구를 기초로 연앙(年央)개념으로 재작성하여 제공되는 자료(예시: 2019년 주민등록 연앙인구 = 2019.1.1일과 2019.12.31일 주민등록인구의 산술평균)



[그림 Ⅱ-1] 지역별 주민등록인구 변화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는 매년 증가하였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인구가 증가하였다. 읍면동별로 보면 추자면, 일도1동, 일도2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건입동, 송산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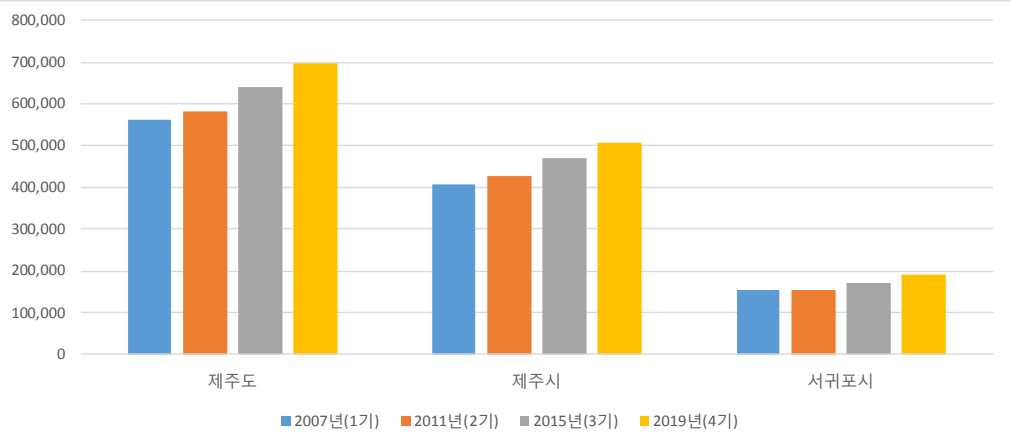
<표 II-2> 총 인구추이

(단위: 명)

구 분	2007년(1기)	2011년(2기)	2015년(3기)	2019년(4기)
제주특별자치도	563,388	583,284	641,355	696,657
제주시	408,364	427,593	470,778	505,950
한림읍	19,812	19,994	22,972	25,080
애월읍	26,550	29,061	31,560	37,345
구좌읍	15,359	14,810	15,175	16,232
조천읍	20,808	21,010	21,463	25,313
한경면	8,547	8,220	8,745	9,405
추자면	3,084	2,762	2,432	2,057
우도면	1,632	1,572	1,730	1,892
일도1동	3,802	3,829	3,475	2,809
일도2동	38,119	37,691	36,684	33,998
이도1동	7,411	7,799	8,092	7,796
이도2동	41,572	45,510	52,001	50,655
삼도1동	14,141	14,202	14,797	14,005
삼도2동	9,385	9,811	9,282	8,433
용담1동	8,740	8,792	8,411	7,315
용담2동	16,797	17,176	16,773	15,328
건입동	10,812	10,904	10,310	9,571
화북동	20,134	23,224	26,318	25,271
삼양동	10,825	11,077	17,369	25,965
봉개동	3,145	3,065	3,216	5,363
아라동	13,460	14,614	24,868	36,024
오라동	6,104	6,557	10,098	15,588

구 분	2007년(1기)	2011년(2기)	2015년(3기)	2019년(4기)
연동	39,279	42,124	44,449	43,708
노형동	48,810	51,184	54,715	56,611
외도동	13,691	15,724	18,859	22,108
이호동	4,092	4,109	4,090	4,764
도두동	2,253	2,772	2,894	3,314
서귀포시	155,024	155,691	170,577	190,707
대정읍	17,197	16,963	19,560	23,105
남원읍	18,927	18,304	19,095	19,707
성산읍	14,559	14,427	15,710	17,338
안덕면	10,183	9,772	10,382	12,711
표선면	10,957	10,932	11,765	12,722
송산동	5,313	5,174	5,216	4,893
정방동	3,065	2,947	2,806	2,399
중앙동	4,857	4,513	4,438	3,798
천지동	3,908	3,896	3,974	3,656
효돈동	5,159	5,096	5,167	5,366
영천동	5,119	5,012	5,124	5,485
동홍동	18,781	21,191	23,850	24,389
서홍동	7,980	8,562	10,148	10,559
대륜동	9,560	9,310	11,316	14,657
대천동	6,989	6,949	8,227	14,010
중문동	8,882	9,064	9,949	11,665
예래동	3,588	3,579	3,850	4,247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청 주민등록인구통계(외국인 포함)



[그림 II-2] 제주특별자치도 인구변화

2) 생애주기별 인구규모 변화

생애주기별 인구규모 변화는 영유아기(0세~6세), 아동기(7세~12세), 청소년기(13세~18세), 청년기(19세~34세), 장년기(35세~64세), 노인기(65세 이상)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24세까지로 정의하고 있지만 '제주도청년기본조례'에서 만19세부터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어 청소년과 청년을 나누는 경계를 만19세로 하였다. 노인기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나누었다[1].

생애주기별 인구규모 변화를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모두 1기에서 4기로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청년기의 경우도 전국적으로 인구규모가 줄어들고 있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평균보다 낮은 비율로 청년이 구성됨을 알 수 있다. 장년기와 노인기는 전국적으로 비율이 증가하고 있었고 제주도는 장년기의 증가폭은 전국평균보다 높았고 노인기의 증가폭은 전국평균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 현행 법률에 노인의 연령을 '65세 이상'인 자로 정의된 경우는 없지만, 노인복지법에서 경로우대나 건강진단, 보건교육,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조항에 '65세 이상'으로 제시되어 이를 따랐음

〈표 II-3〉 생애주기별 인구규모 변화-전국

구 분		2007년(1기)		2011년(2기)		2015년(3기)		2019년(4기)	
		명	%	명	%	명	%	명	%
0-6세 (영유아기)	전국	3,442,852.0	7.01	3,209,618	6.40	3,197,859.5	6.28	2,814,879	5.48
	서울특별시	643,603.5	6.32	583,409	5.77	552,884.5	5.58	454,693	4.75
	부산광역시	200,513.0	5.57	180,420	5.13	186,847.0	5.37	165,712	4.89
	대구광역시	163,510.0	6.55	145,326	5.85	143,251.0	5.80	127,135	5.23
	인천광역시	187,889.0	7.10	180,684	6.57	189,747.0	6.57	164,161	5.61
	광주광역시	110,344.0	7.82	101,363	6.99	98,611.5	6.73	84,089	5.80
	대전광역시	111,296.0	7.57	103,305	6.90	101,436.0	6.70	82,938	5.64
	울산광역시	82,414.0	7.52	77,586	6.91	81,777.0	7.03	71,461	6.24
	세종 특별자치시	-	-	-	-	17,436.5	9.55	31,121	9.54
	경기도	892,628.5	8.11	863,266	7.34	864,175.0	7.00	796,109	6.10
	강원도	100,163.0	6.66	89,076	5.86	84,400.5	5.50	72,437	4.74
	충청북도	105,463.5	7.03	100,594	6.51	99,232.5	6.32	87,282	5.49
	충청남도	141,823.5	7.14	140,912	6.80	137,159.5	6.67	123,251	5.84
	전라북도	126,577.5	6.79	113,395	6.10	109,975.0	5.92	90,786	5.00
	전라남도	125,748.5	6.49	111,373	5.86	109,752.5	5.79	93,586	5.02
	경상북도	173,939.5	6.48	157,348	5.88	156,918.5	5.85	136,660	5.15
	경상남도	231,478.5	7.27	220,946	6.74	221,608.0	6.64	192,025	5.74
	제주 특별자치도	45,460.0	8.13	40,618	7.15	42,647.5	6.98	41,437	6.25
7-12세 (아동기)	전국	4,007,727.5	8.16	3,362,064.0	6.71	2,828,178.0	5.55	2,829,619	5.51
	서울특별시	712,746.0	7.00	586,291.5	5.80	479,768.0	4.84	447,390	4.67
	부산광역시	255,005.0	7.08	199,064.0	5.66	161,269.0	4.64	160,316	4.73
	대구광역시	208,589.0	8.36	169,090.0	6.80	135,121.0	5.47	129,410	5.32

	인천광역시	224,846.0	8.50	185,869.0	6.76	162,505.5	5.63	164,232	5.61
	광주광역시	136,882.5	9.70	116,286.0	8.02	94,404.0	6.44	90,423	6.24
	대전광역시	130,859.5	8.90	110,124.5	7.35	92,341.5	6.10	85,244	5.79
	울산광역시	103,269.0	9.42	81,567.5	7.26	67,483.0	5.80	68,891	6.01
	세종 특별자치시	-	-	-	-	13,781.5	7.55	28,354	8.69
	경기도	995,654.5	9.05	875,954.0	7.45	766,300.0	6.21	796,404	6.11
	강원도	118,914.0	7.90	100,979.5	6.65	81,741.0	5.33	77,905	5.10
	충청북도	125,835.5	8.39	106,129.0	6.87	87,878.0	5.59	87,981	5.54
	충청남도	159,148.0	8.02	140,685.0	6.78	118,247.0	5.75	123,274	5.84
	전라북도	154,591.5	8.29	128,032.5	6.89	104,207.0	5.61	100,152	5.51
	전라남도	154,041.0	7.96	124,102.0	6.53	98,243.0	5.19	97,144	5.21
	경상북도	202,738.0	7.55	164,793.0	6.16	133,647.5	4.98	133,347	5.02
	경상남도	272,941.5	8.57	228,411.5	6.97	191,382.0	5.74	196,369	5.86
	제주 특별자치도	51,666.5	9.24	44,685.0	7.86	39,859.0	6.52	42,787	6.45
13-18세 (청소년기)	전국	4,074,702.5	8.29	4,167,152.5	8.32	3,713,732	7.29	2,995,066	5.83
	서울특별시	786,130.0	7.72	759,694.5	7.51	640,177	6.46	497,904	5.20
	부산광역시	293,225.5	8.15	275,510.5	7.84	227,208	6.53	172,765	5.10
	대구광역시	223,351.0	8.95	222,770.0	8.96	191,333	7.74	146,936	6.04
	인천광역시	240,040.0	9.08	240,179.0	8.73	209,877	7.27	170,227	5.82
	광주광역시	133,105.0	9.44	143,443.5	9.90	129,976	8.87	101,043	6.97
	대전광역시	132,436.0	9.00	136,329.0	9.10	120,770	7.97	93,984	6.39
	울산광역시	105,779.0	9.65	107,924.5	9.61	92,684	7.97	70,381	6.14
	세종 특별자치시	-	-	-	-	11,860	6.49	21,400	6.56
	경기도	943,971.0	8.58	1,018,151.5	8.66	947,880	7.68	806,533	6.18

	강원도	118,029.0	7.84	121,077.0	7.97	111,620	7.28	88,476	5.79
	충청북도	124,679.5	8.31	131,065.5	8.48	117,560	7.48	93,440	5.88
	충청남도	152,487.0	7.68	163,133.5	7.87	147,898	7.19	124,484	5.90
	전라북도	153,483.0	8.23	158,446.5	8.53	142,961	7.69	112,697	6.21
	전라남도	149,558.0	7.72	154,346.5	8.12	139,109	7.34	107,609	5.78
	경상북도	204,762.5	7.63	204,183.5	7.63	182,154	6.79	143,231	5.40
	경상남도	266,921.0	8.38	279,285.5	8.52	251,271	7.53	200,861	6.00
	제주 특별자치도	46,745.0	8.36	51,612.0	9.08	49,396	8.08	43,096	6.50
19-34세 (청년기)	전국	12,155,825	24.74	11,423,297	22.80	11,130,791.0	21.85	10,562,865.0	20.58
	서울특별시	2,842,801	27.91	2,607,280	25.77	2,441,685.0	24.65	2,273,127.5	23.73
	부산광역시	895,811	24.89	801,724	22.80	747,966.5	21.50	668,655.0	19.72
	대구광역시	609,543	24.43	554,525	22.30	527,644.5	21.35	492,861.0	20.27
	인천광역시	659,107	24.92	650,316	23.65	663,095.0	22.97	628,581.5	21.47
	광주광역시	361,245	25.61	340,158	23.47	329,188.5	22.47	310,871.5	21.46
	대전광역시	381,097	25.91	354,978	23.70	346,047.5	22.85	323,780.5	22.00
	울산광역시	265,853	24.25	258,357	23.00	264,046.5	22.70	234,971.5	20.51
	세종 특별자치시	-	-	-	-	37,863.0	20.73	63,139.0	19.35
	경기도	2,728,576	24.79	2,699,430	22.96	2,739,153.0	22.20	2,754,437.5	21.12
	강원도	331,555	22.04	303,301	19.97	294,279.5	19.19	275,168.0	18.00
	충청북도	349,204	23.27	329,623	21.33	323,085.5	20.56	308,754.5	19.43
	충청남도	456,297	22.99	438,582	21.15	415,258.5	20.20	394,294.5	18.68
	전라북도	414,933	22.24	374,566	20.16	355,513.0	19.13	324,583.0	17.87
	전라남도	395,744	20.44	353,240	18.57	338,311.0	17.86	312,416.5	16.77
	경상북도	603,509	22.48	548,024	20.48	516,772.0	19.25	461,430.0	17.39

	경상남도	733,215	23.02	694,081	21.18	669,747.0	20.07	610,250.0	18.23
	제주 특별자치도	127,339	22.78	115,115	20.26	121,135.0	19.81	125,543.5	18.92
35-64세 (장년기)	전국	20,740,142.5	42.21	22,423,715	44.75	23,528,631.0	46.18	24,416,379	47.56
	서울특별시	4,388,788.5	43.08	4,586,349	45.34	4,591,229.0	46.34	4,509,752	47.08
	부산광역시	1,621,405.5	45.04	1,656,546	47.12	1,660,938.0	47.74	1,628,308	48.03
	대구광역시	1,076,126.0	43.14	1,141,395	45.91	1,167,300.0	47.24	1,167,767	48.03
	인천광역시	1,135,192.0	42.93	1,251,870	45.52	1,359,721.0	47.11	1,431,509	48.90
	광주광역시	559,232.5	39.64	615,907	42.50	651,272.5	44.45	672,884	46.44
	대전광역시	605,365.5	41.16	660,952	44.14	693,287.5	45.78	693,963	47.15
	울산광역시	475,134.0	43.34	519,905	46.29	558,020.5	47.97	572,847	50.00
	세종 특별자치시	-	-	-	-	80,784.0	44.24	151,921	46.57
	경기도	4,605,905.5	41.85	5,264,294	44.78	5,750,005.0	46.61	6,311,062	48.38
	강원도	638,847.0	42.46	677,186	44.59	705,641.5	46.02	722,279	47.25
	충청북도	614,333.0	40.94	672,713	43.53	713,403.0	45.41	746,478	46.97
	충청남도	796,773.0	40.14	880,961	42.49	904,113.5	43.98	969,075	45.92
	전라북도	756,386.0	40.55	797,798	42.93	820,130.0	44.13	826,143	45.49
	전라남도	786,568.0	40.62	807,406	42.45	823,625.0	43.48	837,776	44.96
	경상북도	1,118,550.5	41.66	1,182,161	44.19	1,224,431.0	45.62	1,243,791	46.87
	경상남도	1,334,078.0	41.89	1,462,379	44.63	1,549,684.5	46.44	1,617,160	48.30
	제주 특별자치도	227,457.5	40.70	245,898	43.27	275,045.0	44.99	313,670	47.28
65세 이상 (노인기)	전국	5,442,346	11.08	5,525,630	11.03	6,552,528.0	12.86	7,718,615.5	15.04
	서울특별시	933,910	9.17	993,219	9.82	1,201,411.5	12.13	1,396,109.5	14.57
	부산광역시	378,182	10.51	402,511	11.45	494,583.0	14.22	594,403.5	17.53
	대구광역시	242,838	9.73	253,206	10.18	306,532.0	12.40	367,032.0	15.10

	인천광역시	228,779	8.65	241,056	8.77	301,596.5	10.45	368,610.5	12.59
	광주광역시	127,386	9.03	132,185	9.12	161,638.5	11.03	189,533.0	13.08
	대전광역시	127,320	8.66	131,802	8.80	160,507.5	10.60	191,860.5	13.04
	울산광역시	73,553	6.71	77,886	6.93	99,335.0	8.54	127,155.0	11.10
	세종 특별자치시	-	-	-	-	20,885.5	11.44	30,311.0	9.29
	경기도	968,793	8.80	1,033,890	8.80	1,269,976.0	10.29	1,579,186.5	12.11
	강원도	230,395	15.31	227,227	14.96	255,678.0	16.67	292,392.0	19.13
	충청북도	210,154	14.00	205,344	13.29	229,962.5	14.64	265,419.5	16.70
	충청남도	323,939	16.32	309,304	14.92	333,167.0	16.21	376,206.0	17.82
	전라북도	302,391	16.21	286,064	15.39	325,565.5	17.52	361,640.5	19.91
	전라남도	378,041	19.52	351,460	18.48	385,162.0	20.33	414,748.5	22.26
	경상북도	445,554	16.59	418,867	15.66	470,166.5	17.52	535,457.5	20.18
	경상남도	400,042	12.56	391,215	11.94	453,106.0	13.58	531,593.5	15.88
	제주 특별자치도	71,074	12.72	70,396	12.39	83,255.0	13.62	96,956.5	14.61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주민등록 연앙인구는 행정안전부에서 공표하는 연말기준 주민등록인구를 기초로 연앙(年央)개념으로 재작성하여 제공되는 자료(예시: 2019년 주민등록 연앙인구 = 2019.1.1일과 2019.12.31일 주민등록 인구의 산술평균)

제주특별자치도의 생애주기별 인구규모 변화를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와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영유아기, 청년기의 인구는 1기에서 4기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장년기와 노인기는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유아기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지만 서귀포시는 2015년에 비해 2019년 소폭 증가하였다. 청소년기는 2007년에서 2011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청년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장년기와 노인기는 증가하고 있었다.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는 제주시의 구성비율이 높은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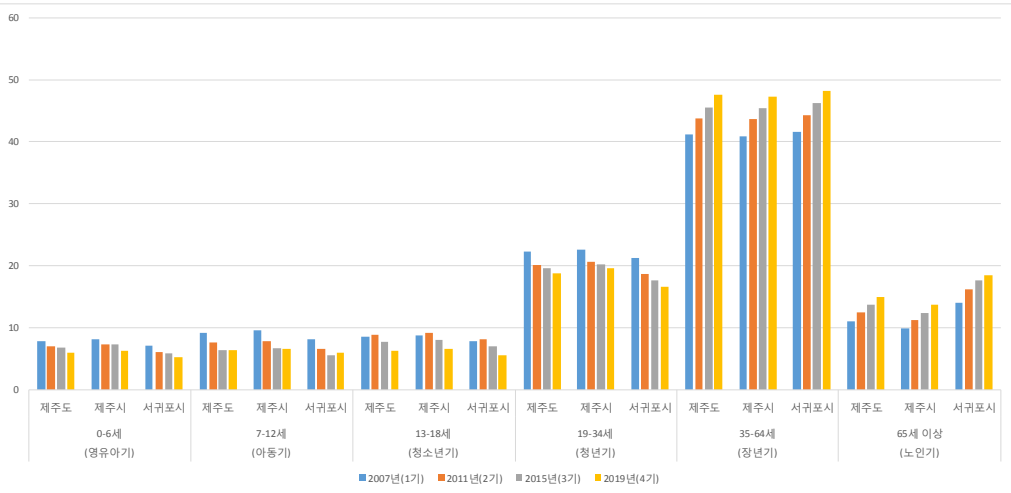
면 장년기와 노인기는 서귀포시의 비율이 높았고 노인기는 서귀포시가 비중이 5%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4> 제주특별자치도 생애주기별 인구규모 변화

구 분		2007년(1기)		2011년(2기)		2015년(3기)		2019년(4기)	
		명	%	명	%	명	%	명	%
총 계	제주특별자치도	559,258	100	576,156	100	624,395	100	670,989	100
	제주시	405,458	100	422,790	100	459,876	100	489,405	100
	서귀포시	153,800	100	153,366	100	164,519	100	181,584	100
0-6세 (영유아기)	제주특별자치도	44,205	7.90	40,613	7.05	43,066	6.90	40,304	6.01
	제주시	33,266	8.20	31,127	7.36	33,443	7.27	30,697	6.27
	서귀포시	10,939	7.11	9,486	6.19	9,623	5.85	9,607	5.29
7-12세 (아동기)	제주특별자치도	51,379	9.19	43,789	7.60	40,049	6.41	43,297	6.45
	제주시	38,838	9.58	33,597	7.95	30,767	6.69	32,409	6.62
	서귀포시	12,541	8.15	10,192	6.65	9,282	5.64	10,888	6.00
13-18세 (청소년기)	제주특별자치도	47,867	8.56	51,552	8.95	48,712	7.80	42,044	6.27
	제주시	35,768	8.82	39,027	9.23	37,122	8.07	32,004	6.54
	서귀포시	12,099	7.87	12,525	8.17	11,590	7.04	10,040	5.53
19-34세 (청년기)	제주특별자치도	124,323	22.23	115,683	20.08	122,456	19.61	126,109	18.79
	제주시	91,642	22.60	87,193	20.62	93,367	20.30	96,077	19.63
	서귀포시	32,681	21.25	28,490	18.58	29,089	17.68	30,032	16.54
35-64세 (장년기)	제주특별자치도	229,750	41.08	251,939	43.73	284,219	45.52	318,838	47.52
	제주시	165,695	40.87	184,105	43.55	208,263	45.29	231,528	47.31

구 분		2007년(1기)		2011년(2기)		2015년(3기)		2019년(4기)	
		명	%	명	%	명	%	명	%
65세 이상 (노인기)	서귀포시	64,055	41.65	67,834	44.23	75,956	46.17	87,310	48.08
	제주특별자치도	61,734	11.04	72,580	12.60	85,893	13.76	100,397	14.96
	제주시	40,249	9.93	47,741	11.29	56,914	12.38	66,690	13.63
	서귀포시	21,485	13.97	24,839	16.20	28,879	17.55	33,707	18.56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청 주민등록인구통계(외국인 제외)



[그림 Ⅱ-3] 제주특별자치도 생애주기별 인구변화

3.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예산분석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예산 추이 분석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회계연도 결산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회계연도 결산서 자료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 사이트에서 확보하였다. 우선 시간적 측면에서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도별 결산서 자료에서 세출결산 지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2년 단위로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예산 중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일반회계만을 활용하였다. 생애주기는 아동·청소년(0~18세), 청장년(19세~64세), 노인(65세 이상)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으며, 사업 특성상 특정 생애주기로 구분하기가 모호한 경우와 전체 생애주기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전생애로 구분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예산 추이 분석은 사회보장 사업을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주무부처의 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그 외 부처 사업 중에서 사회보장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을 포함시켰다. 생애주기 구분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사업연도 사업설명서를 활용하여 어느 생애주기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그와 함께 사업명에 생애주기가 등장하는 경우 해당 생애주기로 구분하였고, 생애주기가 등장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생애주기로 구분할 수 있거나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생애주기에 포함시켰다. 위 과정을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 사업으로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전생애로 구분하였다. 가능한 생애주기별로 사회보장 예산이 명확하게 세분화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예산 추이 변화가 신뢰롭고 타당하게 분석될 수 있도록 하였다.

1) 생애주기 사회보장 예산 추이

생애주기별 예산분석에 앞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단위로 추출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 전체 예산(일반회계 기준)과 생애주기 전체 예산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2011년 2,337,952백만원이었던 도 전체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에는 4,826,958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 도 전체 예산은 약 106.46% 증가하였다. 생애주기 예산은 2011년 408,045백만원에서 2019년 1,349,985백만원으로 이 기간 동안 약 230.84% 증가하였다. 이는 도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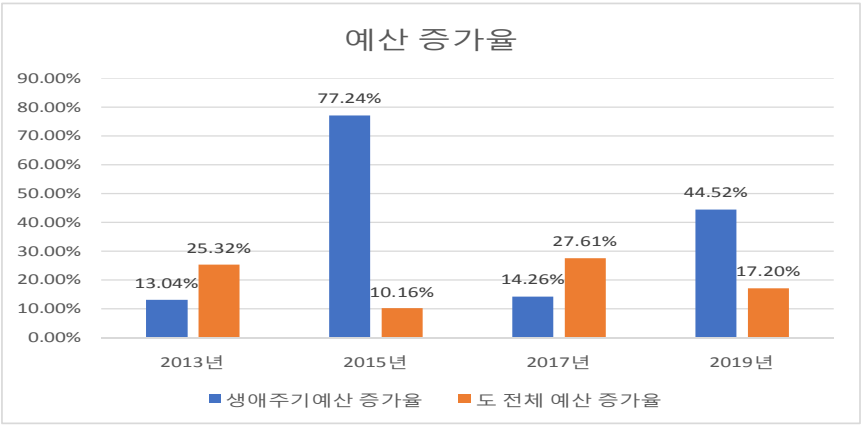
〈표Ⅱ-5〉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증가율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생애주기 예산	408,045	461,253	817,519	934,103	1,349,985
생애주기 예산 증가율	-	13.04	77.24	14.26	44.52
도 전체 예산	2,337,952	2,929,853	3,227,408	4,118,605	4,826,958
도 전체 예산 증가율	-	25.32	10.16	27.61	17.20

*본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2011년 ~ 2019년 각 회계연도의 결산서 자료에서 추출한 내용임

**예산은 세출결산기준 일반회계 금액이며 특별회계는 포함되지 않음



[그림Ⅱ-4]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증가율 추이

각 연도별 예산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3년과 2017년은 도 전체 예산 증가율에 비하여 생애주기 예산 증가율은 약 1/2 수준이었으나, 2015년과 2019년은 생애주기 예산 증가율이 도 전체 예산 증가율을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2015년 생애주기 예산 증가율이 2013년에 비하여 급격히 증가하여 증가율이 77.24%에 이른다는 것이다. 2015년 예산 증가율의 급격하게 변동한 이유는 '아동·청소년' 과 '노인' 영역 예산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분야에서는 '영유아 보육 및 어린이집 지원' 예산의 증가, 노인 분야에서는 '노인생활안정도모 및 노인여가시설지원' 예산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생애주기별 예산 추이 분석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제주특별자치도 생애주기 예산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생애주기 예산 비율은 2013년과 2017년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1년 17.45%에서 2019년 27.97%로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이후에는 20%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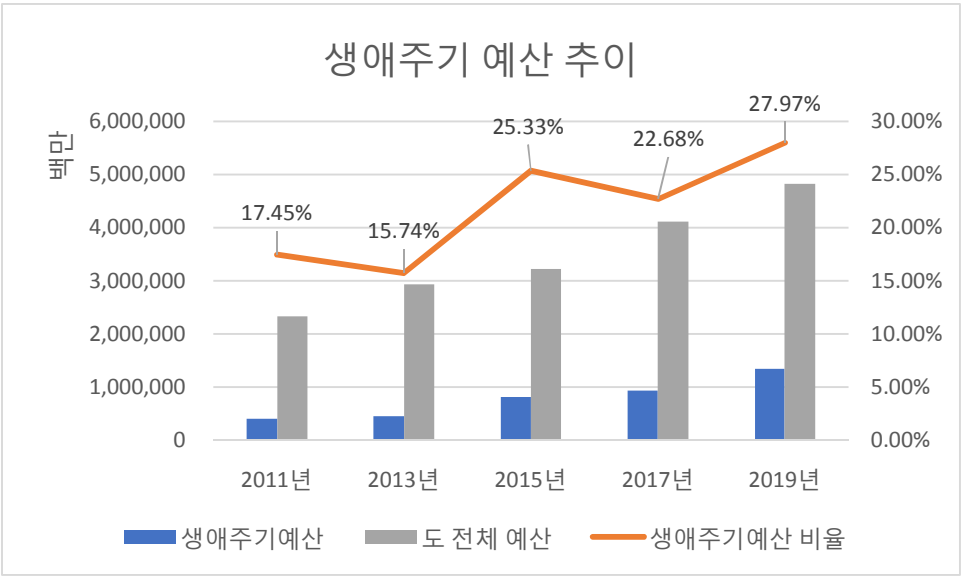
〈표 II-6〉 제주특별자치도 생애주기 예산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생애주기 예산	408,045	461,253	817,519	934,103	1,349,985
생애주기 예산 비율	17.45	15.74	25.33	22.68	27.97
도 전체 예산	2,337,952	2,929,853	3,227,408	4,118,605	4,826,958

*본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2011년 ~ 2019년 각 회계연도의 결산서 자료에서 추출한 내용임

*예산은 세출결산기준 일반회계 금액이며 특별회계는 포함되지 않음



[그림 II-5] 제주특별자치도 생애주기 예산 추이

2)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예산 추이

각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예산 규모를 비교해 보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모든 기간 동안 전생애, 아동·청소년, 노인, 청장년 순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은 청장년 예산은 전체 생애주기 예산의 1.48% ~ 2.72%로 규모 면에서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미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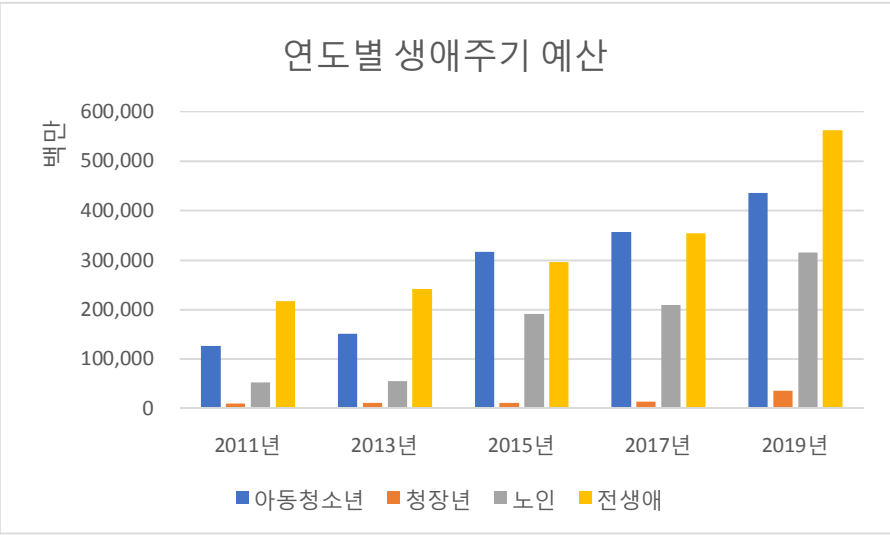
〈표 II-7〉 연도별 생애주기별 예산 추이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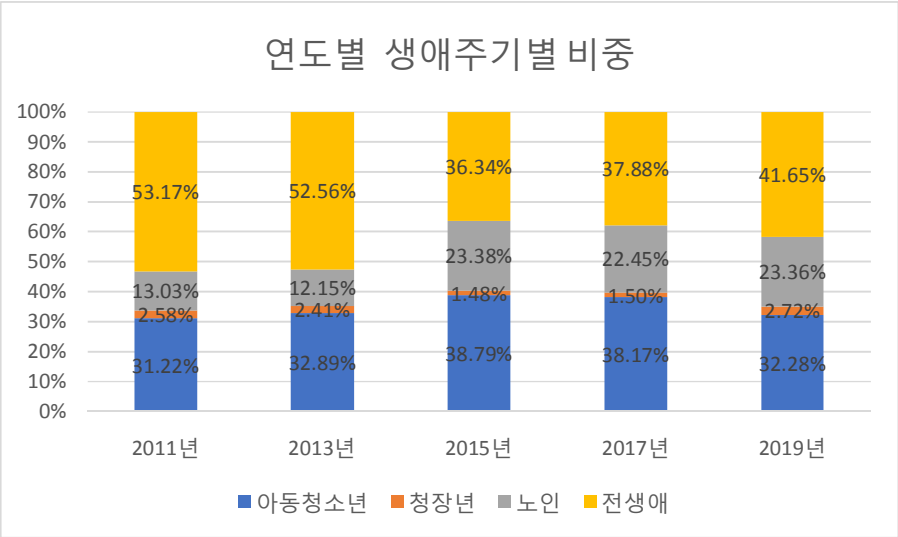
구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아동·청소년	127,386	151,694	317,144	356,564	435,793
	31.22%	32.89%	38.79%	38.17%	32.28%
청장년	10,533	11,096	12,138	14,006	36,672
	2.58%	2.41%	1.48%	1.50%	2.72%
노인	53,170	56,027	191,171	209,703	315,304
	13.03%	12.15%	23.38%	22.45%	23.36%
전생애	216,955	242,435	297,066	353,829	562,215
	53.17%	52.56%	36.34%	37.88%	41.65%
합계	408,045	461,253	817,519	934,103	1,349,985
	100	100	100	100	100

*본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2011년 ~ 2019년 각 회계연도의 결산서 자료에서 추출한 내용임

**예산은 세출결산기준 일반회계 금액이며 특별회계는 포함되지 않음



[그림 II-6] 연도별 생애주기별 예산 추이



[그림 II-7] 연도별 생애주기별 예산 비중

(1) 아동·청소년 예산

아동·청소년 예산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전체 생애주기 예산의 30%를 넘는 규모를 보이고 있다. 2017년에는 비율 규모가 2015년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으로 감소하기는 하였고, 2019년에는 2017년에 비해 절대적인 금액은 증가하였으나 전체 생애주기 예산에서의 비율은 일정 부분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예산금액과 비율은 상승 혹은 유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산비율 변동 추세를 보았을 때 2015년은 2013년과 비교하여 6%가 넘는 증가를 보였다. 그 이유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5년은 2013년에 비하여 '제주시 영유아 보육 및 어린이집 지원' 이 약 1,000억원, '서귀포시 영유아 보육 및 어린이집 지원' 이 약 293억원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에도 '초중등 교육 재정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아동복지시설 운영', '아동복지전문기관 운영 지원', '전국장애학생체전 준비 운영', '국제청소년포럼 개최' 등의 사업에서 이전 연도에 비해 예산 금액이 증가하였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2015년 예산 증가폭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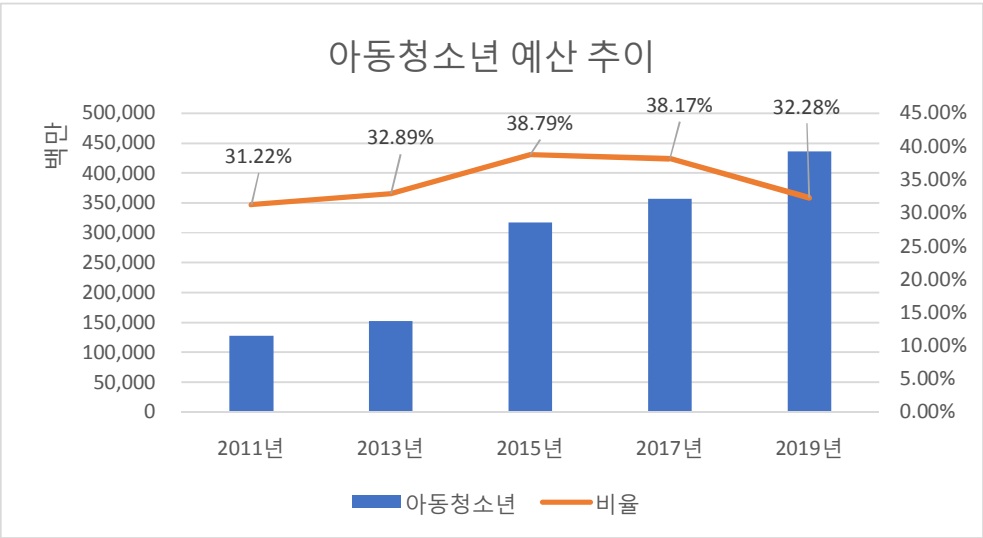
〈표Ⅱ-8〉 연도별 아동·청소년 예산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아동·청소년	127,386	151,694	317,144	356,564	435,793
	31.22%	32.89%	38.79%	38.17%	32.28%
합계 (생애주기 예산)	408,045	461,253	817,519	934,103	1,349,985
	100	100	100	100	100

*본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2011년 ~ 2019년 각 회계연도의 결산서 자료에서 추출한 내용임

**예산은 세출결산기준 일반회계 금액이며 특별회계는 포함되지 않음



[그림Ⅱ-8] 연도별 아동·청소년 예산 추이

(2) 청장년 예산

청장년 예산은 2011년 2.58%, 2013년 2.41%, 2015년 1.48%, 2017년 1.50%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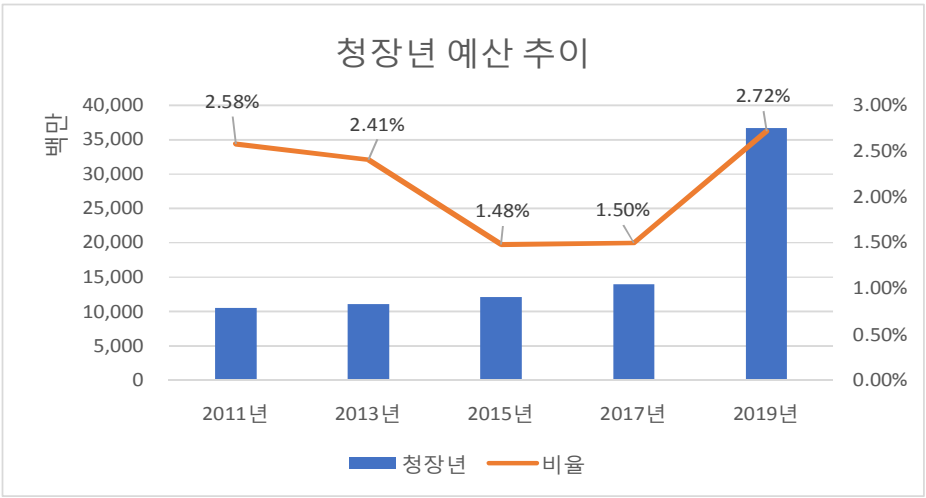
예산규모 면에서 2% 전후 비율을 유지하다가 2019년 2.72%로 최고치를 갱신하였다. 그 이유로는 2019년에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취업 지원' 등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에 따른 신규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청장년 생애주기 예산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Ⅱ-9〉 연도별 청장년 예산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청장년	10,533	11,096	12,138	14,006	36,672
	2.58%	2.41%	1.48%	1.50%	2.72%
합계 (생애주기 예산)	408,045	461,253	817,519	934,103	1,349,985
	100	100	100	100	100

*본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2011년 ~ 2019년 각 회계연도의 결산서 자료에서 추출한 내용임
**예산은 세출결산기준 일반회계 금액이며 특별회계는 포함되지 않음



[그림Ⅱ-9] 연도별 청장년 예산 추이

(3) 노인 예산

노인 예산은 2011년 13.03%, 2013년 12.15%로 10%대의 예산 규모를 보이다가, 2015년 23.38%로 증가한 후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20%대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생애주기 예산에서의 비중은 23.36%로 2017년의 비율과 유사하나 2019년 도 예산 금액 증가에 따라 노인 예산의 절대금액은 2017년 209,616백만원에서 2019년에는 315,304백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예산 추이의 특징은 2015년이 2013년에 비하여 그 비율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노인생활안정도모 및 노인여가시설지원' 사업의 예산 규모가 2013년 약 97억에서 2015년 약 962억으로 급증하였고, '장기요양서비스 개선' 사업에서 약 233억이 증가한 것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 외에도 '제주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경로복지증진' 등에서 2013년에 비해 예산 금액이 증가하였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2015년 예산 증가폭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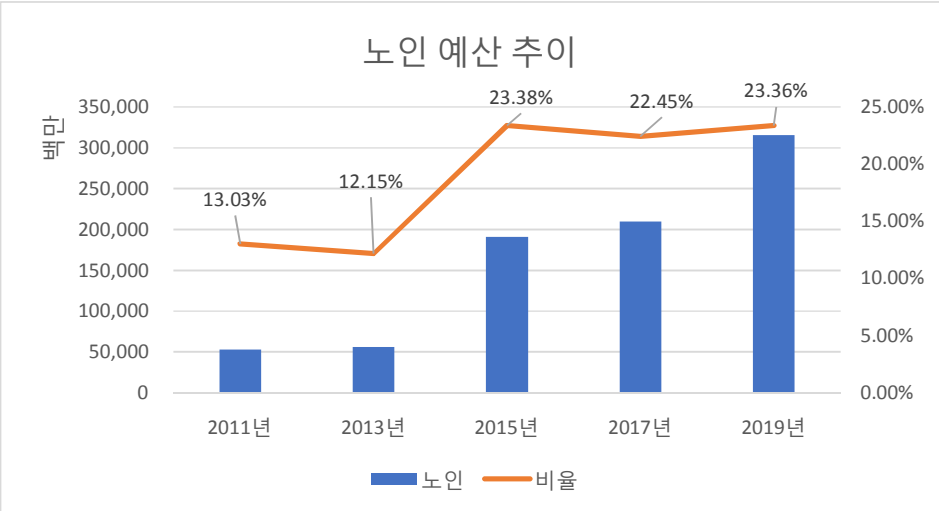
<표 II-10> 연도별 노인 예산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노인	53,170	56,027	191,171	209,703	315,304
	13.03%	12.15%	23.38%	22.45%	23.36%
합계 (생애주기 예산)	408,045	461,253	817,519	934,103	1,349,985
	100	100	100	100	100

*본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2011년 ~ 2019년 각 회계연도의 결산서 자료에서 추출한 내용임

**예산은 세출결산기준 일반회계 금액이며 특별회계는 포함되지 않음



[그림 II-10] 연도별 노인 예산 추이

(4) 전생애 예산

전생애 예산은 2011년 53.17%에서 2015년 36.34%로 30%대로 감소하였다가 2019년 41.65%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생애 예산 항목은 특성상 특정 생애주기가 아닌 전체 생애주기에 포함되는 경우에 구분한 항목으로 다른 생애주기의 예산 규모 변동에 따라 유동적인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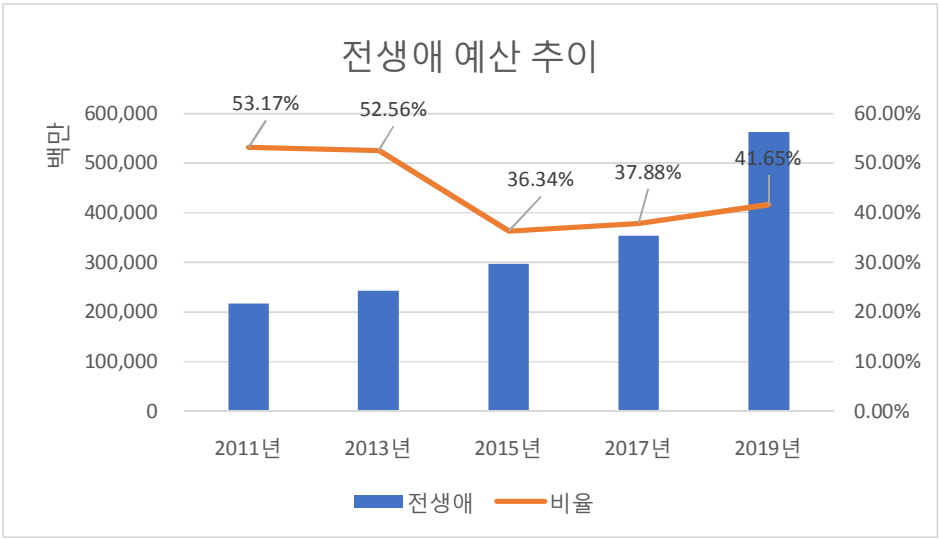
<표 II-11> 연도별 전생애 예산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전생애	216,955	242,435	297,066	353,829	562,215
	53.17%	52.56%	36.34%	37.88%	41.65%
합계 (생애주기 예산)	408,045	461,253	817,519	934,103	1,349,985
	100%	100%	100%	100%	100%

*본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2011년 ~ 2019년 각 회계연도의 결산서 자료에서 추출한 내용임

**예산은 세출결산기준 일반회계 금액이며 특별회계는 포함되지 않음



[그림 II-11] 연도별 전생애 예산 추이

4. 생애주기별 전달체계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는 구조와 기능에 따라 복지서비스 전달을 기획, 지원, 관리하는 행정체계와 전달자가 수급자와 상호 접촉을 가지면서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집행체계로 구분된다(양정하, 2014). 또한 운영주체에 따라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로 구분되는데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공공전달체계는 주로 행정체계로서의 기능을 주로 담당하며, 민간전달체계는 집행체계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우선 공공전달체계는 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 읍·면·동 주민복지센터로 이어진다.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달체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12〉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관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행정기관		
			도 청	시 청	주민복지센터
제주특별자치도			1	2	43
제주시	제주시		1	1	26
	동지역		1	1	19
	읍·면지역	동부	-	-	3
		서부	-	-	4
서귀포시	서귀포시		-	1	17
	동지역		-	1	12
	읍·면지역	동부	-	-	3
		서부	-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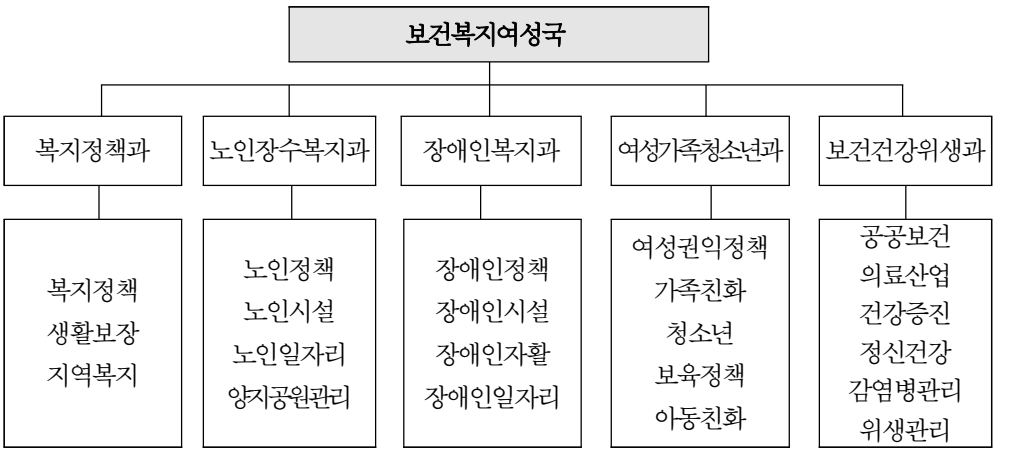
*출처: 김정득 외(2019).

〈표 II-13〉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현황 (기준: 2018. 12월 말)

(단위: 명)

구 분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계	사회복지직	행정직 등 기타직렬
계		448	264	184
제주특별자치도		64	19	45
행정시		384	245	139
제주시	시청	101	58	43
	읍·면·동	131	93	38
서귀포시	시청	71	39	32
	읍·면·동	81	55	26

*출처: 김정득 외(2019).



[그림 II-12]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조직도[2)]

2)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www.jeju.go.kr(2020. 6. 9. 검색)

1)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은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3].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주로 요보호 중심, 시설 중심으로 발전해 오면서 행정 서비스의 전달체계도 각 서비스별로 구축되어 다원화되어 있으나 연계 체계가 미약하여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였다. 또한 서비스도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구축하기보다는 기관이나 시설중심의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동·청소년복지 사업은 이분화되어 아동복지는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며, 청소년 대상의 복지사업은 주로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청소년의 경우 복지사업의 담당기관은 여러 부처에 분산적으로 편제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아동복지사업과 청소년복지사업에 따른 공공전달체계를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동복지 사업의 경우, ① 보건복지부: 보육, 아동복지, 아동의 권리 및 보호, ② 여성가족부: 가족지원, 청소년지원, 인권보호, ③ 교육부: 교육, 방과후 돌봄, 학생복지, ④ 문화체육관광부: 아동 및 청소년문화지원, ⑤ 법무부: 청소년보호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이병렬, 서영미, 김준홍, 2019). 다음으로 청소년복지 사업의 경우, ① 여성가족부: 청소년복지, 청소년참여 및 권리, 학교 밖 청소년 및 다문화청소년지원, ② 보건복지부: 청소년건강관리, 유해환경개선 ③ 교육부: 교육, 청소년의 안전과 보호, ④ 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문화교육 및 활동지원, 청소년체력증진, ⑤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 교정교육, ⑥ 고용노동부: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청소년진로교육 등에 관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07년 이후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을 정부별로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선 노무현 정부(2003-2007)에서는 '희망스타트 사업(2007년)' 이 시행되어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같은 해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 육성 및 그들의 홀로서기를 돕기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이 시작되었다. 희망스타트는 2008년에 '드림스타트' 로,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 은 2009년부터 '디딤씨앗 통장' 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이 두 사업 모두 2020년 현

3)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18세 미만으로,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9세 이상 24세 이하로 명시되어 있다.

재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주민복지과 아동지원팀),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아동지원팀), 읍·면·동 주민복지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2008-2012)에서는 2003년에 시범운영으로 시작된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 사업이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실시되었다.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시교육지원청·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해당학교에서 담당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2013-2017)에서는 2014년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이듬해 시행되었다. 이 정책은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통해 17개 시·도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를 통해 수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2017-2022)에서는 2018년에 만 6세 미만의 일부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 을 시행하였고, 2020년부터는 만 7세의 모든 아동에게 확대하여 지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친화팀), 제주시(주민복지과 아동지원팀),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아동지원팀), 읍·면·동 주민복지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정부 부처의 사업에 대한 집행 및 서비스 제공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 주민복지센터가 대부분 담당하며, 일부 사업에 대해서 민간에 위탁하여 위탁기관이 수행하고 있다. 도내에서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시설·기관·단체는 다음과 같다.

〈표Ⅱ-14〉 2019년 도내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민간 전달체계

(단위: 개소)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아동양육시설	5	3	2
공동생활가정	5	4	1
지역아동센터	62	40	22
아동보호전문기관	2	1	1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아동관련기관·단체	5	5	0
청소년복지시설	7	5	2
청소년상담기관	3	2	1
청소년지원기관	1	1	0
청소년수련시설[4]	25	15	10
청소년단체	33	27	5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2019)의 자료를 일부 수정하였음

**도 단위의 기관도 포함하였음[5]

한편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된 2007년부터 민간 영역의 전달체계를 살펴보면, 우선 아동양육시설은 2007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5개소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2008년 6개소가 운영되었고, 매해 4-6개소의 분포를 보이다가 2018년 7개소로 확대되었으나 2019년 다시 5개소로 감소되어 운영되고 있다[6]. 지역아동센터는 2007년 42개소에서 매해 증가되어 2013년 73개소로 높은 설치율을 보이다가 2014년부터 운영하는 센터 수가 감소되면서 2019년 현재 6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7].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각 1개소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운영되고 있다.

도내 청소년수련시설은 2007년 12개소에서 매해 1-2개소가 신설되어 2019년에는 25개소로 해를 거듭할수록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며, 청소년단체는 2007년에 19개였으며, 비슷한 분포를 보이다가 2015년 이후 확장되어 2019년 현재 33개 청소년단체가 있다. 청소년복지시설[8]은 2007년에 청소년쉼터가 3개소였고, 2017년까지 3개소

4) 도내 청소년수련시설은 총 53개소로 직영시설은 28개소임

5) 도 단위 기관의 운영은 다양함. 도 단위의 업무만 하는 경우도 있으나, 제주시 단위의 기관이 없는 경우, 도 단위의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시 단위의 역할까지 같이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 그리고 도 단위의 기관으로 설치되었으나 제주시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음. 이와 같이 다양한 경우가 있어서 도 단위의 기관도 그 소재지에 따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포함하였음

6)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홈페이지(자료실)와 『2019 제주사회복지편람』을 참고하였음

7) 『2016년 12월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와 『2019 제주사회복지편람』을 참고하였음

8) 청소년복지시설에는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있으며(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2019년 현재 제주에는 청소년쉼터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있음

가 추가되었으며, 2018년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 1개소가 신설되어 2019년 현재 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아동의 민간 전달체계의 규모는 2007년 이후 매해 비슷한 수준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청소년의 민간 전달체계의 규모는 청소년수련시설을 비롯하여 매해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2) 청장년

청장년은 18세부터 64세까지의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청장년 복지서비스에 따른 공공전달체계는 우선 다른 생애주기별 영역들처럼 전담부처 및 대표적인 전달체계가 명확하게 제시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아동·청소년이나 노인 등은 대체로 해당 연령대를 위한 전담부처 및 전달체계를 제시하는데 비교적 용이하지만 청장년의 연령대는 아동·청소년과 노인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를 포함해야 하므로 청년,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족, 취업, 주거 등 다양한 특성을 지닌 복합적인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략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청장년의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여성가족부 등 다수의 부처에서 광범위하게 지원되고 있다. 청장년복지정책은 (청년)교육지원, 고용지원, 일상생활지원, 건강지원, 주거지원, 보호(돌봄, 안전) 등의 영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 이후 청장년 복지정책을 정부별로 간략하게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2003-2007년) 당시 청년실업과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4년에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명박 정부(2008-2012년)에서는 2008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신설되었으며, 정부가 시행하는 청년층 일자리마련 대책 중 하나인 청년인턴제가 시행되었다. 2009년에는 '근로장려세제'의 시행으로 저소득계층에게는 근로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되었고,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업은 국세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제주세무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해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에 맞는 재취업지원을 위한 '새로일하기센터' 가 신규 지정되어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외에도 청년 및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2009), 내일배움카드(2011)가 도입되고, 대학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취업아카데미(2010)가 신설되어 다른 때 보다 더욱 취업과 관련한 복지정책이 많았다. 이 3가지 정책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취업성공패키지와 내일배움카드는 제주고용복지센터, 청년취업아카데미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2013-2017년)에서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2013년)' 를 전국에 신설하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예정)하는 4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생애설계, 재취업 및 창업, 사회참여 기회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장년층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2014년에는 지역 인재의 아이디어를 발굴하도록 돕고, 창업 및 사업으로 발전시켜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지역일자리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신설하였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2016)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지역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고용서비스를 창출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통해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문재인 정부(2017-2022년)에서는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2017년)' 을 수립하여 50-60세대(신중년)을 대상으로 '주된 일자리·재취업 일자리·사회공헌 일자리' 로 이어지는 인생 3모작 기반을 구축으로 일자리 확충방안을 시행하였다. 2019년에는 청와대에 청년소통정책관과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추진단이 신설되었고, 같은 해에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취업지원금' 이 지원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2020년에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어 청년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들이 확대되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지원 조례 제정(2017)' ,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2017)' ,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2019년)' 및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2019년)' 의 시행을 통해 청장년들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는 제주특별자치도(일자리과)에서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통해 실행하고 있으며,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한국고용정보원(온라인청년센터)을 통해 실행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에 대한 집행 및 서비스 제공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청년정책담당관, 일자리과, 여성가족청소년과, 건축지적과 등에서 주로 담당하며,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는 여성가족과와 경제일자리과 등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읍·면·동 주민복지센터로 이어져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 민간에 위탁하여 위탁기관이 수행하고 있으며 도내에서 청장년들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기관·단체는 다음과 같다.

〈표Ⅱ-15〉 2019년 도내 청장년 복지서비스 민간 전달체계

(단위: 개소)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사회복지관	10	7	3
지역자활센터	4	2	2
자원봉사센터	3	2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	2	0
(다문화)가족관련기관	7	6	1
여성인권·상담기관	5	4	1
여성관련기관・단체	2	2	0
고용・취업지원기관	5	3	2
청년지원기관	1	1	0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2019)의 자료를 수정·보완하였음

**도 단위의 기관도 포함하였음

한편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된 2007년 이후 민간 영역의 전달체계를 살펴보면, 사회복지관의 경우, 2007년에 10개소에서 2019년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지역자활센터는 2007년 3개소에서 2015년에 1개소가 추가되어 2019년에는 총 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자원봉사센터는 2007년에 3개소가 2019년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역시 2007년 당시 2개소의 시설이 2019년에도 지속되고 있다. 다문화를 포함한 가족관련기관은 2007년 당시 3개소에서 다문화인구의 증가에 따라 소폭 확대되어 2019년에는 총 7개소가 운영 중이다. 여성인권·상담기관은 2007년 당시 5개소가 2019년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여성관련기관·단체는 2007년 당시 2개소가 2019년에도 계속되고 있다. 고용·취업지원기관은 2009년에 2개소에서 점차 소폭 증가하여 2019년에 총 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대상으로 지원하는 기관은 2017년에 1개소가 신설되어 운영 중이다.

중장년의 민간 전달체계의 규모는 2007년 이후 큰 변화 없이 지속되거나 간혹 1-2개소 증가하는 수준을 보였다. 다만 청년의 경우, 진로 및 취업과 관련하여 사회적 이슈가 부각되면서 2017년 이후 기관이 신설되어 운영하고 있다.

3) 노인

노인은 이론적 배경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노인복지법의 경로우대(26조)에 따르는 연령기준인 65세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과거 노인복지서비스의 대상은 사회보호가 필요한 의존성 노인을 대상으로 한정하였지만 오늘날은 노인 누구나 노인복지서비스의 대상이며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규정하여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노인복지서비스는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산하 5개 부서(노인정책과, 노인지원과, 요양보험제도과, 요양보험운영과, 치매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생활지원, 건강지원, 보호(돌봄/안전), 주거지원, 고용지원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를 통해 어르신 복지정책(노후생활안정지원, 정부지원 건강지원사업), 노인보호전문기관, 일자리사업으로 구분하여 총괄적으로 노인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제주시·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읍·면·동 주민복지센터로 이어져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다.

2007년 이후 노인 복지정책을 정부별로 간략하게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2003-2007년)에서는 혼자 사는 노인들의 사회안전망인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2007

년)',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하는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2007년)'을 시행하였다. 같은 해 제주에서는 전국 최초로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이 도입되어 노인계층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명박 정부(2008-2012년)에서는 '기초노령연금(2008년)'의 시행으로 소득과 재산이 낮아 생활형편이 어려운 노인층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노인장기요양보험(2008년)'의 도입으로 노화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이나 일상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2013-2017년)에서는 '기초연금법(2014년)'의 제정 및 시행으로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초가 되는 정액연금을 주는 목적으로 공적연금을 시행하였다.

문재인 정부(2017-2022년)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2017년)'를 통해 치매문제를 개별 가정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존의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의 6개 사업을 통합·개편한 '노인맞춤형 돌봄 서비스(2020년)'를 시행중이다. 또한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재활 등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기반 사회서비스 정책인 '지역사회통합돌봄(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버스무료탑승(2017)', '행복택시(2018)' 시행을 통해 노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에 제시한 정부의 주요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집행 및 서비스 제공은 제주특별자치도(노인장수복지과)와 제주시·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읍·면·동 주민복지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 도내 노인들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시설·기관·단체는 다음과 같다.

<표 Ⅱ-16> 2019년 도내 노인 복지서비스 민간 전달체계

(단위: 개소)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노인주거복지시설	2	2	0
노인의료복지시설	64	44	20
재가노인복지시설	22	14	8
재가장기요양기관	119	94	25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447	297	150
노인보호전문기관	2	1	1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수행기관제외)	3	2	1
노인복지기관·단체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광역치매센터)	3	2	1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2019)의 자료를 일부 수정하였음

**도 단위의 기관도 포함하였음

한편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된 2007년 이후 민간 영역의 전달체계를 살펴보면,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시설 및 기관·단체의 현황은 노인의료복지시설 47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 5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13개소가 운영되었으나, 2019년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64개소로 17개소 증가, 재가장기요양기관 119개소로 114개소 증가, 재가노인복지시설 22개소로 9개소가 증가하여 매년 노인사회복지서비스 민간 전달체계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표Ⅱ-17〉 생애주기별 역대 정부의 복지정책

구 분	노무현 정부 (2003-2007)	이명박 정부 (2008-2012)	박근혜 정부 (2013-2017)	문재인 정부 (2017-2022)
아동·청소년	■ 드림스타트 (2007)	■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2012)*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14), 시행(2015)	■ 아동수당 (2018)
청장년	■ 청년실업해소 특별법 제정 (2004)	■ 청년인턴제 (2008)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및 시행,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설(2008) ■ 취업성공패키지 (2009) ■ 근로장려세제 시행(2009)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설(2009) ■ 청년취업아카데미(2010) ■ 내일배움카드제 (2011)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신설 (2013년) ■ 창조경제혁신센터(2014) ■ 청년내일채움공제(2016)	■ 신 중년 인생3모작 기반 구축 계획(2017년) ■ 청년구직활동 지원금(2019) ■ 청와대 청년소통 정책관 신설(2019)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신설(2019) ■ 청년기본법 제정(2020)

구 분	노무현 정부 (2003-2007)	이명박 정부 (2008-2012)	박근혜 정부 (2013-2017)	문재인 정부 (2017-2022)
노인	■ 독거노인생활 지도사 파견 (2007) ■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2017) ※ 제주, 전국 최초 시행	■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실시(2007) ■ 기초노령연금 (2008) ■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2008)	■ 기초연금법 제정 및 시행 (2014)	■ 치매국가책임제 (2017) ■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2020) ■ 지역사회 통합 돌봄(2020) ※ <제주> ■ 75세 이상 - 버스무료(2017) - 행복택시(2018)

Ⅲ 조사 결과

Ⅲ. 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결과

1) 조사개요

본 조사는 제주도민의 사회보장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20년 7월 6일부터 7월 21일까지 15일간 제주도민 3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추출은 아동·청소년, 청장년, 노인 등의 생애주기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을 고려한 사회복지 기관, 시설 등을 집락(cluster)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설문은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349부를 배부하였고, 총 331부가 회수되었다. 검토 결과 331부의 설문지 전체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문항별 무응답 사례는 결측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설문도구는 강창민, 정영태, 홍연숙, 김양이, 고승한(2012), 김미곤, 이태진, 송태민, 우선희, 김성아(2018), 황성준, 김정득, 김은정 등(2019)이 제작한 설문지를 참고하여 수정 ·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2)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Ⅲ-1>과 같다. 성별로는 남자 128명(38.7%), 여자 203명(61.3%)이 참여하였고, 거주지로는 제주시 동지역 220명(66.5%), 서귀포시 동지역 57명(17.2%), 서귀포시 읍면지역 28명(8.5%), 제주시 읍면지역 26명(7.9%)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 57명(17.2%), 50대 57명(16.9%), 60대 52명(15.7%), 20대 48명(14.5%), 40대 41명(12.4%), 70대 40명(12.1%), 30대 32명(9.7%), 80대 5명(1.5%) 순으로 조사되었다.

생애주기별로는 청장년 207명(62.5%), 노인 68명(20.5%), 아동·청소년 56명(16.9%)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대졸 94명(28.4%), 고졸 87명(26.3%), 중졸 49명(14.8%), 전

문대졸 34명(10.3%), 초졸 33명(10.0%), 대학원졸 26명(7.9%), 무학 8명(24.%) 순으로 나타났다. 혼인여부를 살펴보면, 기혼 182명(55.0%), 미혼 118명(35.6%), 사별 17명(5.1%), 이혼 11명(3.3%), 별거 3명(0.9%) 순으로 조사되었다.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수로는 4명이 80명(24.2%), 2명이 79명(23.9%), 3명이 75명(22.7%), 5명이 48명(14.5%), 6명이 19명(5.7%)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가족의 수는 '영유아' 1명이 20명, 2명이 7명, 3명이 1명 순으로 조사되었고, '아동·청소년' 1명이 53명, 2명이 44명, 3명이 15명, 4명이 4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가족의 수로 '청장년' 2명이 141명, 1명과 3명이 각 53명, 4명이 33명, 5명이 13명 순으로, '노인' 1명이 57명, 2명이 50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직업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청소년이 57명(17.2%), 무직 46명(13.9%), 전업주부 41명(12.4%), 사무직 및 서비스직 각 36명(10.9%), 전문직 35명(10.6%), 기타 25명(7.6%), 자영업 및 농·임·축·어업 각 18명(5.4%), 공무원 10명(3.0%), 단순노무직 8명(1.8%), 생산기능직 2명(0.6%)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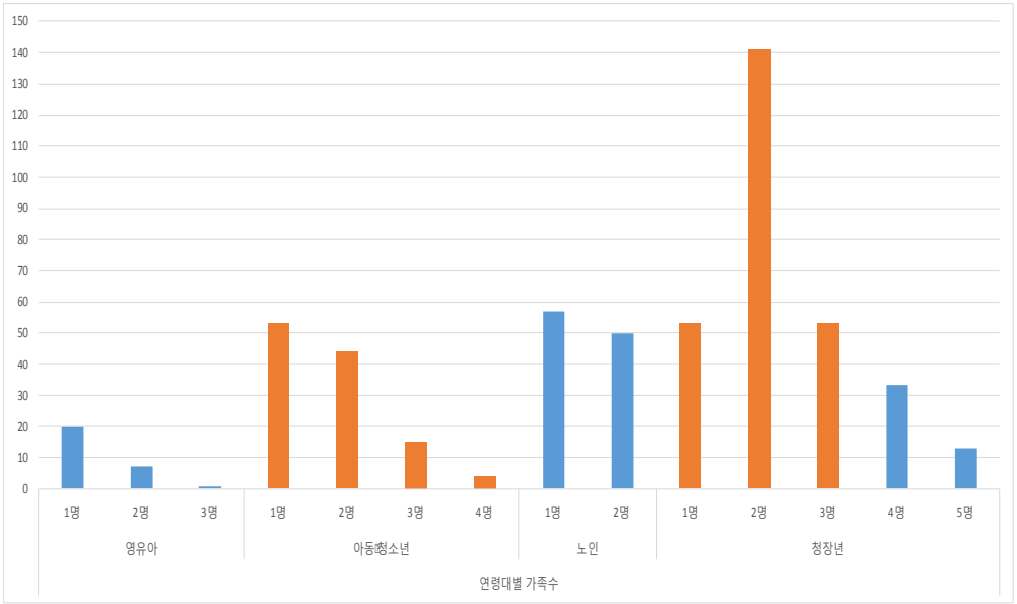
<표Ⅲ-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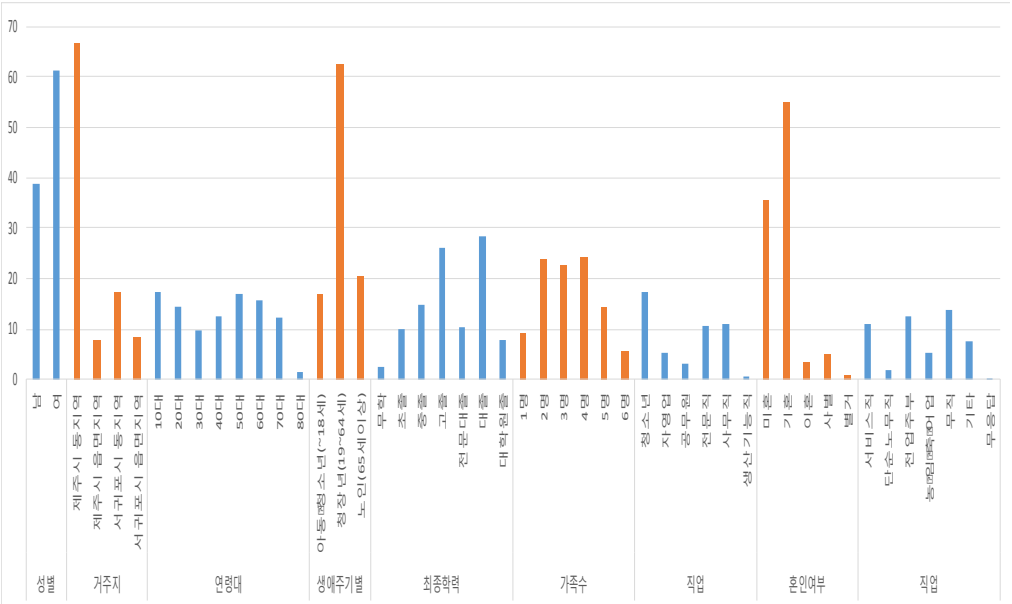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구 분		사례수(%)
성 별	남	128(38.7)	거주지	제주시 동지역	220(66.5)
	여	203(61.3)		제주시 읍면지역	26(7.9)
				서귀포시 동지역	57(17.2)
				서귀포시 읍면지역	28(8.5)
연령대	10대	57(17.2)	생애주기별	아동·청소년 (~18세)	56(16.9)
	20대	48(14.5)			
	30대	32(9.7)		청장년 (19~64세)	207(62.5)
	40대	41(12.4)			
	50대	56(16.9)			
	60대	52(15.7)		노인 (65세 이상)	68(20.5)
	70대	40(12.1)			
	80대	5(1.5)			

구 분			사례수(%)	구 분			사례수(%)
최종학력		무학	8(2.4)	혼인여부		미혼	118(35.6)
		초졸	33(10.0)			기혼	182(55.0)
		중졸	49(14.8)			이혼	11(3.3)
		고졸	87(26.3)			사별	17(5.1)
		전문대졸	34(10.3)			별거	3(0.9)
		대졸	94(28.4)				
		대학원졸	26(7.9)				
가족수		1명	30(9.1)	연령대별 가족수	영유아	1명	20
		2명	79(23.9)			2명	7
		3명	75(22.7)			3명	1
		4명	80(24.2)				
		5명	48(14.5)				
		6명	19(5.7)				
연령대별 가족수	아동·청소년	1명	53		청장년	1명	53
		2명	44			2명	141
		3명	15			3명	53
		4명	4			4명	33
	노인	1명	57			5명	13
		2명	50				

구 분		사례수(%)	구 분		사례수(%)
직업	청소년	57(17.2)	직업	서비스직	36(10.9)
	자영업	18(5.4)		단순노무직	6(1.8)
	공무원	10(3.0)		전업주부	41(12.4)
	전문직	35(10.6)		농·임·축·어업	18(5.4)
	사무직	36(10.9)		무직	46(13.9)
	생산기능직	2(0.6)		기타	25(7.6)
				무응답	1(0.3)
전 체		331(100.0)			



[그림Ⅲ-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그림Ⅲ-1-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2

3) 도민의 삶과 사회보장

(1)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 만족 40.2%(133명), 보통 36.3%(120명), 매우 만족 11.8%(39명) 순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52%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보통 38.3% (49명), 만족 36.7%(47명), 매우 만족 13.3%(17명) 순으로, 여자의 경우 만족 42.4%(86명), 보통 35.0%(71명), 매우 만족 10.8%(22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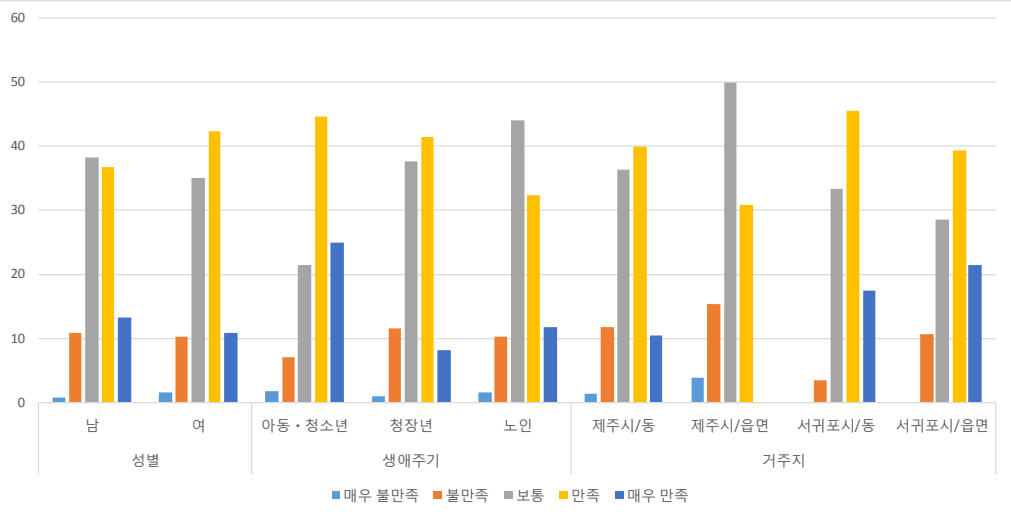
생애주기별로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만족 44.6%(25명), 매우 만족 25.0% (14명), 보통 21.4%(12명) 순으로, 청장년의 경우 만족 41.5%(86명), 보통 37.7%(78명), 불만족 11.6%(24명) 순으로, 노인의 경우 보통 44.1%(30명), 만족 32.4%(22명), 매우 만족

11.8%(8명)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제주시 동지역이 만족 40.0%(88명), 보통 36.4%(80명), 불만족 11.8%(26명) 순으로, 제주시 읍면지역이 보통 50.0%(13명), 만족 30.8%(8명), 불만족 15.4%(4명) 순으로, 서귀포시 동지역이 만족 45.6%(26명), 보통 33.3%(19명), 매우 만족 17.5%(10명) 순으로,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만족 39.3%(11명), 보통 28.6%(8명), 매우 만족 21.4%(6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Ⅲ-2> 삶의 만족도

(단위 : 명, %)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성별	남	1(0.8)	14(10.9)	49(38.3)	47(36.7)	17(13.3)	128(100.0)
	여	3(1.5)	21(10.3)	71(35.0)	86(42.4)	22(10.8)	203(100.0)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1(1.8)	4(7.1)	12(21.4)	25(44.6)	14(25.0)	56(100.0)
	청장년	2(1.0)	24(11.6)	78(37.7)	86(41.5)	17(8.2)	207(100.0)
	노인	1(1.5)	7(10.3)	30(44.1)	22(32.4)	8(11.8)	68(100.0)
거주지	제주시/동	3(1.4)	26(11.8)	80(36.4)	88(40.0)	23(10.5)	220(100.0)
	제주시/읍면	1(3.8)	4(15.4)	13(50.0)	8(30.8)	0(0.0)	26(100.0)
	서귀포시/동	0(0.0)	2(3.5)	19(33.3)	26(45.6)	10(17.5)	57(100.0)
	서귀포시/읍면	0(0.0)	3(10.7)	8(28.6)	11(39.3)	6(21.4)	28(100.0)
전 체		4(1.2)	35(10.6)	120(36.3)	133(40.2)	39(11.8)	331(100.0)



[그림Ⅲ-2] 삶의 만족도

(2) 제주에 대한 소속감 · 연대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제주도에 대해 어느 정도의 소속감을 갖고 있는 지에 대해 보통 32.9%(109명), 조금 느낌 28.7%(95명), 많이 느낌 23.3%(77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조금 느낌 29.7%(38명), 보통 28.1%(36명), 많이 느낌 23.4%(30명) 순으로, 여자의 경우 보통 36.0%(73명), 조금 느낌 28.1%(57명), 많이 느낌 23.2%(47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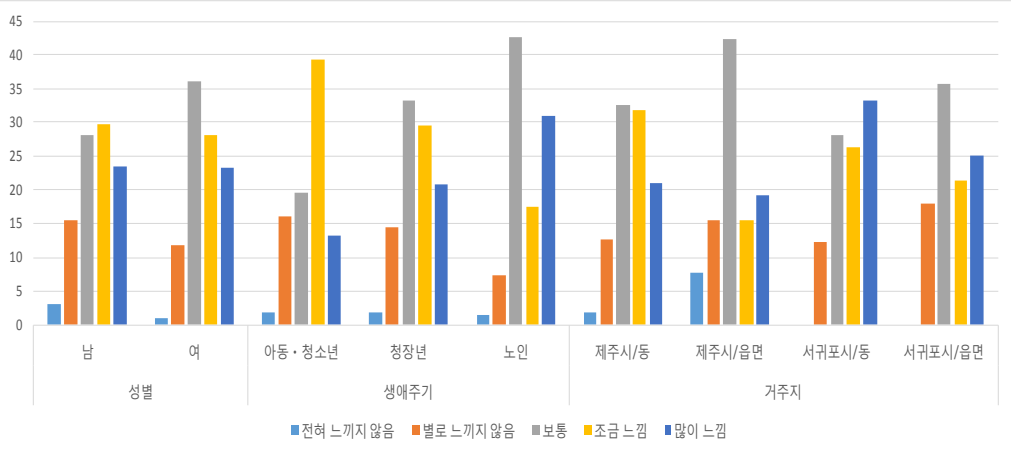
생애주기별로는 아동·청소년이 조금 느낌 39.3%(22명), 많이 느낌 23.2% (13명), 보통 19.6%(11명) 순으로, 청장년이 보통 33.3%(69명), 조금 느낌 29.5%(61명), 많이 느낌 20.8%(43명) 순으로 노인이 보통 42.6%(29명), 많이 느낌 30.9%(21명), 조금 느낌 17.6%(12명)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제주시 동지역이 보통 32.7%(72명), 조금 느낌 31.8%(70명), 많이 느낌 20.9%(46명) 순으로, 제주시 읍면지역이 보통 42.3%(11명), 많이 느낌 19.2% (5명), 조금 느낌 15.4%(4명) 순으로, 서귀포시 동지역이 많이 느낌 33.3% (19명), 보통 28.1%(16명), 조금 느낌 26.3%(15명) 순으로, 서귀

포시 읍면지역이 보통 35.7%(10명), 많이 느낌 25.0%(7명), 조금 느낌 21.4%(6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Ⅲ-3> 제주에 대한 소속감 · 연대감을 느끼는 정도

(단위 : 명, %)

구 분		전혀 느끼지 않음	별로 느끼지 않음	보통	조금 느낌	많이 느낌	전체
성별	남	4(3.1)	20(15.6)	36(28.1)	38(29.7)	30(23.4)	128(100.0)
	여	2(1.0)	24(11.8)	73(36.0)	57(28.1)	47(23.2)	203(100.0)
생애주기	아동 · 청소년	1(1.8)	9(16.1)	11(19.6)	22(39.3)	13(23.2)	56(100.0)
	청장년	4(1.9)	30(14.5)	69(33.3)	61(29.5)	43(20.8)	207(100.0)
	노인	1(1.5)	5(7.4)	29(42.6)	12(17.6)	21(30.9)	68(100.0)
거주지	제주시/동	4(1.8)	28(12.7)	72(32.7)	70(31.8)	46(20.9)	220(100.0)
	제주시/읍면	2(7.7)	4(15.4)	11(42.3)	4(15.4)	5(19.2)	26(100.0)
	서귀포시/동	0(0.0)	7(12.3)	16(28.1)	15(26.3)	19(33.3)	57(100.0)
	서귀포시/읍면	0(0.0)	5(17.9)	10(35.7)	6(21.4)	7(25.0)	28(100.0)
전 체		6(1.8)	44(13.3)	109(32.9)	95(28.7)	77(23.3)	331(100.0)



[그림Ⅲ-3] 제주에 대한 소속감 · 연대감을 느끼는 정도

(3) 제주지역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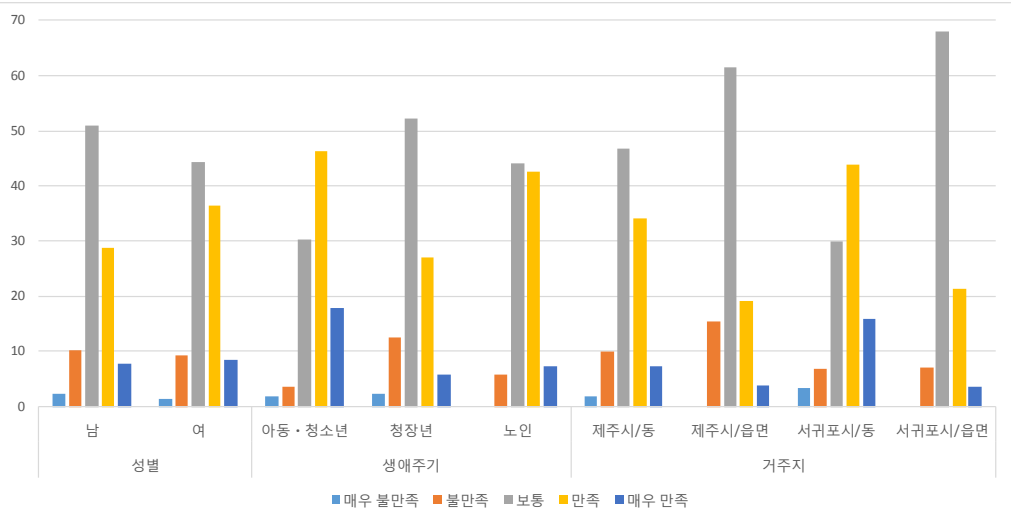
제주도에서 경험해 본 복지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에 대해 보통 46.8%(155명), 만족 33.5%(111명), 불만족 9.7%(32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보통 50.8%(65명), 만족 28.9%(37명), 불만족 10.2%(13명) 순으로, 여자의 경우 보통 44.3%(90명), 만족 36.5% (74명), 불만족 9.4%(19명) 순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별로는 아동·청소년이 만족 46.4%(26명), 보통 30.4%(17명), 매우 만족 17.9%(10명) 순으로, 청장년이 보통 52.2%(108명), 만족 27.1%(56명), 불만족 12.6%(26명) 순으로, 노인이 보통 44.1%(30명), 만족 42.6%(29명), 7.4%(5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거주지별로는 제주시 동지역이 보통 46.8%(103명), 만족 34.1%(75명), 불만족 10.0%(22명) 순으로, 제주시 읍면지역이 보통 61.5% (16명), 만족 19.2%(5명), 불만족 15.4%(4명) 순으로, 서귀포시 동지역이 만족 43.9%(25명), 보통 29.8%(17명), 매우 만족 15.8%(9명) 순으로,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보통 67.9%(19명), 만족 21.4%(6명), 7.1%(2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Ⅲ-4〉 제주지역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

(단위 : 명, %)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성별	남	3(2.3)	13(10.2)	65(50.8)	37(28.9)	10(7.8)	128(100.0)
	여	3(1.5)	19(9.4)	90(44.3)	74(36.5)	17(8.4)	203(100.0)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1(1.8)	2(3.6)	17(30.4)	26(46.4)	10(17.9)	56(100.0)
	청장년	5(2.4)	26(12.6)	108(52.2)	56(27.1)	12(5.8)	207(100.0)
	노인	0(0.0)	4(5.9)	30(44.1)	29(42.6)	5(7.4)	68(100.0)
거주지	제주시/동	4(1.8)	22(10.0)	103(46.8)	75(34.1)	16(7.3)	220(100.0)
	제주시/읍면	0(0.0)	4(15.4)	16(61.5)	5(19.2)	1(3.8)	26(100.0)
	서귀포시/동	2(3.5)	4(7.0)	17(29.8)	25(43.9)	9(15.8)	57(100.0)
	서귀포시/읍면	0(0.0)	2(7.1)	19(67.9)	6(21.4)	1(3.6)	28(100.0)
전 체		6(1.8)	32(9.7)	155(46.8)	111(33.5)	27(8.2)	331(100.0)



[그림Ⅲ-4] 제주지역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

(4) 제주지역의 복지서비스에 불만족한 가장 큰 이유

제주지역의 복지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대상자에게 불만족한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복지 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 34.2%(13명), 희망서비스 부재 28.9%(11명), 복지서비스의 질 불만족 21.1%(8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복지서비스의 질 불만족 및 희망서비스 부재 각 31.3%(5명), 복지 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 18.8%(3명) 순으로, 여자의 경우 복지 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 45.5%(10명), 희망서비스 부재 27.3%(6명), 복지서비스의 질 불만족 13.6%(3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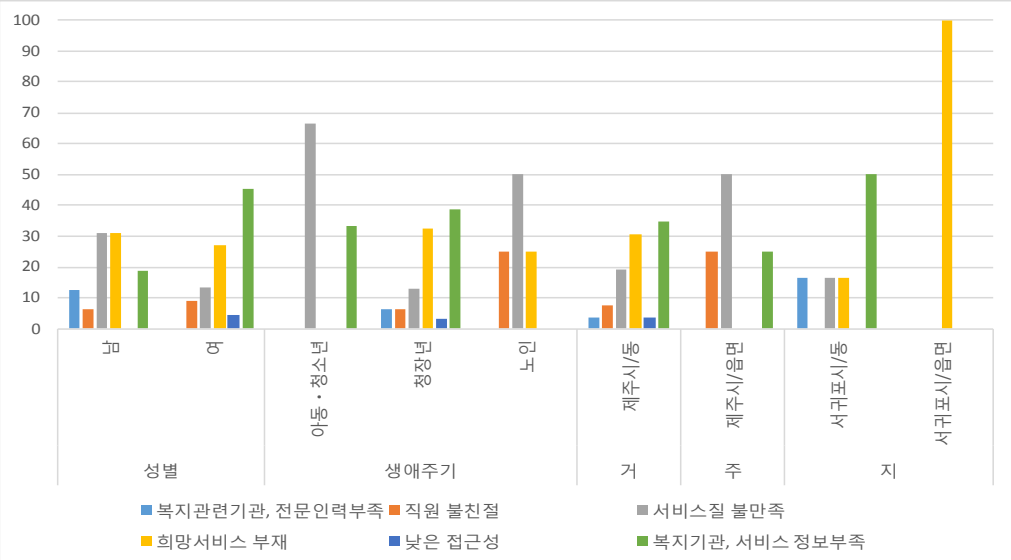
생애주기별로는 아동·청소년이 복지서비스의 질 불만족 66.7%(2명), 복지 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 33.3%(1명) 순으로, 청장년이 복지 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 38.7%(12명), 희망서비스 부재 32.3%(10명), 복지서비스의 질 불만족 12.9%(4명) 순으로, 노인이 복지서비스의 질 불만족 50.0%(2명), 직원 불친절 및 희망서비스 부재 각 25.0%(1명)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제주시 동지역이 복지 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 34.6%(9명), 희망서비스 부재 30.8%(8명), 복지

서비스의 질 불만족 19.2%(5명) 순으로, 제주시 읍면지역이 복지서비스의 질 불만족 50.0% (2명), 직원 불친절 및 복지 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 각 25.0%(1명) 순으로, 서귀포시 동지역이 복지 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 50.0%(3명), 복지관련 기관 및 전문 인력의 부족, 복지서비스의 질 불만족, 희망서비스 부재 각 16.7%(1명) 순으로,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희망서비스 부재 100.0%(2명)로 조사되었다.

<표 Ⅲ-5> 제주지역의 복지서비스에 불만족한 가장 큰 이유

(단위 : 명, %)

구 분		복지관련기관, 전문인력부족	직원 불친절	복지서비스질 불만족	희망 서비스 부재	낮은 접근성	복지기관 및 서비스 정보부족	전체
성별	남	2(12.5)	1(6.3)	5(31.3)	5(31.3)	0(0.0)	3(18.8)	16(100.0)
	여	0(0.0)	2(9.1)	3(13.6)	6(27.3)	1(4.5)	10(45.5)	22(100.0)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0(0.0)	0(0.0)	2(66.7)	0(0.0)	0(0.0)	1(33.3)	3(100.0)
	청장년	2(6.5)	2(6.5)	4(12.9)	10(32.3)	1(3.2)	12(38.7)	31(100.0)
	노인	0(0.0)	1(25.0)	2(50.0)	1(25.0)	0(0.0)	0(0.0)	4(100.0)
거주지	제주시/동	1(3.8)	2(7.7)	5(19.2)	8(30.8)	1(3.8)	9(34.6)	26(100.0)
	제주시/읍면	0(0.0)	1(25.0)	2(50.0)	0(0.0)	0(0.0)	1(25.0)	4(100.0)
	서귀포시/동	1(16.7)	0(0.0)	1(16.7)	1(16.7)	0(0.0)	3(50.0)	6(100.0)
	서귀포시/읍면	0(0.0)	0(0.0)	0(0.0)	2(100.0)	0(0.0)	0(0.0)	2(100.0)
전 체		2(5.3)	3(7.9)	8(21.1)	11(28.9)	1(2.6)	13(34.2)	38(100.0)



[그림Ⅲ-5] 제주지역의 복지서비스에 불만족한 가장 큰 이유

(5) 제주지역의 전반적인 사회보장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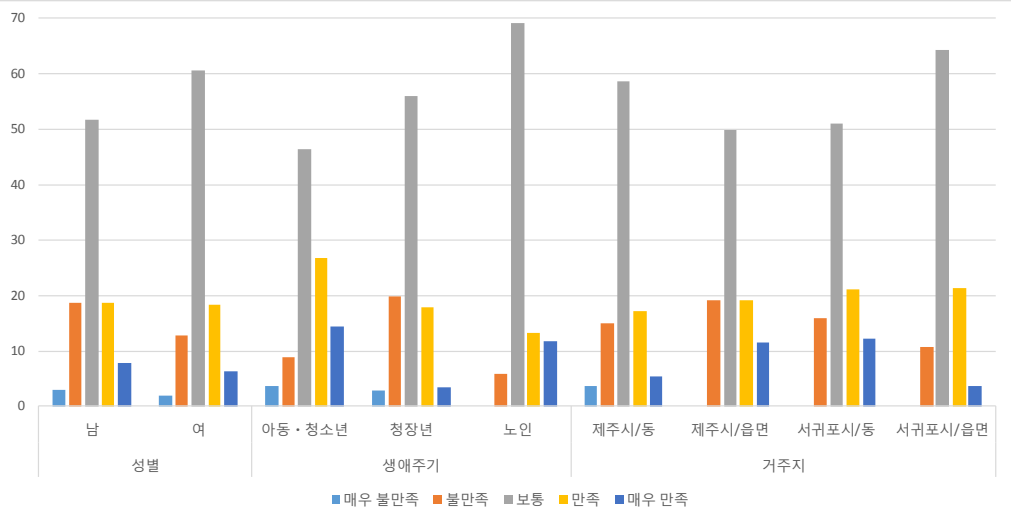
제주지역의 전반적인 사회보장 수준에 대해 보통 57.1%(189명), 만족 18.4%(61명), 불만족 15.1%(50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보통 51.6%(66명), 만족 18.8%(24명), 불만족 18.8% (24명) 순으로, 여자의 경우 보통 60.6%(123명), 만족 18.2%(37명), 불만족 12.8%(26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생애주기별로는 아동·청소년이 보통 46.4%(26명), 만족 26.8%(15명), 매우 만족 14.3%(8명) 순으로, 청장년이 보통 56.0%(116명), 불만족 19.8%(41명), 만족 17.9%(37명) 순으로, 노인이 보통 69.1%(47명), 만족 13.2%(9명), 매우 만족 11.8%(8명)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제주시 동지역이 보통 58.6%(129명), 만족 17.3%(38명), 불만족 15.0%(33명) 순으로, 제주시 읍면지역이 보통 50.0%(13명), 만족과 불만족이 각 19.2%(5명) 순으로, 서귀포시 동지역이 보통 50.9%(29명), 만족 21.1%(12명), 불만족 15.8%(9명) 순으로,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보통 64.3%(18명), 만족 21.4%(6명), 불만족 10.7%(3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Ⅲ-6〉 제주지역의 전반적인 사회보장 수준

(단위 : 명, %)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성별	남	4(3.1)	24(18.8)	66(51.6)	24(18.8)	10(7.8)	128(100.0)
	여	4(2.0)	26(12.8)	123(60.6)	37(18.2)	13(6.4)	203(100.0)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2(3.6)	5(8.9)	26(46.4)	15(26.8)	8(14.3)	56(100.0)
	청장년	6(2.9)	41(19.8)	116(56.0)	37(17.9)	7(3.4)	207(100.0)
	노인	0(0.0)	4(5.9)	47(69.1)	9(13.2)	8(11.8)	68(100.0)
거주지	제주시/동	8(3.6)	33(15.0)	129(58.6)	38(17.3)	12(5.5)	220(100.0)
	제주시/읍면	0(0.0)	5(19.2)	13(50.0)	5(19.2)	3(11.5)	26(100.0)
	서귀포시/동	0(0.0)	9(15.8)	29(50.9)	12(21.1)	7(12.3)	57(100.0)
	서귀포시/읍면	0(0.0)	3(10.7)	18(64.3)	6(21.4)	1(3.6)	28(100.0)
전 체		8(2.4)	50(15.1)	189(57.1)	61(18.4)	23(6.9)	331(100.0)



[그림Ⅲ-6] 제주지역의 전반적인 사회보장 수준

(6) 도내 사회보장 확대 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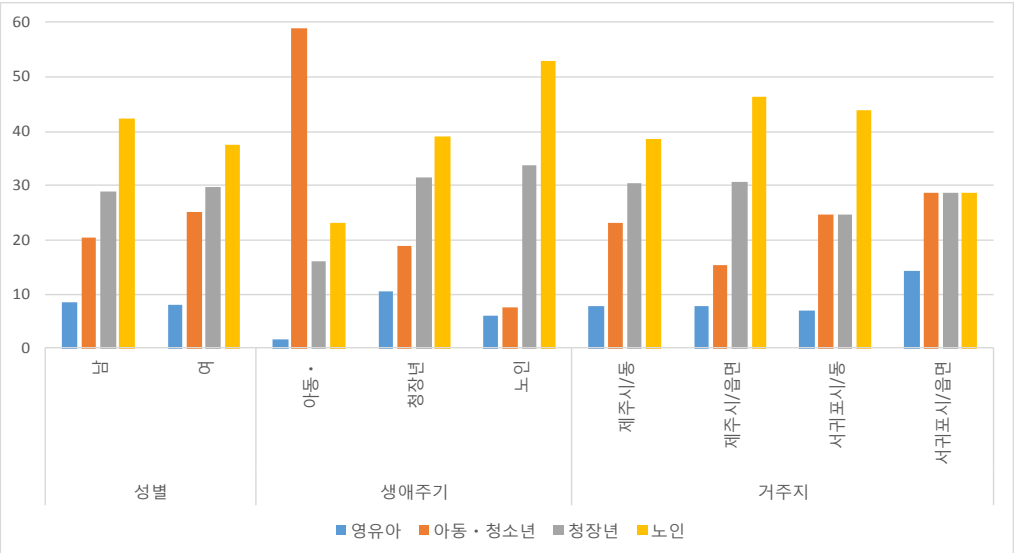
제주도내에서 사회보장 확대 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으로는 노인 39.3%(130명), 청장년 29.3%(97명), 아동·청소년 23.3%(77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노인 42.2%(54명), 청장년 28.9%(37명), 아동·청소년 20.3%(26명) 순으로, 여자의 경우 노인 37.4%(76명), 청장년 29.6%(60명), 아동·청소년 25.1%(51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생애주기별로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아동·청소년 58.9%(33명), 노인 23.2% (13명), 청장년 16.1%(9명) 순으로, 청장년의 경우 노인 39.1%(81명), 청장년 31.4%(65명), 아동·청소년 18.8%(39명) 순으로, 노인의 경우 노인 52.9%(36명), 청장년 33.8%(23명), 아동·청소년 7.4%(5명)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제주시 동지역이 노인 38.6%(85명), 청장년 30.5%(67명), 아동·청소년 23.2%(51명) 순으로, 제주시 읍면지역이 노인 46.2%(12명), 청장년 30.8%(8명), 아동·청소년 15.4%(4명) 순으로, 서귀포시 동지역이 노인 43.9%(25명), 아동·청소년과 청장년 각 24.6%(14명) 순으로,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아동·청소년, 청장년, 노인 각 28.6%(8명)으로 나타났다.

〈표Ⅲ-7〉 도내 사회보장 확대 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

(단위 : 명, %)

구 분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장년	노인	전체
성별	남	11(8.6)	26(20.3)	37(28.9)	54(42.2)	128(100.0)
	여	16(7.9)	51(25.1)	60(29.6)	76(37.4)	203(100.0)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1(1.8)	33(58.9)	9(16.1)	13(23.2)	56(100.0)
	청장년	22(10.6)	39(18.8)	65(31.4)	81(39.1)	207(100.0)
	노인	4(5.9)	5(7.4)	23(33.8)	36(52.9)	68(100.0)
거주지	제주시/동	17(7.7)	51(23.2)	67(30.5)	85(38.6)	220(100.0)
	제주시/읍면	2(7.7)	4(15.4)	8(30.8)	12(46.2)	26(100.0)
	서귀포시/동	4(7.0)	14(24.6)	14(24.6)	25(43.9)	57(100.0)
	서귀포시/읍면	4(14.3)	8(28.6)	8(28.6)	8(28.6)	28(100.0)
전 체		27(8.2)	77(23.3)	97(29.3)	130(39.3)	331(100.0)



[그림Ⅲ-7] 도내 사회보장 확대 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

4) 사회복지 영역별 제주지역의 문제점과 가장 필요한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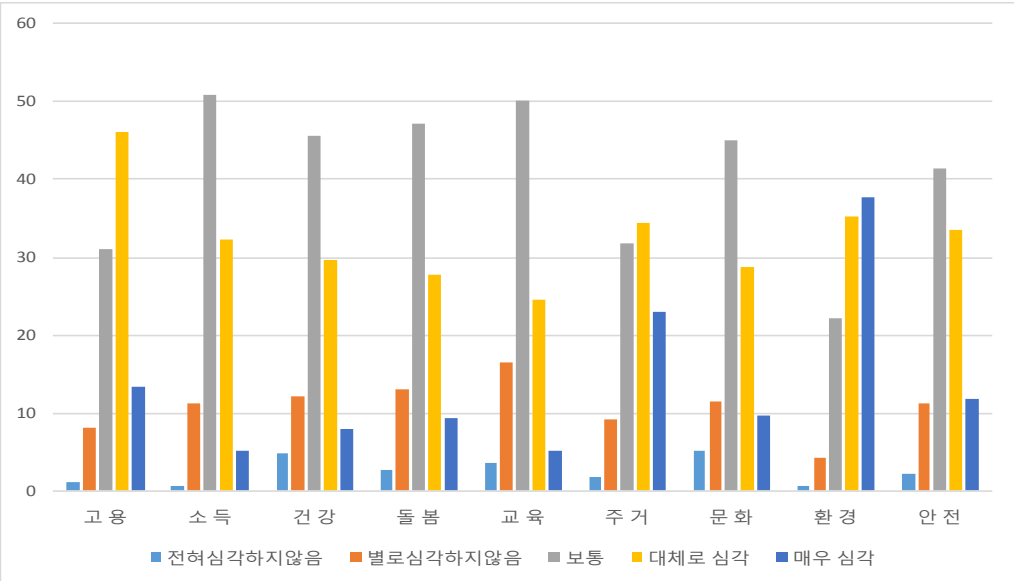
(1) 영역별 제주지역 문제의 심각성

영역별로 제주지역의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고용' 은 대체로 심각 46.2%(153명), '소득' 은 보통 50.8% (168명), '건강' 은 보통 45.6%(151명), '돌봄' 은 보통 47.1%(156명), '교육' 은 보통 50.2%(166명), '주거' 는 대체로 심각 34.4%(114명), '문화' 는 보통 45.0%(149명), '환경' 은 매우 심각 37.8%(125명), '안전' 은 보통 41.4%(137명)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9개의 복지영역 중 소득, 건강, 돌봄, 교육, 문화, 안전은 보통 수준으로, 고용과 주거는 '대체로 심각' 수준으로, 환경은 '매우 심각' 수준으로 나타나 도민들은 제주지역의 고용, 주거, 환경 영역에 있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Ⅲ-8> 제주지역 문제점의 심각성

(단위 : 명, %)

구 분	전혀 심각하지 않음	별로 심각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심각	매우 심각	전 체
고 용	4(1.2)	27(8.2)	103(31.1)	153(46.2)	44(13.3)	331(100.0)
소 득	2(0.6)	37(11.2)	168(50.8)	107(32.3)	17(5.1)	331(100.0)
건 강	16(4.8)	40(12.1)	151(45.6)	98(29.6)	26(7.9)	331(100.0)
돌 봄	9(2.7)	43(13.0)	156(47.1)	92(27.8)	31(9.4)	331(100.0)
교 육	12(3.6)	55(16.6)	166(50.2)	81(24.5)	17(5.1)	331(100.0)
주 거	6(1.8)	30(9.1)	105(31.7)	114(34.4)	76(23.0)	331(100.0)
문 화	17(5.1)	38(11.5)	149(45.0)	95(28.7)	32(9.7)	331(100.0)
환 경	2(0.6)	14(4.2)	73(22.1)	117(35.3)	125(37.8)	331(100.0)
안 전	7(2.1)	37(11.2)	137(41.4)	111(33.5)	39(11.8)	331(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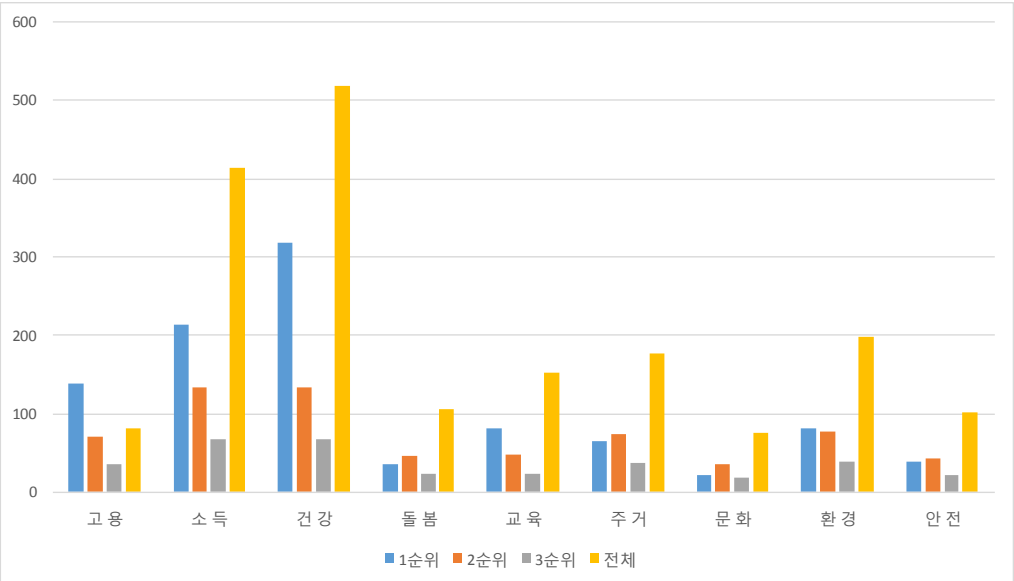
[그림Ⅲ-8] 제주지역 문제점의 심각성

(2) 순위별 본인의 현재 걱정거리

응답자의 현재 걱정거리는 순위별 다중응답분석방법에 의해 1순위에 3%, 2순위에 2%, 3순위 1%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건강이 519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소득이 414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를 중심으로 보면, 제주도민의 현재 걱정거리는 '건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표Ⅲ-9〉 순위별 본인의 현재 걱정거리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고 용	138	70	35	81
소 득	213	134	67	414
건 강	318	134	67	519
돌 봄	36	46	23	105
교 육	81	48	24	153
주 거	66	74	37	177
문 화	21	36	18	75
환 경	81	78	39	198
안 전	39	42	21	102
응 답	331	331	331	
합 계	331	331	331	



[그림Ⅲ-9] 순위별 본인의 현재 걱정거리

(3) 본인의 걱정거리에 대한 해결방법

본인의 걱정거리에 대한 해결방법을 질문한 결과, 스스로 해결 66.4%(219명)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족의 도움 14.2%(47명), 주민복지센터나 시청의 도움(서비스) 6.7%(22명)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스스로 해결 68.8%(88명), 가족의 도움 10.2%(13명), 사회복지 기관 및 단체의 도움 7.8%(10명) 순으로, 여자의 경우 스스로 해결 64.9%(131명), 가족의 도움 16.8%(34명), 주민복지센터나 시청의 도움(서비스) 7.4%(15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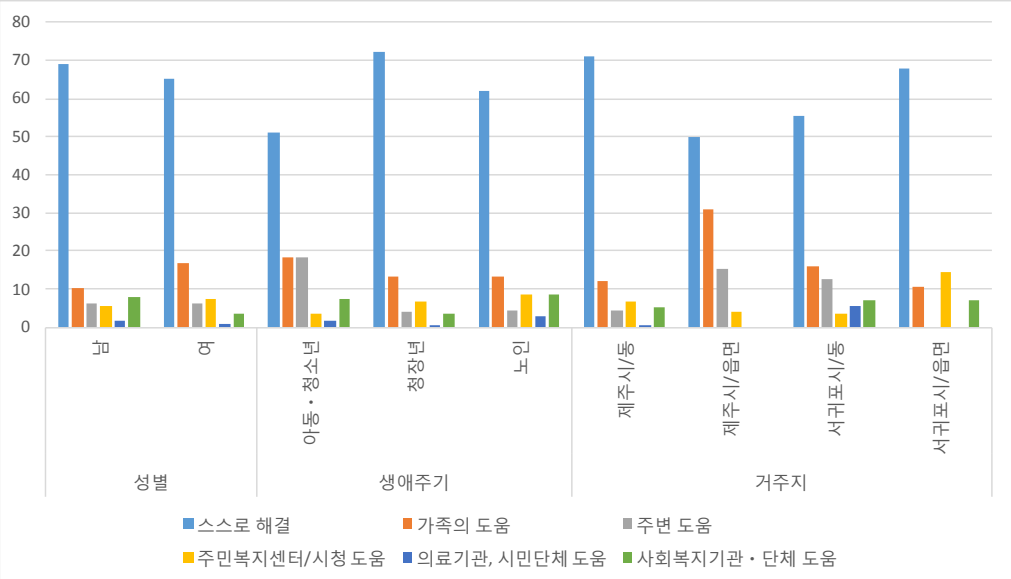
생애주기별로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스스로 해결 50.9%(28명), 가족의 도움과 주변의 도움 각 18.2%(10명) 순으로, 청장년의 경우 스스로 해결 72.0%(149명), 가족의 도움 13.5%(28명), 주민복지센터나 시청의 도움(서비스) 6.8%(14명) 순으로, 노인의 경우 스스로 해결 61.8%(42명), 가족의 도움 13.2%(9명), 주민복지센터나 시청의 도움(서비스), 사회복지 기관 및 단체의 도움 각 8.8%(6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거주지별로는 제주시 동지역이 스스로 해결 70.9%(156명), 가족의 도움 12.3%(27명), 주

민복지센터나 시청의 도움(서비스) 6.8%(15명) 순으로, 제주시 읍면지역이 스스로 해결 50.0%(13명), 가족의 도움 30.8%(8명), 주변 도움 15.4%(4명) 순으로, 서귀포시 동지역이 스스로 해결 55.4%(31명), 가족의 도움 16.1%(9명), 주변도움 12.5%(7명) 순으로,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스스로 해결 67.9%(19명), 주민복지센터나 시청의 도움(서비스) 14.3%(4명), 가족의 도움 10.7%(3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Ⅲ-10〉 걱정거리에 대한 해결방법

(단위 : 명, %)

구 분		스스로 해결	가족의 도움	주변 도움	주민복지센터/시청 도움(서비스)	의료기관, 시민단체 도움	사회복지기관/단체 도움	전체
성별	남	88(68.8)	13(10.2)	8(6.3)	7(5.5)	2(1.6)	10(7.8)	128(100.0)
	여	131(64.9)	34(16.8)	13(6.4)	15(7.4)	2(1.0)	7(3.5)	202(100.0)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28(50.9)	10(18.2)	10(18.2)	2(3.6)	1(1.8)	4(7.3)	55(100.0)
	청장년	149(72.0)	28(13.5)	8(3.9)	14(6.8)	1(0.5)	7(3.4)	207(100.0)
	노인	42(61.8)	9(13.2)	3(4.4)	6(8.8)	2(2.9)	6(8.8)	68(100.0)
거주지	제주시/동	156(70.9)	27(12.3)	10(4.5)	15(6.8)	1(0.5)	11(5.0)	220(100.0)
	제주시/읍면	13(50.0)	8(30.8)	4(15.4)	1(3.8)	0(0.0)	0(0.0)	26(100.0)
	서귀포시/동	31(55.4)	9(16.1)	7(12.5)	2(3.6)	3(5.4)	4(7.1)	56(100.0)
	서귀포시/읍면	19(67.9)	3(10.7)	0(0.0)	4(14.3)	0(0.0)	2(7.1)	28(100.0)
전 체		219(66.4)	47(14.2)	21(6.4)	22(6.7)	4(1.2)	17(5.2)	330(100.0)



[그림Ⅲ-10] 걱정거리에 대한 해결방법

(4) 도움제공 시 이용의향

개인의 문제발생 시에 해결을 위한 도움을 제공할 경우 이용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이용하고 싶다 55.0%(182명), 잘 모르겠다 19.3%(64명), 반드시 이용하겠다 19.0%(63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이용하고 싶다 53.9%(69명), 잘 모르겠다 19.5% (25명), 반드시 이용하겠다 18.8%(24명) 순으로, 여자의 경우 이용하고 싶다 55.7%(113명), 잘 모르겠다, 반드시 이용하겠다 각 19.2%(39명)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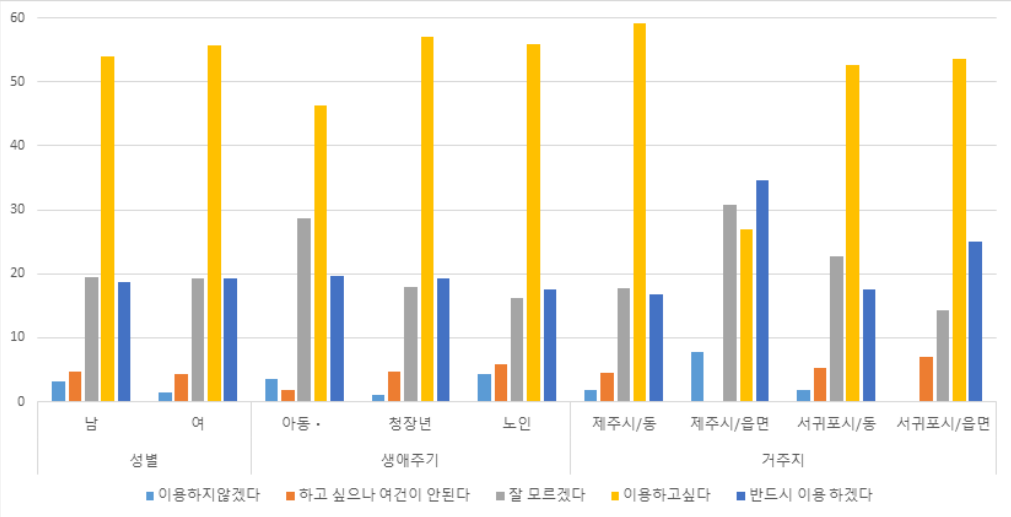
생애주기별로는 아동·청소년이 이용하고 싶다 46.4%(26명), 잘 모르겠다 28.6%(16명), 반드시 이용하겠다 19.6%(11명) 순으로, 청장년이 이용하고 싶다 57.0%(118명), 반드시 이용하겠다 19.3%(40명), 잘 모르겠다 17.9%(37명) 순으로, 노인이 이용하고 싶다 55.9%(38명), 반드시 이용하겠다 17.6%(12명), 잘 모르겠다 16.2%(11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거주지별로는 제주시 동지역이 이용하고 싶다 59.1%(130명), 잘 모르겠다 17.7%(39명), 반드시 이용하겠다 16.8%(37명) 순으로, 제주시 읍면지역이 반드시

이용하겠다 34.6%(9명), 잘 모르겠다 30.8%(8명), 이용하고 싶다 26.9%(7명) 순으로, 서귀포시 동지역이 이용하고 싶다 52.6%(30명), 잘 모르겠다 22.8%(13명), 반드시 이용하겠다 17.5%(10명) 순으로,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이용하고 싶다 53.6% (15명), 반드시 이용하겠다 25.0%(7명), 잘 모르겠다 14.3%(4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Ⅲ-11> 도움제공 시 이용의향

(단위 : 명, %)

구 분		이용하지 않겠다	하고 싶으나 여건 안된다	잘 모르겠다	이용하고 싶다	반드시 이용 하겠다	전 체
성별	남	4(3.1)	6(4.7)	25(19.5)	69(53.9)	24(18.8)	128(100.0)
	여	3(1.5)	9(4.4)	39(19.2)	113(55.7)	39(19.2)	203(100.0)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2(3.6)	1(1.8)	16(28.6)	26(46.4)	11(19.6)	56(100.0)
	청장년	2(1.0)	10(4.8)	37(17.9)	118(57.0)	40(19.3)	207(100.0)
	노인	3(4.4)	4(5.9)	11(16.2)	38(55.9)	12(17.6)	68(100.0)
거주지	제주시/동	4(1.8)	10(4.5)	39(17.7)	130(59.1)	37(16.8)	220(100.0)
	제주시/읍면	2(7.7)	0(0.0)	8(30.8)	7(26.9)	9(34.6)	26(100.0)
	서귀포시/동	1(1.8)	3(5.3)	13(22.8)	30(52.6)	10(17.5)	57(100.0)
	서귀포시/읍면	0(0.0)	2(7.1)	4(14.3)	15(53.6)	7(25.0)	28(100.0)
전 체		7(2.1)	15(4.5)	64(19.3)	182(55.0)	63(19.0)	331(100.0)



[그림Ⅲ-11] 도움제공 시 이용의향

(5) 도움 제공 시 이용할 의향이 없는 가장 큰 이유

복지와 관련한 문제 발생 시 도움이 제공하더라도 이용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에게 그에 대한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어떤 기관이 있는지 모름 49.4%(42명), 스스로 해결 가능함 14.1%(12명), 신뢰할 만한 기관 없음, 도움을 받아도 별로 나아지지 않음 각 10.6%(9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어떤 기관이 있는지 모름 52.9%(18명), 신뢰할 만한 기관 없음, 스스로 해결 가능함 각 11.8%(4명) 순으로, 여자의 경우 어떤 기관이 있는지 모름 47.1%(24명), 스스로 해결 가능함 15.7%(8명), 도움을 받아도 별로 나아지지 않음 13.7%(7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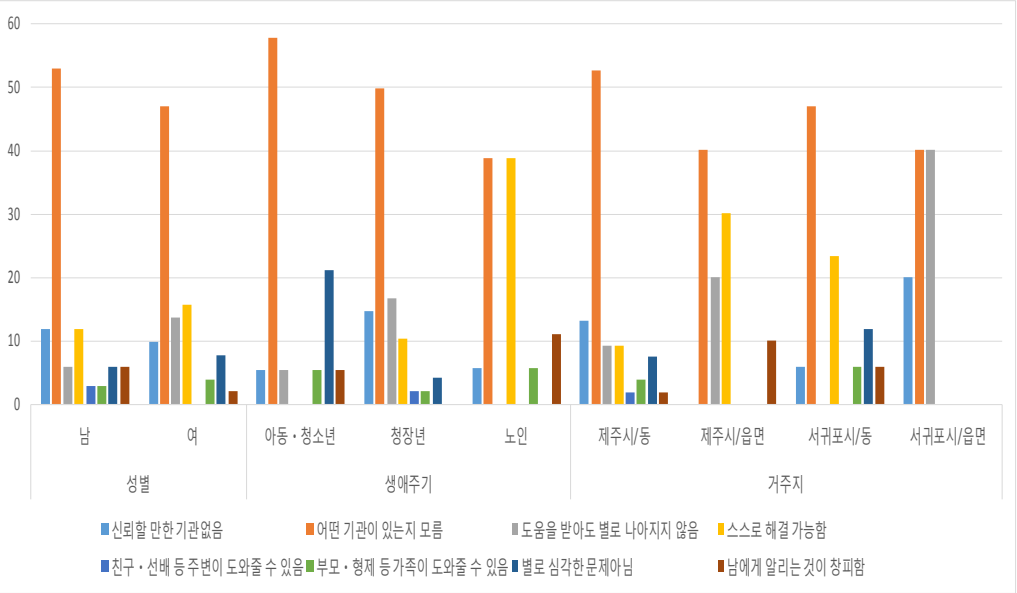
생애주기별로는 아동·청소년이 어떤 기관이 있는지 모름 57.9%(11명), 별로 심각한 문제아님 21.1%(4명) 순으로, 청장년은 어떤 기관이 있는지 모름 50.0%(24명), 도움을 받아도 별로 나아지지 않음 각 16.7%(8명), 신뢰할 만한 기관 없음 14.6%(7명) 순으로, 노인이 어떤 기관이 있는지 모름, 스스로 해결 가능함 각 38.9%(7명), 남에게 알리는 것이 창피함 11.1%(2명)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제주시 동지역

이 어떤 기관이 있는지 모름 52.8%(28명), 신뢰할 만한 기관 없음 13.2%(7명), 도움을 받아도 별로 나아지지 않음, 스스로 해결 가능함 각 9.4%(5명) 순으로, 제주시 읍면지역이 어떤 기관이 있는지 모름 40.0%(4명), 스스로 해결 가능함 30.0%(3명), 도움을 받아도 별로 나아지지 않음 20.0%(2명) 순으로, 서귀포시 동지역이 어떤 기관이 있는지 모름 47.1%(8명), 스스로 해결 가능함 23.5%(4명), 별로 심각한 문제아님 11.8%(2명),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어떤 기관이 있는지 모름, 도움을 받아도 별로 나아지지 않음 각 40.0%(2명), 신뢰할 만한 기관 없음 20.0%(1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Ⅲ-12> 도움 제공 시 이용할 의향이 없는 가장 큰 이유

(단위 : 명, %)

구 분		신뢰할 만한 기관 없음	어떤 기관이 있는지 모름	도움을 받아도 별로 나아지지 않음	스스로 해결 가능함	친구/선배 등 주변이 도와줄 수 있음	부모/형제 등 가족이 도와줄 수 있음	별로 심각한 문제아님	남에게 알리는 것이 창피함	전 체
성별	남	4(11.8)	18(52.9)	2(5.9)	4(11.8)	1(2.9)	1(2.9)	2(5.9)	2(5.9)	34(100.0)
	여	5(9.8)	24(47.1)	7(13.7)	8(15.7)	0(0.0)	2(3.9)	4(7.8)	1(2.0)	51(100.0)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1(5.3)	11(57.9)	1(5.3)	0(0.0)	0(0.0)	1(5.3)	4(21.1)	1(5.3)	19(100.0)
	청장년	7(14.6)	24(50.0)	8(16.7)	5(10.4)	1(2.1)	1(2.1)	2(4.2)	0(0.0)	48(100.0)
	노인	1(5.6)	7(38.9)	0(0.0)	7(38.9)	0(0.0)	1(5.6)	0(0.0)	2(11.1)	18(100.0)
거주지	제주시/동	7(13.2)	28(52.8)	5(9.4)	5(9.4)	1(1.9)	2(3.8)	4(7.5)	1(1.9)	53(100.0)
	제주시/읍면	0(0.0)	4(40.0)	2(20.0)	3(30.0)	0(0.0)	0(0.0)	0(0.0)	1(10.0)	10(100.0)
	서귀포시/동	1(5.9)	8(47.1)	0(0.0)	4(23.5)	0(0.0)	1(5.9)	2(11.8)	1(5.9)	17(100.0)
	서귀포시/읍면	1(20.0)	2(40.0)	2(40.0)	0(0.0)	0(0.0)	0(0.0)	0(0.0)	0(0.0)	5(100.0)
전 체		9(10.6)	42(49.4)	9(10.6)	12(14.1)	1(1.2)	3(3.5)	6(7.1)	3(3.5)	85(100.0)



[그림Ⅲ-12] 도움 제공 시 이용할 의향이 없는 가장 큰 이유

(6) 제주지역의 고용 관련 가장 필요한 정책

제주지역의 고용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자리 알선, 직업교육 등 실직 · 은퇴 대비지원 강화 29.6%(98명), 일과 일상생활의 균형 있는 근로문화 확산 17.5%(58명), 성별, 인종, 연령, 지역 등에 따른 차별 해소, 임금체계 개선 각 11.8%(39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일자리 알선, 직업교육 등 실직 · 은퇴 대비지원 강화 29.7%(38명), 임금체계 개선 14.8%(19명), 일과 일상생활의 균형 있는 근로문화 확산 13.3%(17명) 순으로, 여자의 경우 일자리 알선, 직업교육 등 실직 · 은퇴 대비지원 강화 29.6%(60명), 일과 일상생활의 균형 있는 근로문화 확산 20.2%(41명), 성별, 인종, 연령, 지역 등에 따른 차별 해소 12.3%(25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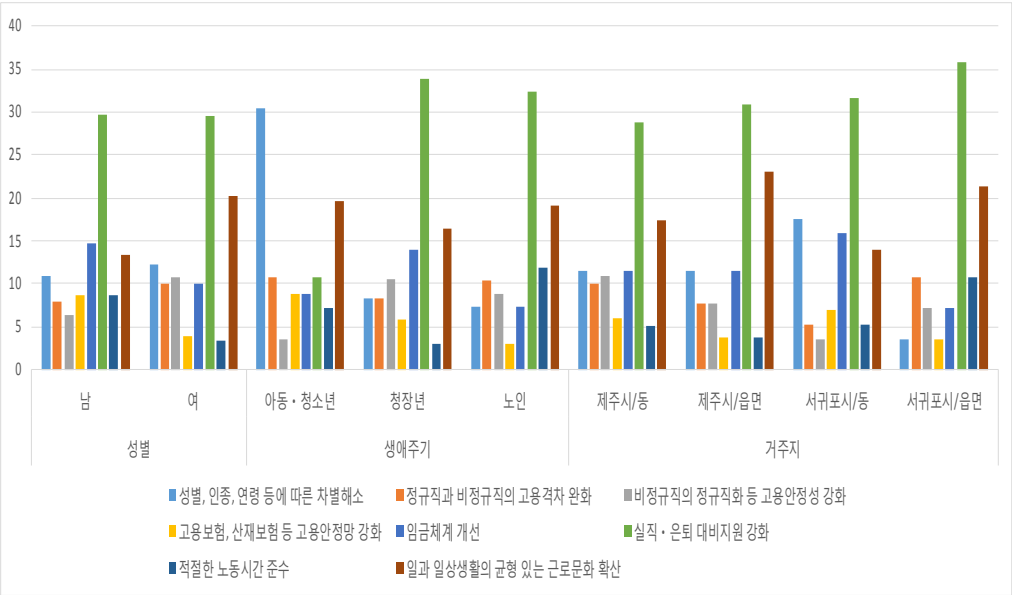
생애주기별로는 아동·청소년이 성별, 인종, 연령, 지역 등에 따른 차별 해소 30.4%(17명), 일과 일상생활의 균형 있는 근로문화 확산 19.6%(11명), 정규직과 비정

규직의 고용격차 완화, 실직 · 은퇴 대비지원 강화 각 10.7%(6명) 순으로, 청장년이 일자리 알선, 직업교육 등 실직 · 은퇴 대비지원 강화 33.8%(70명), 일과 일상생활의 균형있는 근로문화 확산 16.4%(34명), 임금체계 개선 14.0%(29명) 순으로, 노인이 일자리 알선, 직업교육 등 실직 · 은퇴 대비지원 강화 32.4%(22명), 일과 일상생활의 균형 있는 근로문화 확산 19.1%(13명), 적절한 노동시간 준수 11.8%(8명)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제주시 동지역이 일자리 알선, 직업교육 등 실직 · 은퇴 대비지원 강화 28.8%(62명), 일과 일상생활의 균형있는 근로문화 확산 17.3%(38명), 성별, 인종, 연령, 지역 등에 따른 차별 해소, 임금체계 개선 각 11.4%(25명) 순으로, 제주시 읍면지역이 일자리 알선, 직업교육 등 실직 · 은퇴 대비지원 강화 30.8%(8명), 일과 일상생활의 균형있는 근로문화 확산 23.1%(6명), 성별, 인종, 연령, 지역 등에 따른 차별 해소, 임금체계 개선 각 11.5%(3명) 순으로, 서귀포시 동지역이 일자리 알선, 직업교육 등 실직 · 은퇴 대비지원 강화 31.6%(18명), 성별, 인종, 연령, 지역 등에 따른 차별 해소 17.5%(10명), 임금체계 개선 각 15.8%(9명) 순으로,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일자리 알선, 직업교육 등 실직 · 은퇴 대비지원 강화 35.7%(10명), 일과 일상생활의 균형있는 근로문화 확산 21.4%(6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격차 완화, 적절한 노동시간 준수 각 10.7%(3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Ⅲ-13> 제주지역의 고용관련 가장 필요한 정책

(단위 : 명, %)

구 분		성별, 인종, 연령 등에 따른 차별 해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격차 완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고용 안정성 강화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고용 안정망 강화	임금체계 개선	실직/은퇴 대비 지원 강화	적절한 노동시간 준수	일과 일상생활의 균형 있는 근로문화 확산	전 체
성별	남	14(10.9)	10(7.8)	8(6.3)	11(8.6)	19(14.8)	38(29.7)	11(8.6)	17(13.3)	128(100.0)
	여	25(12.3)	20(9.9)	22(10.8)	8(3.9)	20(9.9)	60(29.6)	3(3.4)	41(20.2)	203(100.0)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17(30.4)	6(10.7)	2(3.6)	5(8.9)	5(8.9)	6(10.7)	4(7.1)	11(19.6)	56(100.0)
	청장년	17(8.2)	17(8.2)	22(10.6)	12(5.8)	29(14.0)	70(33.8)	6(2.9)	34(16.4)	207(100.0)
	노인	5(7.4)	7(10.3)	6(8.8)	2(2.9)	5(7.4)	22(32.4)	8(11.8)	13(19.1)	68(100.0)
거주지	제주시/동	25(11.4)	22(10.0)	24(10.9)	13(5.9)	25(11.4)	62(28.8)	11(5.0)	38(17.3)	220(100.0)
	제주시/읍면	3(11.5)	2(7.7)	2(7.7)	1(3.8)	3(11.5)	8(30.8)	1(3.8)	6(23.1)	26(100.0)
	서귀포시/동	10(17.5)	3(5.3)	2(3.5)	4(7.0)	9(15.8)	18(31.6)	5(5.3)	8(14.0)	57(100.0)
	서귀포시/읍면	1(3.6)	3(10.7)	2(7.1)	1(3.6)	2(7.1)	10(35.7)	3(10.7)	6(21.4)	28(100.0)
전 체		39(11.8)	30(9.1)	30(9.1)	19(5.7)	39(11.8)	98(29.6)	18(5.4)	58(17.5)	331(100.0)



[그림Ⅲ-13] 제주지역의 고용관련 가장 필요한 정책

(7) 제주지역의 소득 관련 가장 필요한 정책

제주지역의 소득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자리를 통한 탈 빈곤 지원강화 44.1%(146명), 아동수당, 기본소득 등의 확대를 통한 가족소득보장 강화 19.6%(65명),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확대를 통한 노인 소득보장 강화 15.4%(51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일자리를 통한 탈 빈곤 지원강화 46.9%(60명), 아동수당, 기본소득 등의 확대를 통한 가족소득보장 강화 21.1%(27명),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확대를 통한 노인 소득보장 강화 12.5%(16명) 순으로, 여자의 경우 일자리를 통한 탈 빈곤 지원강화 42.4% (86명), 아동수당, 기본소득 등의 확대를 통한 가족소득보장 강화 18.7%(38명),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확대를 통한 노인 소득보장 강화 17.2%(35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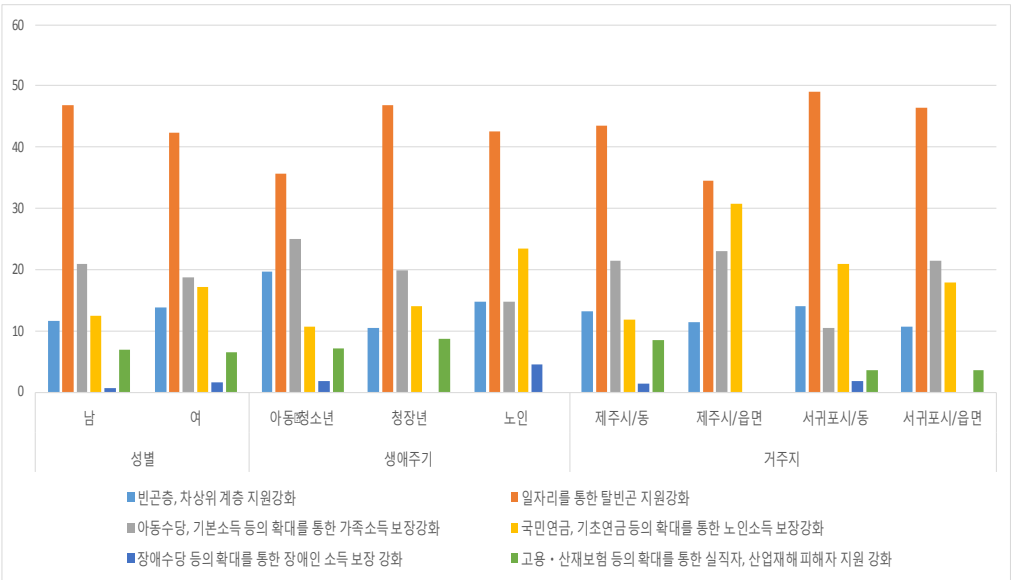
생애주기별로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일자리를 통한 탈 빈곤 지원강화 35.7%(20

명), 아동수당, 기본소득 등의 확대를 통한 가족소득보장 강화 25.0%(14명), 빈곤층, 차상위 계층 지원강화 19.6%(11명) 순으로, 청장년의 경우 일자리를 통한 탈 빈곤 지원강화 46.9%(97명), 아동수당, 기본소득 등의 확대를 통한 가족소득보장 강화 19.8%(41명),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확대를 통한 노인 소득보장 강화 14.0%(29명) 순으로, 노인의 경우 일자리를 통한 탈 빈곤 지원강화 42.6%(29명),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확대를 통한 노인 소득보장 강화 23.5%(16명), 빈곤층, 차상위 계층 지원강화, 아동수당, 기본소득 등의 확대를 통한 가족소득보장 강화 각 14.7%(10명)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제주시 동지역이 일자리를 통한 탈 빈곤 지원강화 43.6%(96명), 아동수당, 기본소득 등의 확대를 통한 가족소득보장 강화 21.4%(47명), 빈곤층, 차상위 계층 지원강화 13.2%(29명) 순으로, 제주시 읍면지역이 일자리를 통한 탈 빈곤 지원강화 34.6%(9명),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확대를 통항 노인 소득보장 강화 30.8%(8명), 아동수당, 기본소득 등의 확대를 통한 가족소득보장 강화 23.1%(6명) 순으로, 서귀포시 동지역이 일자리를 통한 탈 빈곤 지원강화 49.1%(28명),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확대를 통한 노인 소득보장 강화 21.1%(12명), 빈곤층, 차상위 계층 지원강화 14.0%(8명) 순으로,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일자리를 통한 탈 빈곤 지원강화 46.4%(13명), 아동수당, 기본소득 등의 확대를 통한 가족소득보장 강화 21.4%(6명),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확대를 통한 노인 소득보장 강화 17.9%(5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Ⅲ-14> 제주지역의 소득관련 가장 필요한 정책

(단위 : 명, %)

구 분		빈곤층, 차상위 계층 지원강화	일자리를 통한 탈빈곤 지원강화	아동수당, 기본소득 등의 확대를 통한 가족소득 보장 강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확대를 통한 노인소득 보장 강화	장애수당 등의 확대를 통한 장애인 소득 보장 강화	고용 · 산재 보험 등의 확대를 통한 실직자, 산업재해 피해자 지원 강화	전 체
성별	남	15(11.7)	60(46.9)	27(21.1)	16(12.5)	1(0.8)	9(7.0)	128(100.0)
	여	28(13.8)	86(42.4)	38(18.7)	35(17.2)	3(1.5)	13(6.4)	203(100.0)
생애주기	아동 · 청소년	11(19.6)	20(35.7)	14(25.0)	6(10.7)	1(1.8)	4(7.1)	56(100.0)
	청장년	22(10.6)	97(46.9)	41(19.8)	29(14.0)	0(0.0)	18(8.7)	207(100.0)
	노인	10(14.7)	29(42.6)	10(14.7)	16(23.5)	3(4.4)	0(0.0)	68(100.0)
거주지	제주시/동	29(13.2)	96(43.6)	47(21.4)	26(11.8)	3(1.4)	19(8.6)	220(100.0)
	제주시/읍면	3(11.5)	9(34.6)	6(23.1)	8(30.8)	0(0.0)	0(0.0)	26(100.0)
	서귀포시/동	8(14.0)	28(49.1)	6(10.5)	12(21.1)	1(1.8)	2(3.5)	57(100.0)
	서귀포시/읍면	3(10.7)	13(46.4)	6(21.4)	5(17.9)	0(0.0)	1(3.6)	28(100.0)
전 체		43(13.0)	146(44.1)	65(19.6)	51(15.4)	4(1.2)	22(6.6)	331(100.0)



[그림Ⅲ-14] 제주지역의 소득관련 가장 필요한 정책

(8) 제주지역의 보건 의료(건강) 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

제주지역의 보건 의료(건강) 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 접근성 강화 28.1%(93명), 의료비 부담 완화 24.5%(81명),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 17.5%(58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 접근성 강화 32.0%(41명), 의료비 부담 완화 24.2%(31명),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 21.1%(27명) 순으로, 여자의 경우 의료비 부담 완화 24.6%(20명),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 접근성 강화 22.7%(52명),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 15.3%(31명) 순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별로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의료비 부담 완화 30.4%(17명),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 접근성 강화 21.4%(12명), 국민건강 증진 및 만성질환예방 사업 확대 14.3%(8명) 순으로, 청장년의 경우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 접근성 강화 31.9%(6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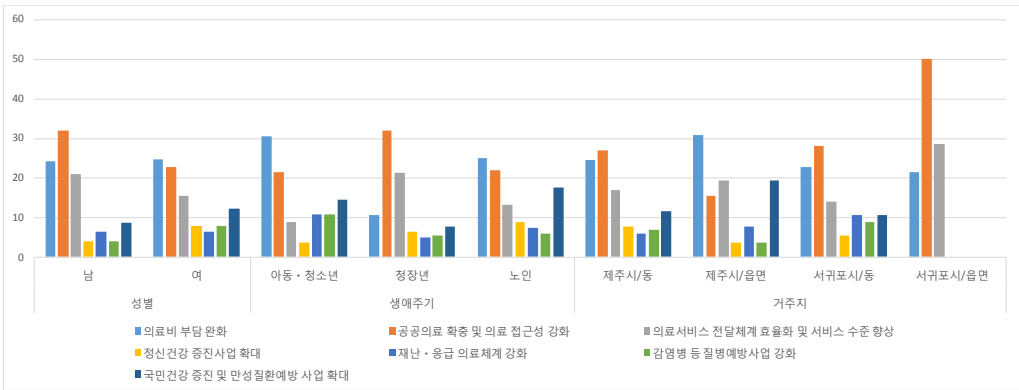
의료비 부담 완화 22.7%(47명),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 21.3%(44명) 순으로, 노인의 경우 의료비 부담 완화 25.0%(17명),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 접근성 강화 22.1%(15명), 국민건강 증진 및 만성질환예방 사업 확대 17.6%(12명)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제주시 동지역이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 접근성 강화 26.8%(59명), 의료비 부담 완화 24.5%(54명),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 16.8%(37명) 순으로, 제주시 읍면지역이 의료비 부담 완화 30.8%(8명),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 국민건강 증진 및 만성질환예방 사업 확대 각 19.2%(5명) 순으로, 서귀포시 동지역이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 접근성 강화 28.1%(16명), 의료비 부담 완화 22.8%(13명),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 14.0%(8명) 순으로,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 접근성 강화 50.0%(14명),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 28.6%(8명), 의료비 부담 완화 21.4%(6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Ⅲ-15> 제주지역의 보건 의료(건강) 서비스 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

(단위 : 명, %)

구 분		의료비 부담 완화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 접근성 강화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정신건강 증진사업 확대	재난/응급 의료체계 강화	감염병 등 질병예방 사업 강화	국민건강 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 사업 확대	전 체
성별	남	31(24.2)	41(32.0)	27(21.1)	5(3.9)	8(6.3)	5(3.9)	11(8.6)	128(100.0)
	여	20(24.6)	52(22.7)	31(15.3)	16(7.9)	13(6.4)	16(7.9)	25(12.3)	203(100.0)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17(30.4)	12(21.4)	5(8.9)	2(3.6)	6(10.7)	6(10.7)	8(14.3)	56(100.0)
	청장년	47(10.6)	66(31.9)	44(21.3)	13(6.3)	10(4.8)	11(5.3)	16(7.7)	207(100.0)
	노인	17(25.0)	15(22.1)	9(13.2)	6(8.8)	5(7.4)	4(5.9)	12(17.6)	68(100.0)

구 분		의료비 부담 완화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 접근성 강화	의료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정신 건강 증진사업 확대	재난/응급 의료체계 강화	감염병 등 질병예방 사업 강화	국민건강 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 사업 확대	전 체
거주지	제주시/동	54(24.5)	59(26.8)	37(16.8)	17(7.7)	13(5.9)	15(6.8)	25(11.4)	220(100.0)
	제주시/읍면	8(30.8)	4(15.4)	5(19.2)	1(3.8)	2(7.7)	1(3.8)	5(19.2)	26(100.0)
	서귀포시/동	13(22.8)	16(28.1)	8(14.0)	3(5.3)	6(10.5)	5(8.8)	6(10.5)	57(100.0)
	서귀포시/읍면	6(21.4)	14(50.0)	8(28.6)	0(0.0)	0(0.0)	0(0.0)	0(0.0)	28(100.0)
전 체		81(24.5)	93(28.1)	58(17.5)	21(6.3)	21(6.3)	21(6.3)	36(10.9)	331(100.0)



[그림Ⅲ-15] 제주지역의 보건 의료(건강) 서비스 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

(9) 제주지역의 돌봄 관련 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

제주지역의 돌봄 관련 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고용안정을 통한 돌봄 인력 확충 24.2%(80명), 방과 후 학교 등 가족의 아동 돌봄 부담 완화 20.2%(67명), 노인,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19.6%(65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고용안정을 통한 돌봄 인력 확충 26.6%(34명), 한부모, 다문화, 저소득층 취약가구 양육지원 강화 21.9%(28명), 방과 후 학교 등 가족의 아동 돌봄 부담 완화 20.3%(26명) 순으로, 여자의 경우 노인,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23.2%(47명), 고용안정을 통한 돌봄 인력 확충 22.7%(46명), 방과 후 학교 등 가족의 아동 돌봄 부담 완화 20.2%(41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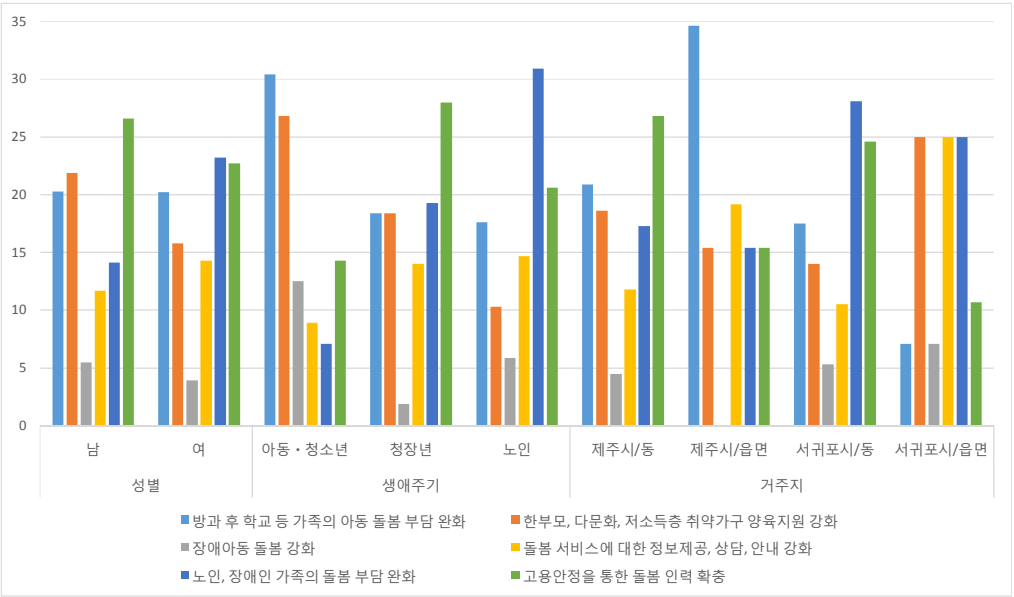
생애주기별로는 아동·청소년이 방과 후 학교 등 가족의 아동 돌봄 부담 완화 30.4%(17명), 한부모, 다문화, 저소득층 취약가구 양육지원 강화 26.8%(15명), 고용안정을 통한 돌봄 인력 확충 14.3%(8명) 순으로, 청장년이 고용안정을 통한 돌봄 인력 확충 28.0%(58명), 노인,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19.3%(40명), 방과 후 학교 등 가족의 아동 돌봄 부담 완화, 한부모, 다문화, 저소득층 취약가구 양육지원 강화 각 18.4%(38명) 순으로, 노인이 노인,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30.9%(21명), 고용안정을 통한 돌봄 인력 확충 20.6%(14명), 방과 후 학교 등 가족의 아동 돌봄 부담 완화 17.6%(12명)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제주시 동지역이 고용안정을 통한 돌봄 인력 확충 26.8%(59명), 방과 후 학교 등 가족의 아동 돌봄 부담 완화 20.9%(46명), 한부모, 다문화, 저소득층 취약가구 양육지원 강화 18.6%(41명) 순으로, 제주시 읍면지역이 방과 후 학교 등 가족의 아동 돌봄 부담 완화 34.6%(9명),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안내 강화 19.2%(5명), 한부모, 다문화, 저소득층 취약가구 양육지원 강화, 노인,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고용안정을 통한 돌봄 인력 확충 각 15.4%(4명) 순으로, 서귀포시 동지역이 노인,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28.1%(16명), 고용안정을 통한 돌봄 인력 확충 24.6%(14명), 방과 후 학교 등 가족의 아동 돌봄 부담 완화 17.5%(10명) 순으로,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한부모, 다문화, 저소득층 취약가구 양육지원 강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안내 강화, 노인,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각

25.0%(7명)로 조사되었다.

<표Ⅲ-16> 제주지역의 돌봄 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

(단위 : 명, %)

구 분		방과 후 학교 등 가족의 아동 돌봄 부담 완화	한부모, 다문화, 저소득층 취약가구 양육지원 강화	장애아동 돌봄 강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안내 강화	노인,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고용안정을 통한 돌봄 인력 확충	전 체
성별	남	26(20.3)	28(21.9)	7(5.5)	15(11.7)	18(14.1)	34(26.6)	128(100.0)
	여	41(20.2)	32(15.8)	8(3.9)	29(14.3)	47(23.2)	46(22.7)	203(100.0)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17(30.4)	15(26.8)	7(12.5)	5(8.9)	4(7.1)	8(14.3)	56(100.0)
	청장년	38(18.4)	38(18.4)	4(1.9)	29(14.0)	40(19.3)	58(28.0)	207(100.0)
	노인	12(17.6)	7(10.3)	4(5.9)	10(14.7)	21(30.9)	14(20.6)	68(100.0)
거주지	제주시/동	46(20.9)	41(18.6)	10(4.5)	26(11.8)	38(17.3)	59(26.8)	220(100.0)
	제주시/읍면	9(34.6)	4(15.4)	0(0.0)	5(19.2)	4(15.4)	4(15.4)	26(100.0)
	서귀포시/동	10(17.5)	8(14.0)	3(5.3)	6(10.5)	16(28.1)	14(24.6)	57(100.0)
	서귀포시/읍면	2(7.1)	7(25.0)	2(7.1)	7(25.0)	7(25.0)	3(10.7)	28(100.0)
전 체		67(20.2)	60(18.1)	15(4.5)	44(13.3)	65(19.6)	80(24.2)	331(100.0)



[그림Ⅲ-16] 제주지역의 돌봄 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

(10) 제주지역의 교육 관련 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

제주지역의 교육 관련 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교육비 부담 완화 28.7%(95명), 무상교육 확대 18.4%(61명), 평생 · 직업교육 혁신 17.2%(57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사교육비 부담 완화 28.9%(37명), 무상교육 확대 20.3%(26명), 평생 · 직업교육 혁신 15.6%(20명) 순으로, 여자의 경우 사교육비 부담 완화 28.6%(58명), 평생 · 직업교육 혁신 18.2%(37명), 무상교육 확대 17.2%(35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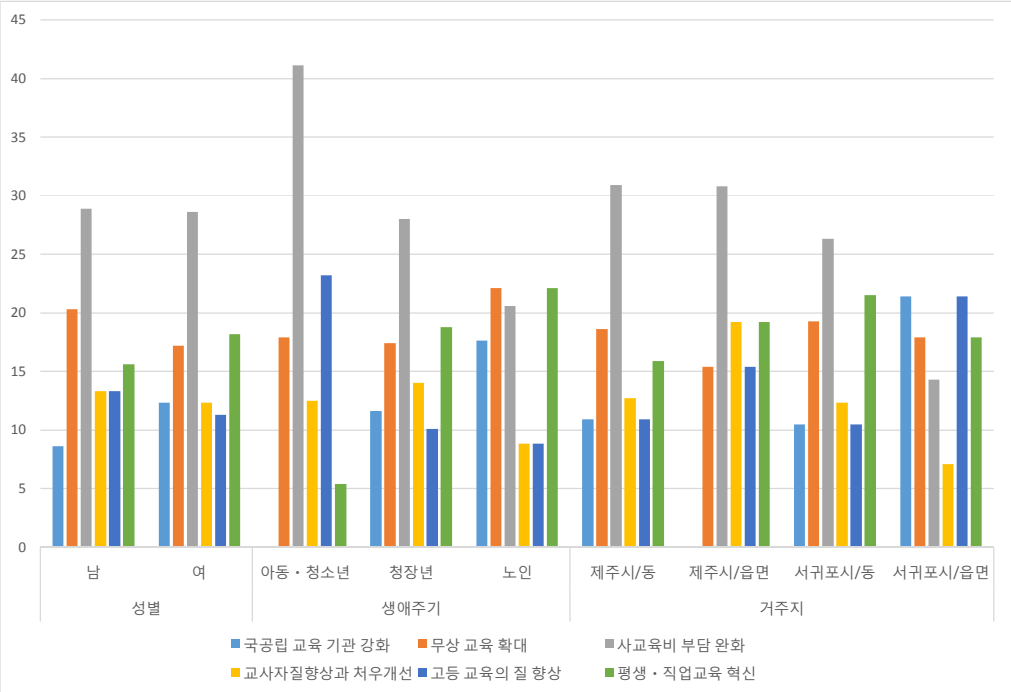
생애주기별로는 아동·청소년이 사교육비 부담 완화 41.1%(23명), 고등교육의 질 향상 23.2%(13명), 무상교육 확대 17.9%(10명) 순으로, 청장년이 사교육비 부담 완화 28.0%(58명), 평생 · 직업교육 혁신 18.8%(39명), 무상교육 확대 17.4%(36명) 순으로, 노인이 무상교육 확대, 평생 · 직업교육 혁신 각 22.1%(15명), 사교육비 부담완화 20.6%(14명)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제주시 동지역이 사교육비 부담 완화

30.9%(68명), 무상교육 확대 18.6%(41명), 평생 · 직업교육 혁신 15.9%(35명) 순으로, 제주시 읍면지역이 사교육비 부담 완화 30.8%(8명), 교사자질향상과 처우개선, 평생 · 직업교육 혁신 각 19.2%(5명) 순으로, 서귀포시 동지역이 사교육비 부담완화 26.3%(15명), 평생 · 직업교육 혁신 21.5%(12명), 무상교육 확대 19.3%(11명) 순으로,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국공립 교육기관 강화, 고등교육의 질 향상 각 21.4%(6명), 무상교육 확대, 평생 · 직업교육 혁신 각 17.9%(5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17> 제주지역의 교육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

(단위 : 명, %)

구 분		국공립 교육 기관 강화	무상 교육 확대	사교육비 부담 완화	교사자질 향상과 처우개선	고등 교육의 질 향상	평생 · 직업교육 혁신	전 체
성별	남	11(8.6)	26(20.3)	37(28.9)	17(13.3)	17(13.3)	20(15.6)	128(100.0)
	여	25(12.3)	35(17.2)	58(28.6)	25(12.3)	23(11.3)	37(18.2)	203(100.0)
생애주기	아동 · 청소년	0(0.0)	10(17.9)	23(41.1)	7(12.5)	13(23.2)	3(5.4)	56(100.0)
	청장년	24(11.6)	36(17.4)	58(28.0)	29(14.0)	21(10.1)	39(18.8)	207(100.0)
	노인	12(17.6)	15(22.1)	14(20.6)	6(8.8)	6(8.8)	15(22.1)	68(100.0)
거주지	제주시/동	24(10.9)	41(18.6)	68(30.9)	28(12.7)	24(10.9)	35(15.9)	220(100.0)
	제주시/읍면	0(0.0)	4(15.4)	8(30.8)	5(19.2)	4(15.4)	5(19.2)	26(100.0)
	서귀포시/동	6(10.5)	11(19.3)	15(26.3)	7(12.3)	6(10.5)	12(21.5)	57(100.0)
	서귀포시/읍면	6(21.4)	5(17.9)	4(14.3)	2(7.1)	6(21.4)	5(17.9)	28(100.0)
전 체		36(10.9)	61(18.4)	95(28.7)	42(12.7)	40(12.1)	57(17.2)	331(100.0)



[그림Ⅲ-17] 제주지역의 교육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

(11) 제주지역의 주거생활 및 주거환경 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

제주지역의 주거생활 및 주거환경 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주택가격 상승 억제 33.5%(111명), 공공주택 공급확대 23.3%(77명), 주차공간 확보 18.7%(62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 억제 35.9%(46명), 공공주택 공급확대, 주차공간 확보 각 23.4%(30명) 순으로, 여자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 억제 32.0%(65명), 공공주택 공급확대 23.2%(47명), 주차공간 확보 15.8%(32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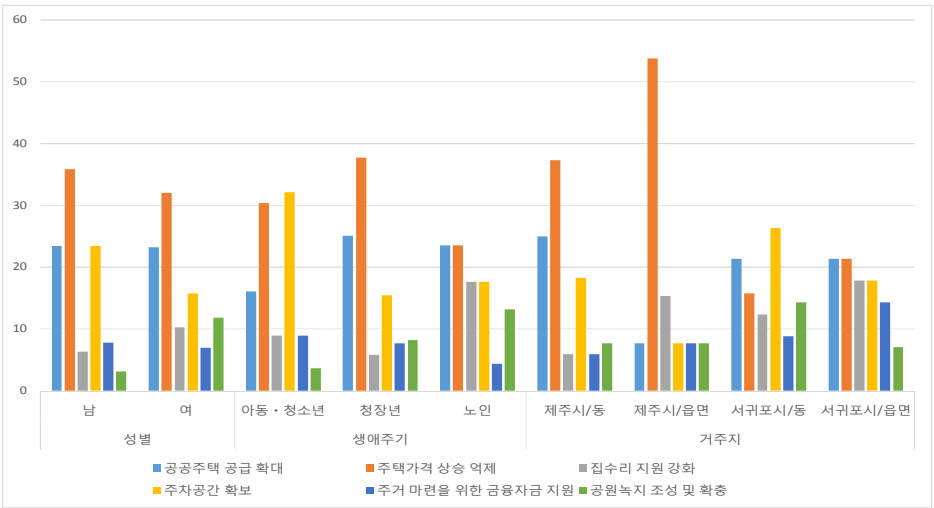
생애주기별로는 아동·청소년이 주차공간 확보 32.1%(18명), 주택가격 상승 억제 30.4%(17명), 공공주택 공급확대 16.1%(9명) 순으로, 청장년이 주택가격 상승 억제

37.7%(78명), 공공주택 공급확대 25.1%(52명), 주차공간 확보 15.5%(32명) 순으로, 노인이 주택가격 상승 억제, 공공주택 공급확대 각 23.5%(16명), 집수리 지원강화, 주차공간 확보 각 17.6%(12명)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제주시 동지역이 주택가격 상승 억제 37.3%(82명), 공공주택 공급확대 25.0%(55명), 주차공간 확보 18.2%(40명) 순으로, 제주시 읍면지역이 주택가격 상승 억제 53.8%(14명), 집수리 지원강화 15.4%(4명), 공공주택 공급확대, 주차공간 확보, 주거마련을 위한 금융자금 지원, 공원녹지 조성 및 확충 각 7.7%(2명) 순으로, 서귀포시 동지역이 주차공간 확보 26.3%(15명), 공공주택 공급확대 21.4%(14명), 주택가격 상승 억제 15.8%(9명) 순으로,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공공주택 공급확대, 주택가격 상승 억제 각 21.4%(6명), 집수리 지원강화, 주차공간 확보 각 17.9%(5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Ⅲ-18〉 제주지역의 주거생활 및 주거환경 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

(단위 : 명, %)

구 분		공공주택 공급 확대	주택가격 상승 억제	집수리 지원 강화	주차공간 확보	주거 마련을 위한 금융자금 지원	공원녹지 조성 및 확충	전 체
성별	남	30(23.4)	46(35.9)	8(6.3)	30(23.4)	10(7.8)	4(3.1)	128(100.0)
	여	47(23.2)	65(32.0)	21(10.3)	32(15.8)	14(6.9)	24(11.8)	203(100.0)
생애 주기	아동·청소년	9(16.1)	17(30.4)	5(8.9)	18(32.1)	5(8.9)	2(3.6)	56(100.0)
	청장년	52(25.1)	78(37.7)	12(5.8)	32(15.5)	16(7.7)	17(8.2)	207(100.0)
	노인	16(23.5)	16(23.5)	12(17.6)	12(17.6)	3(4.4)	9(13.2)	68(100.0)
거주지	제주시/동	55(25.0)	82(37.3)	13(5.9)	40(18.2)	13(5.9)	17(7.7)	220(100.0)
	제주시/읍면	2(7.7)	14(53.8)	4(15.4)	2(7.7)	2(7.7)	2(7.7)	26(100.0)
	서귀포시/동	14(21.4)	9(15.8)	7(12.3)	15(26.3)	5(8.8)	4(14.3)	57(100.0)
	서귀포시/읍면	6(21.4)	6(21.4)	5(17.9)	5(17.9)	4(14.3)	2(7.1)	28(100.0)
전 체		77(23.3)	111(33.5)	29(8.8)	62(18.7)	24(7.3)	28(8.5)	331(100.0)



[그림Ⅲ-18] 제주지역의 주거생활 및 주거환경 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

(12) 제주지역의 여가 및 문화서비스 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

제주지역의 여가 및 문화서비스 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양한 체험 및 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 24.8%(82명), 문화생활 비용인하 22.7%(75명), 제주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프로그램 개발 18.4%(61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다양한 체험 및 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 28.9%(37명), 문화생활 비용인하 22.7%(29명), 제주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프로그램 개발 18.0%(23명) 순으로, 여자의 경우 문화생활 비용인하 22.7%(46명), 다양한 체험 및 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 22.2%(45명), 문화공연 프로그램 유치, 제주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프로그램 개발 각 18.7%(38명) 순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별로는 아동·청소년이 다양한 체험 및 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 32.1%(18명), 문화생활 비용인하 26.8%(15명), 문화공연 프로그램 유치 12.5%(7명) 순으로, 청장년이 문화생활 비용인하 23.7%(49명), 다양한 체험 및 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 23.2%(48명), 문화공연 프로그램 유치 19.8%(41명) 순으로, 노인이 제주지역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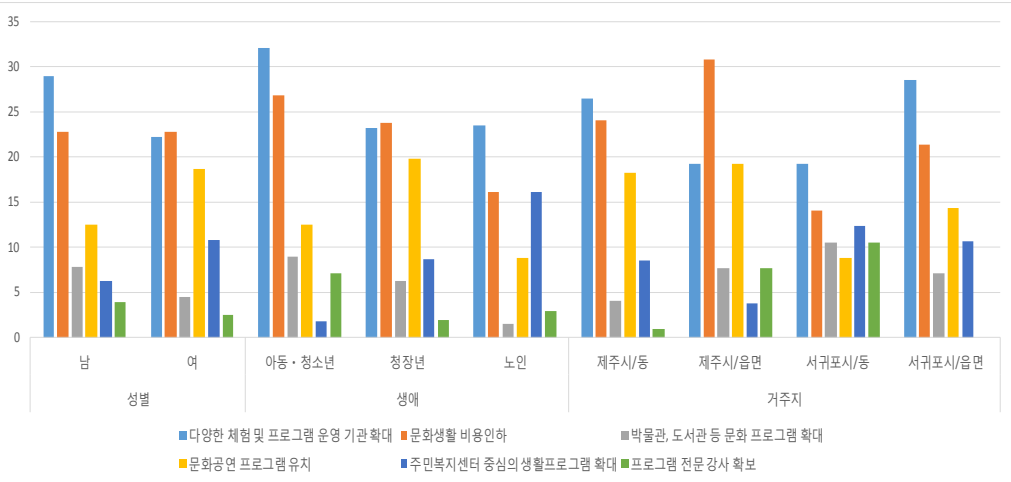
에 맞는 문화프로그램 개발 30.9%(21명), 다양한 체험 및 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 23.5%(16명), 문화생활 비용인하, 주민복지센터 중심의 생활프로그램 확대 각 16.2%(11명)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제주시 동지역이 다양한 체험 및 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 26.4%(58명), 문화생활 비용인하 24.1%(53명), 문화공연 프로그램 유치 18.2%(40명) 순으로, 제주시 읍면지역이 문화생활 비용인하 30.8%(8명), 다양한 체험 및 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 문화공연 프로그램 유치 각 19.2%(5명) 순으로, 서귀포시 동지역이 제주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프로그램 개발 24.6%(14명), 다양한 체험 및 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 19.3%(11명), 문화생활 비용인하 14.0%(8명) 순으로,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다양한 체험 및 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 28.6%(8명), 문화생활 비용인하 21.4%(6명), 제주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프로그램 개발 17.9%(5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Ⅲ-19〉 제주지역의 여가 및 문화서비스 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

(단위 : 명, %)

구 분		다양한 체험 및 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	문화생활 비용인하	박물관, 도서관 등 문화프로그램 확대	문화공연 프로그램 유치	주민복지센터 중심의 생활프로그램 확대	프로그램 전문강사 확보	제주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프로그램 개발	전 체
성별	남	37(28.9)	29(22.7)	10(7.8)	16(12.5)	8(6.3)	5(3.9)	23(18.0)	128(100.0)
	여	45(22.2)	46(22.7)	9(4.4)	38(18.7)	22(10.8)	5(2.5)	38(18.7)	203(100.0)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18(32.1)	15(26.8)	5(8.9)	7(12.5)	1(1.8)	4(7.1)	6(10.7)	56(100.0)
	청장년	48(23.2)	49(23.7)	13(6.3)	41(19.8)	18(8.7)	4(1.9)	34(16.4)	207(100.0)
	노인	16(23.5)	11(16.2)	1(1.5)	6(8.8)	11(16.2)	2(2.9)	21(30.9)	68(100.0)

구 분		다양한 체험 및 프로그램 운영 기관 확대	문화 생활 비용 인하	박물관, 도서관 등 문화 프로그램 확대	문화 공연 프로그램 유치	주민복지센터 중심의 생활프로그램 확대	프로그램 전문 강사 확보	제주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프로그램 개발	전 체
거주지	제주시/동	58(26.4)	53(24.1)	9(4.1)	40(18.2)	19(8.6)	2(0.9)	39(17.7)	220(100.0)
	제주시/읍면	5(19.2)	8(30.8)	2(7.7)	5(19.2)	1(3.8)	2(7.7)	3(11.5)	26(100.0)
	서귀포시/동	11(19.3)	8(14.0)	6(10.5)	5(8.8)	7(12.3)	6(10.5)	14(24.6)	57(100.0)
	서귀포시/읍면	8(28.6)	6(21.4)	2(7.1)	4(14.3)	3(10.7)	0(0.0)	5(17.9)	28(100.0)
전 체		82(24.8)	75(22.7)	19(5.7)	54(16.3)	30(9.1)	10(3.0)	61(18.4)	331(100.0)



[그림Ⅲ-19] 제주지역의 여가 및 문화서비스 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

(13) 제주지역의 환경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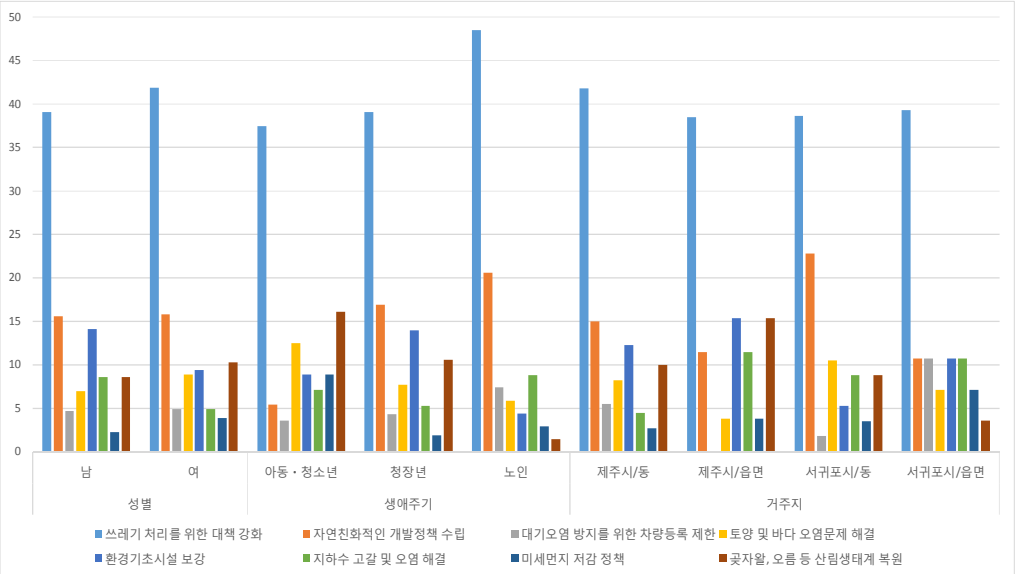
제주지역의 환경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쓰레기를 위한 대책 강화 40.8%(135명), 자연친화적인 개발정책 수립 15.7%(52명), 환경기초시설 보강 11.2%(37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쓰레기를 위한 대책 강화 39.1% (50명), 자연친화적인 개발정책 수립 15.6%(20명), 환경기초시설 보강 14.1% (18명) 순으로, 여자의 경우 쓰레기를 위한 대책 강화 41.9%(85명), 자연친화적인 개발정책 수립 15.8%(32명), 곶자왈, 오름 등 산림생태계 복원 10.3%(21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생애주기별로는 아동·청소년이 쓰레기를 위한 대책 강화 37.5%(21명), 곶자왈, 오름 등 산림생태계 복원 16.1%(9명), 토양 및 바다 오염문제 해결 12.5%(7명) 순으로, 청장년이 쓰레기를 위한 대책 강화 39.1%(81명), 자연친화적인 개발정책 수립 16.9%(35명), 환경기초시설 보강 14.0%(29명) 순으로, 노인이 쓰레기를 위한 대책 강화 48.5% (33명), 자연친화적인 개발정책 수립 20.6%(14명), 지하수 고갈 및 오염 해결 8.8%(6명)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제주시 동지역이 쓰레기를 위한 대책 강화 41.8%(92명), 자연친화적인 개발정책 수립 15.0%(33명), 환경기초시설 보강 12.3%(27명) 순으로, 제주시 읍면지역이 쓰레기를 위한 대책 강화 38.5%(10명), 환경기초시설 보강, 곶자왈, 오름 등 산림생태계 복원 각 15.4%(4명) 순으로, 서귀포시 동지역이 쓰레기를 위한 대책 강화 38.6%(22명), 자연친화적인 개발정책 수립 22.8%(13명), 토양 및 바다 오염문제 해결 10.5%(6명) 순으로,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쓰레기를 위한 대책 강화 39.3%(11명), 자연친화적인 개발정책 수립,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차량등록 제한, 환경기초시설 보강, 지하수 고갈 및 오염 해결 각 10.7%(3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Ⅲ-20〉 제주지역의 환경관련 가장 필요한 정책

(단위 : 명, %)

구 분		쓰레기 처리를 위한 대책 강화	자연 친화적인 개발정책 수립	대기 오염 방지를 위한 차량 등록 제한	토양 및 바다 오염문제 해결	환경 기초 시설 보강	지하수 고갈 및 오염 해결	미세 먼지 저감 정책	곶자왈, 오름 등 산림 생태계 복원	전 체
성별	남	50(39.1)	20(15.6)	6(4.7)	9(7.0)	18(14.1)	11(8.6)	3(2.3)	11(8.6)	128(100.0)
	여	85(41.9)	32(15.8)	10(4.9)	18(8.9)	19(9.4)	10(4.9)	8(3.9)	21(10.3)	203(100.0)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21(37.5)	3(5.4)	2(3.6)	7(12.5)	5(8.9)	4(7.1)	5(8.9)	9(16.1)	56(100.0)
	청장년	81(39.1)	35(16.9)	9(4.3)	16(7.7)	29(14.0)	11(5.3)	4(1.9)	22(10.6)	207(100.0)
	노인	33(48.5)	14(20.6)	5(7.4)	4(5.9)	3(4.4)	6(8.8)	2(2.9)	1(1.5)	68(100.0)
거주지	제주시/동	92(41.8)	33(15.0)	12(5.5)	18(8.2)	27(12.3)	10(4.5)	6(2.7)	22(10.0)	220(100.0)
	제주시/읍면	10(38.5)	3(11.5)	0(0.0)	1(3.8)	4(15.4)	3(11.5)	1(3.8)	4(15.4)	26(100.0)
	서귀포시/동	22(38.6)	13(22.8)	1(1.8)	6(10.5)	3(5.3)	5(8.8)	2(3.5)	5(8.8)	57(100.0)
	서귀포시/읍면	11(39.3)	3(10.7)	3(10.7)	2(7.1)	3(10.7)	3(10.7)	2(7.1)	1(3.6)	28(100.0)
전 체		135(40.8)	52(15.7)	16(4.8)	27(8.2)	37(11.2)	21(6.3)	11(3.3)	32(9.7)	331(100.0)



[그림Ⅲ-20] 제주지역의 환경관련 가장 필요한 정책

(14) 제주지역의 안전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정책

제주지역의 안전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도민과 관광객 운전의식 개선 및 강화 대책마련 21.5%(71명), 안전교육을 통한 도민 안전의식 개선 20.2%(67명), 재난발생 시 신속대응 및 수습체계 마련 18.7%(62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도민과 관광객 운전의식 개선 및 강화 대책마련 25.0%(32명), 기상이변 및 자연재해 대책 강화, 안전교육을 통한 도민 안전의식 개선, 재난발생 시 신속대응 및 수습체계 마련 각 18.8%(24명) 순으로, 여자의 경우 안전교육을 통한 도민 안전의식 개선 21.2%(43명), 외국인 범죄 등 범죄예방 대착 강화 20.7%(42명), 도민과 관광객 운전의식 개선 및 강화 대책마련, 재난발생 시 신속대응 및 수습체계 마련 각 19.2%(39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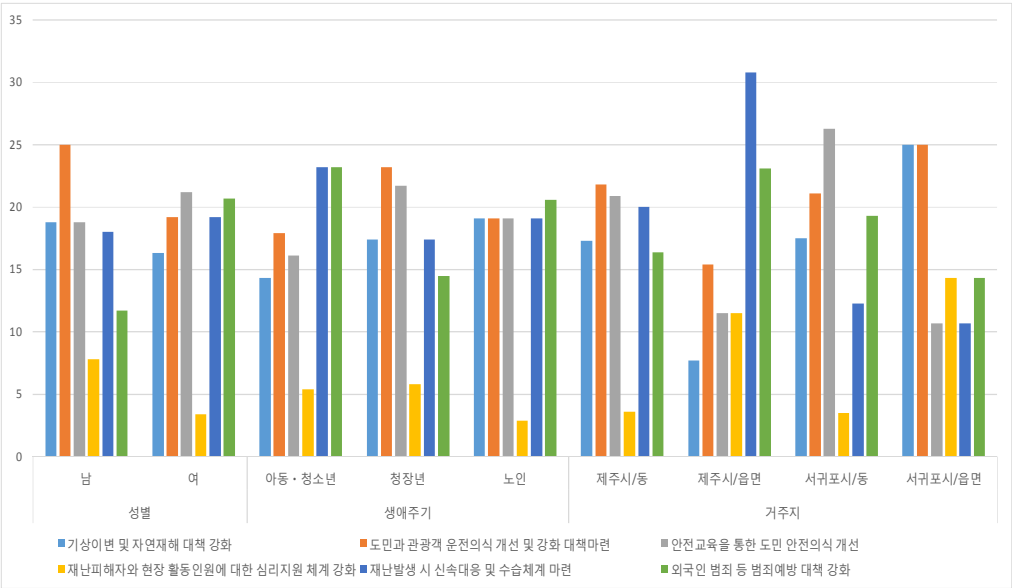
생애주기별로는 아동·청소년이 재난발생 시 신속대응 및 수습체계 마련, 외국인

범죄 등 범죄예방 대착 강화 23.2%(13명), 도민과 관광객 운전의식 개선 및 강화 대책마련 17.9%(10명) 순으로, 청장년이 도민과 관광객 운전의식 개선 및 강화 대책마련 23.2%(48명), 안전교육을 통한 도민 안전의식 개선 21.7%(45명), 기상이변 및 자연재해 대책 강화, 재난발생 시 신속대응 및 수습체계 마련 각 17.4%(36명) 순으로, 노인이 외국인 범죄 등 범죄예방 대책 강화 20.6%(14명), 기상이변 및 자연재해 대책 강화, 도민과 관광객 운전의식 개선 및 강화 대책마련, 안전교육을 통한 도민 안전의식 개선, 재난발생 시 신속대응 및 수습체계 마련 각 19.1%(13명)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제주시 동지역이 도민과 관광객 운전의식 개선 및 강화 대책마련 21.8%(48명), 안전교육을 통한 도민 안전의식 개선 20.9%(46명), 재난발생 시 신속대응 및 수습체계 마련 20.0%(44명) 순으로, 제주시 읍면지역이 재난발생 시 신속대응 및 수습체계 마련 30.8%(8명), 외국인 범죄 등 범죄예방대책 강화 23.1%(6명), 도민과 관광객 운전의식 개선 및 강화 대책마련 15.4%(4명) 순으로, 서귀포시 동지역이 안전교육을 통한 도민 안전의식 개선 26.3%(15명), 도민과 관광객 운전의식 개선 및 강화 대책마련 21.1%(12명), 외국인 범죄 등 범죄예방대책 강화 19.3%(11명) 순으로,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기상이변 및 자연재해 대책 강화, 도민과 관광객 운전의식 개선 및 강화 대책마련 각 25.0%(7명), 재난피해자와 현장 활동인원에 대한 심리지원 체계 강화, 외국인 범죄 등 범죄예방 대책 강화 각 14.3%(4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Ⅲ-21> 제주지역의 안전관련 가장 필요한 정책

(단위 : 명, %)

구 분		기상이변 및 자연재해 대책 강화	도민과 관광객 운전의식 개선 및 강화 대책마련	안전교육을 통한 도민 안전의식 개선	재난피해자와 현장 활동인원에 대한 심리지원 체계 강화	재난 발생 시 신속대응 및 수습체계 마련	외국인 범죄 등 범죄예방 대책 강화	전 체
성별	남	24(18.8)	32(25.0)	24(18.8)	10(7.8)	23(18.0)	15(11.7)	128(100.0)
	여	33(16.3)	39(19.2)	43(21.2)	7(3.4)	39(19.2)	42(20.7)	203(100.0)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8(14.3)	10(17.9)	9(16.1)	3(5.4)	13(23.2)	13(23.2)	56(100.0)
	청장년	36(17.4)	48(23.2)	45(21.7)	12(5.8)	36(17.4)	30(14.5)	207(100.0)
	노인	13(19.1)	13(19.1)	13(19.1)	2(2.9)	13(19.1)	14(20.6)	68(100.0)
거주지	제주시/동	38(17.3)	48(21.8)	46(20.9)	8(3.6)	44(20.0)	36(16.4)	220(100.0)
	제주시/읍면	2(7.7)	4(15.4)	3(11.5)	3(11.5)	8(30.8)	6(23.1)	26(100.0)
	서귀포시/동	10(17.5)	12(21.1)	15(26.3)	2(3.5)	7(12.3)	11(19.3)	57(100.0)
	서귀포시/읍면	7(25.0)	7(25.0)	3(10.7)	4(14.3)	3(10.7)	4(14.3)	28(100.0)
전 체		57(17.2)	71(21.5)	67(20.2)	17(5.1)	62(18.7)	57(17.2)	331(100.0)



[그림Ⅲ-21] 제주지역의 안전관련 가장 필요한 정책

(15)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동·청소년 문화, 체육, 활동 지원확충 24.5%(81명),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 안전한 환경 조성 각 19.3%(64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아동·청소년 문화, 체육, 활동 지원확충 28.9%(37명),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 18.8%(24명),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강화, 안전한 환경 조성 각 16.4%(21명) 순으로, 여자의 경우 아동·청소년 문화, 체육, 활동 지원확충 21.7%(44명), 안전한 환경 조성 21.2%(43명),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 19.7%(40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생애주기별로는 아동·청소년이 아동·청소년 문화, 체육, 활동 지원확충 25.0%(14명),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강화 21.4%(12명),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 19.6%(11명) 순으로, 청장년이 아동·청소년 문화, 체육, 활동 지원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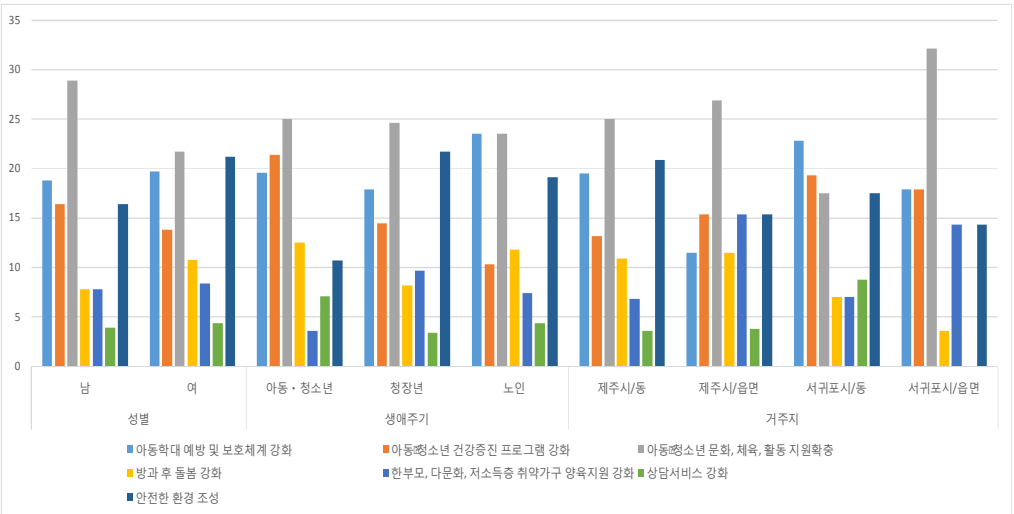
24.6%(51명), 안전한 환경 조성 21.7%(45명),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 17.9%(37명) 순으로, 노인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 아동·청소년 문화, 체육, 활동 지원확충 각 23.5%(16명), 안전한 환경 조성 각 19.1%(13명)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제주시 동지역이 아동·청소년 문화, 체육, 활동 지원확충 25.0%(55명), 안전한 환경 조성 20.9%(46명),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 19.5%(43명), 제주시 읍면지역이 아동·청소년 문화, 체육, 활동 지원확충 26.9%(7명),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강화, 한부모, 다문화, 저소득층 취약가구 양육지원 강화, 안전한 환경 조성 각 15.4%(4명) 순으로, 서귀포시 동지역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 22.8%(13명),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강화 19.3%(11명), 아동·청소년 문화, 체육, 활동 지원확충, 안전한 환경 조성 각 17.5%(10명) 순으로,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아동·청소년 문화, 체육, 활동 지원확충 32.1%(9명),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강화 각 17.9%(5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Ⅲ-22>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단위 : 명, %)

구 분		아동 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강화	아동·청소년 문화, 체육, 활동 지원확충	방과 후 돌봄 강화	한부모, 다문화, 저소득층 취약가구 양육지원 강화	상담 서비스 강화	안전한 환경 조성	전 체
성별	남	24(18.8)	21(16.4)	37(28.9)	10(7.8)	10(7.8)	5(3.9)	21(16.4)	128(100.0)
	여	40(19.7)	28(13.8)	44(21.7)	22(10.8)	17(8.4)	9(4.4)	43(21.2)	203(100.0)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11(19.6)	12(21.4)	14(25.0)	7(12.5)	2(3.6)	4(7.1)	6(10.7)	56(100.0)
	청장년	37(17.9)	30(14.5)	51(24.6)	17(8.2)	20(9.7)	7(3.4)	45(21.7)	207(100.0)
	노인	16(23.5)	7(10.3)	16(23.5)	8(11.8)	5(7.4)	3(4.4)	13(19.1)	68(100.0)

구 분		아동 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강화	아동·청소년 문화, 체육, 활동 지원확충	방과 후 돌봄 강화	한부모, 다문화, 저소득층 취약가구 양육지원 강화	상담 서비스 강화	안전한 환경 조성	전 체
거주지	제주시/동	43(19.5)	29(13.2)	55(25.0)	24(10.9)	15(6.8)	8(3.6)	46(20.9)	220(100.0)
	제주시/읍면	3(11.5)	4(15.4)	7(26.9)	3(11.5)	4(15.4)	1(3.8)	4(15.4)	26(100.0)
	서귀포시/동	13(22.8)	11(19.3)	10(17.5)	4(7.0)	4(7.0)	5(8.8)	10(17.5)	57(100.0)
	서귀포시/읍면	5(17.9)	5(17.9)	9(32.1)	1(3.6)	4(14.3)	0(0.0)	4(14.3)	28(100.0)
전 체		64(19.3)	49(14.8)	81(24.5)	32(9.7)	27(8.2)	14(4.2)	64(19.3)	331(100.0)



[그림 Ⅲ-22]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16) 청장년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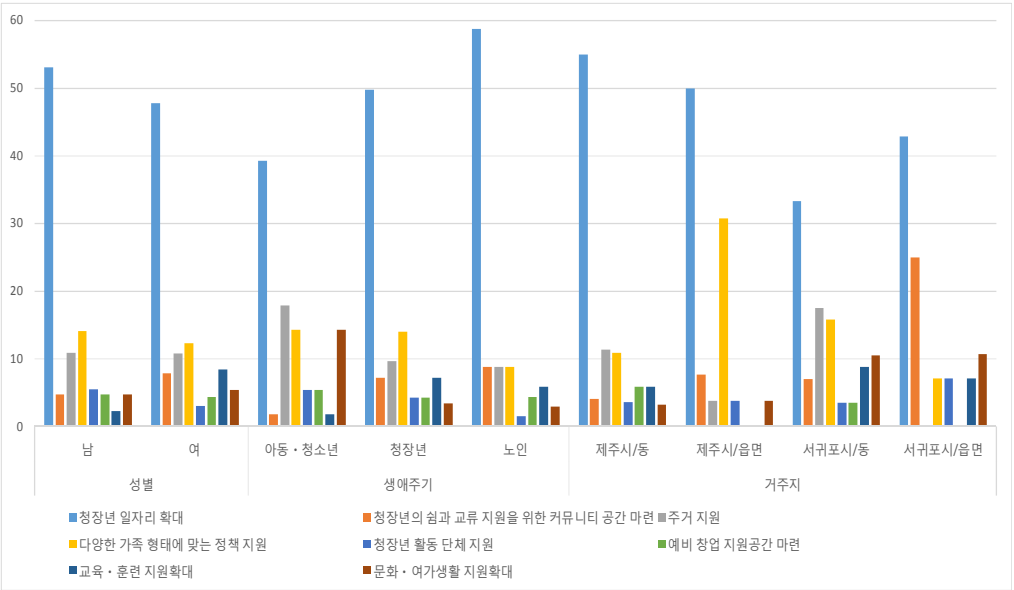
청장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장년 일자리 확대 49.8%(165명),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는 정책 지원 13.0%(43명), 주거 지원 10.9%(36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청장년 일자리 확대 53.1%(68명),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는 정책 지원 14.1%(18명), 주거 지원 10.9%(14명) 순으로, 여자의 경우 청장년 일자리 확대 47.8%(97명),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는 정책 지원 12.3%(25명), 주거 지원 10.8%(22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생애주기별로는 아동·청소년이 청장년 일자리 확대 39.3%(22명), 주거 지원 17.9%(10명),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는 정책 지원, 문화 · 여가생활 지원확대 각 14.3%(8명) 순으로, 청장년이 청장년 일자리 확대 49.8%(103명),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는 정책 지원 14.0%(29명), 주거 지원 9.7%(20명) 순으로, 노인이 청장년 일자리 확대 58.8%(40명), 청장년의 쉼과 교류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마련,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는 정책 지원, 주거 지원 8.8%(6명)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제주시 동지역이 청장년 일자리 확대 55.0%(121명), 주거 지원 11.4%(25명),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는 정책 지원 10.9%(24명) 순으로, 제주시 읍면지역이 청장년 일자리 확대 50.0%(13명),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는 정책 지원 30.8%(8명), 청장년의 쉼과 교류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마련 7.7%(2명) 순으로, 서귀포시 동지역이 청장년 일자리 확대 33.3%(19명), 주거 지원 17.5%(10명),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는 정책 지원 15.8%(9명) 순으로,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청장년 일자리 확대 42.9%(12명), 청장년의 쉼과 교류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마련 25.0%(7명), 문화 · 여가생활 지원확대 10.7%(3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Ⅲ-23〉 청장년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단위 : 명, %)

구 분		청장년 일자리 확대	청장년의 섬과 교류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마련	주거 지원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는 정책 지원	청장년 활동 단체 지원	예비 창업 지원 공간 마련	교육/훈련 지원확대	문화/여가 생활 지원 확대	전 체
성별	남	68(53.1)	6(4.7)	14(10.9)	18(14.1)	7(5.5)	6(4.7)	3(2.3)	6(4.7)	128(100.0)
	여	97(47.8)	16(7.9)	22(10.8)	25(12.3)	6(3.0)	9(4.4)	17(8.4)	11(5.4)	203(100.0)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22(39.3)	1(1.8)	10(17.9)	8(14.3)	3(5.4)	3(5.4)	1(1.8)	8(14.3)	56(100.0)
	청장년	103(49.8)	15(7.2)	20(9.7)	29(14.0)	9(4.3)	9(4.3)	15(7.2)	7(3.4)	207(100.0)
	노인	40(58.8)	6(8.8)	6(8.8)	6(8.8)	1(1.5)	3(4.4)	4(5.9)	2(2.9)	68(100.0)
거주지	제주시/동	121(55.0)	9(4.1)	25(11.4)	24(10.9)	8(3.6)	13(5.9)	13(5.9)	7(3.2)	220(100.0)
	제주시/읍면	13(50.0)	2(7.7)	1(3.8)	8(30.8)	1(3.8)	0(0.0)	0(0.0)	1(3.8)	26(100.0)
	서귀포시/동	19(33.3)	4(7.0)	10(17.5)	9(15.8)	2(3.5)	2(3.5)	5(8.8)	6(10.5)	57(100.0)
	서귀포시/읍면	12(42.9)	7(25.0)	0(0.0)	2(7.1)	2(7.1)	0(0.0)	2(7.1)	3(10.7)	28(100.0)
전 체		165(49.8)	22(6.6)	36(10.9)	43(13.0)	13(3.9)	15(4.5)	20(6.0)	17(5.1)	331(100.0)



[그림Ⅲ-23] 청장년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17) 노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은퇴 후 취업 또는 창업 지원 25.4%(84명), 치매, 독거, 학대노인 등에 대한 돌봄 강화 19.3%(64명), 노인에 대한 소득 지원 18.1%(60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은퇴 후 취업 또는 창업 지원 30.5%(39명), 치매, 독거, 학대노인 등에 대한 돌봄 강화, 노인에 대한 소득 지원 각 18.0%(23명) 순으로, 여자의 경우 은퇴 후 취업 또는 창업 지원 22.2%(45명), 치매, 독거, 학대노인 등에 대한 돌봄 강화 20.2%(41명), 노인에 대한 소득 지원 18.2%(37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생애주기별로는 아동·청소년이 은퇴 후 취업 또는 창업 지원 28.6%(16명), 노인에 대한 소득 지원 21.4%(12명), 치매, 독거, 학대노인 등에 대한 돌봄 강화 19.6%(11명) 순으로, 청장년이 은퇴 후 취업 또는 창업 지원 27.1%(56명), 치매, 독거, 학대노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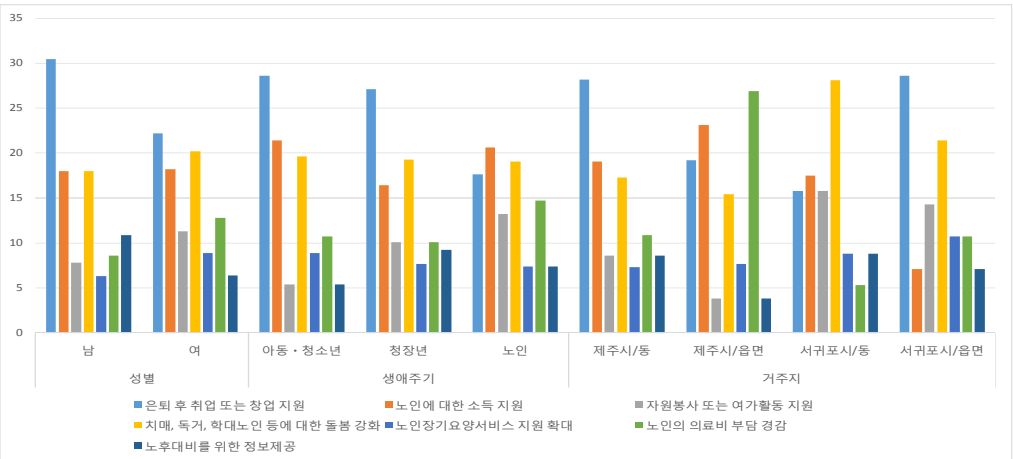
에 대한 돌봄 강화 19.3%(40명), 노인에 대한 소득 지원 16.4%(34명) 순으로, 노인이 노인에 대한 소득 20.6%(14명), 치매, 독거, 학대노인 등에 대한 돌봄 강화 19.1%(13명), 은퇴 후 취업 또는 창업 지원 17.6%(12명)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제주시 동지역이 은퇴 후 취업 또는 창업 지원 28.2%(62명), 노인에 대한 소득 지원 19.1%(42명), 치매, 독거, 학대노인 등에 대한 돌봄 강화 17.3%(38명) 순으로, 제주시 읍면지역이 노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 26.9%(7명), 노인에 대한 소득 지원 23.1%(6명), 은퇴 후 취업 또는 창업 지원 19.2%(5명) 순으로, 서귀포시 동지역이 치매, 독거, 학대노인 등에 대한 돌봄 강화 28.1%(16명), 노인에 대한 소득 지원 17.5%(10명), 은퇴 후 취업 및 창업 지원, 자원봉사 또는 여가활동 지원 각 15.8%(9명) 순으로,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은퇴 후 취업 또는 창업 지원 28.6%(8명), 치매, 독거, 학대노인 등에 대한 돌봄 강화 21.4%(6명), 자원봉사 또는 여가활동 지원 14.3%(4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Ⅲ-24〉 노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단위 : 명, %)

구 분		은퇴 후 취업 또는 창업 지원	노인에 대한 소득 지원	자원봉사 또는 여가활동 지원	치매, 독거, 학대노인 등에 대한 돌봄 강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지원 확대	노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	노후대비를 위한 정보제공	전 체
성별	남	39(30.5)	23(18.0)	10(7.8)	23(18.0)	8(6.3)	11(8.6)	14(10.9)	128(100.0)
	여	45(22.2)	37(18.2)	23(11.3)	41(20.2)	18(8.9)	26(12.8)	13(6.4)	203(100.0)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16(28.6)	12(21.4)	3(5.4)	11(19.6)	5(8.9)	6(10.7)	3(5.4)	56(100.0)
	청장년	56(27.1)	34(16.4)	21(10.1)	40(19.3)	16(7.7)	21(10.1)	19(9.2)	207(100.0)
	노인	12(17.6)	14(20.6)	9(13.2)	13(19.1)	5(7.4)	10(14.7)	5(7.4)	68(100.0)

구 분		은퇴 후 취업 또는 창업 지원	노인에 대한 소득 지원	자원봉사 또는 여가활동 지원	치매, 독거, 학대노인 등에 대한 돌봄 강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지원 확대	노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	노후대비를 위한 정보제공	전 체
거주지	제주시/동	62(28.2)	42(19.1)	19(8.6)	38(17.3)	16(7.3)	24(10.9)	19(8.6)	220(100.0)
	제주시/읍면	5(19.2)	6(23.1)	1(3.8)	5(15.4)	2(7.7)	7(26.9)	1(3.8)	26(100.0)
	서귀포시/동	9(15.8)	10(17.5)	9(15.8)	16(28.1)	5(8.8)	3(5.3)	5(8.8)	57(100.0)
	서귀포시/읍면	8(28.6)	2(7.1)	4(14.3)	6(21.4)	3(10.7)	3(10.7)	2(7.1)	28(100.0)
전 체		84(25.4)	60(18.1)	33(10.0)	64(19.3)	26(7.9)	37(11.2)	27(8.2)	331(100.0)



[그림Ⅲ-24] 노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5) 공공기관의 복지서비스

(1) 지자체 포함 공공기관의 복지서비스 인지도

정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서귀포시, 읍 · 면 · 동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지 조사한 결과, 보통 38.4%(127명), 모른다 28.7%(95명), 조금 안다 23.0%(76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보통, 모른다 각 32.8%(42명), 조금 안다 22.7%(29명) 순으로 여자의 경우 보통 41.9%(85명), 모른다 26.1%(53명), 조금 안다 23.2%(47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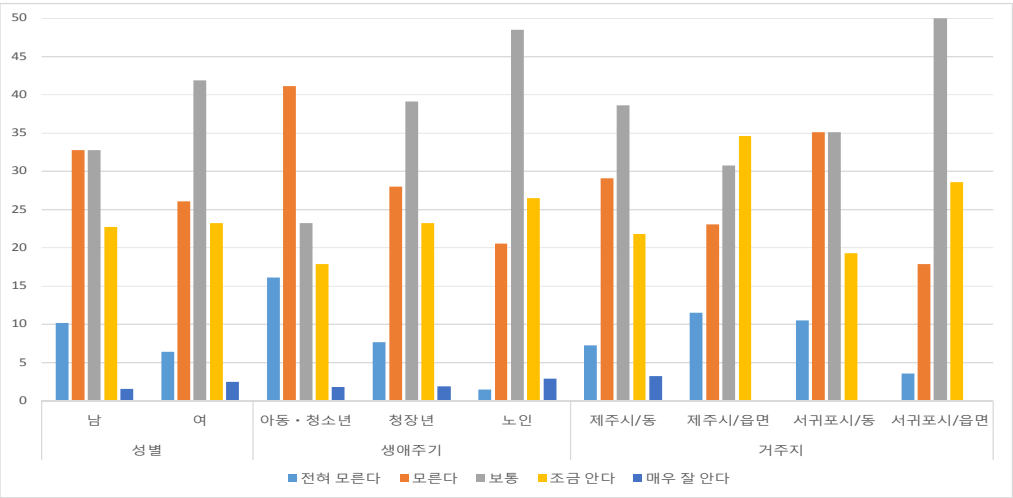
생애주기별로는 아동·청소년이 모른다 41.1%(23명), 보통 23.2%(13명), 조금 안다 17.9%(10명) 순으로, 청장년이 보통 39.1%(81명), 모른다 28.0%(58명), 조금 안다 23.2%(48명) 순으로, 노인이 보통 48.5%(33명), 조금 안다 26.5%(18명), 모른다 20.6%(14명)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제주시 동지역이 보통 38.6%(85명), 모른다 29.1%(64명), 조금 안다 21.8%(48명) 순으로, 제주시 읍면지역이 조금 안다 34.6%(9명), 보통 30.8%(8명), 모른다 23.1%(6명) 순으로, 서귀포시 동지역이 보통, 모른다 각 35.1%(20명), 조금 안다 19.3%(11명) 순으로,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보통 50.0%(14명), 조금 안다 28.6%(8명), 모른다 17.9%(5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Ⅲ-25〉 지자체 포함 공공기관의 복지서비스 인지도

(단위 : 명, %)

구 분		전혀 모른다	모른다	보통	조금 안다	매우 잘 안다	전체
성별	남	13(10.2)	42(32.8)	42(32.8)	29(22.7)	2(1.6)	128(100.0)
	여	13(6.4)	53(26.1)	85(41.9)	47(23.2)	5(2.5)	203(100.0)

구 분		전혀 모른다	모른다	보통	조금 안다	매우 잘 안다	전체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9(16.1)	23(41.1)	13(23.2)	10(17.9)	1(1.8)	56(100.0)
	청장년	16(7.7)	58(28.0)	81(39.1)	48(23.2)	4(1.9)	207(100.0)
	노인	1(1.5)	14(20.6)	33(48.5)	18(26.5)	2(2.9)	68(100.0)
거주지	제주시/동	16(7.3)	64(29.1)	85(38.6)	48(21.8)	7(3.2)	220(100.0)
	제주시/읍면	3(11.5)	6(23.1)	8(30.8)	9(34.6)	0(0.0)	26(100.0)
	서귀포시/동	6(10.5)	20(35.1)	20(35.1)	11(19.3)	0(0.0)	57(100.0)
	서귀포시/읍면	1(3.6)	5(17.9)	14(50.0)	8(28.6)	0(0.0)	28(100.0)
전 체		26(7.9)	95(28.7)	127(38.4)	76(23.0)	7(2.1)	331(100.0)



[그림Ⅲ-25] 지자체 포함 공공기관의 복지서비스 인지도

(2)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역할 인지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인지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금 안다 33.5%(111명), 보통 32.0%(106명), 모른다 24.8%(82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조금 안다 34.4%(44명), 보통 28.9%(37명), 모른다 23.4%(30명) 순으로, 여자의 경우 보통 34.0%(69명), 조금 안다 33.0%(67명), 모른다 25.6%(52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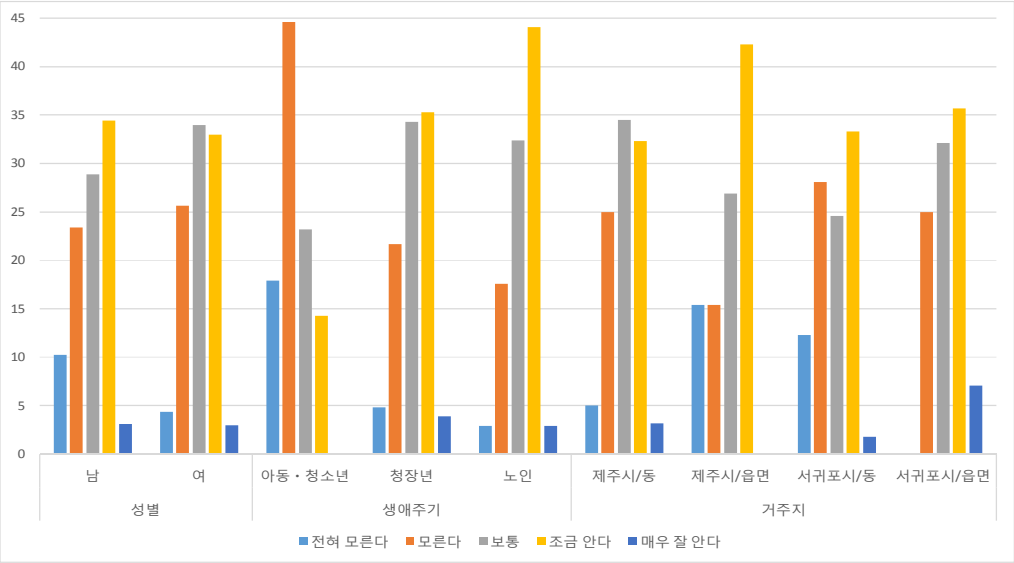
생애주기별로는 아동·청소년이 모른다 44.6%(25명), 보통 23.2%(13명), 전혀 모른다 17.9%(10명) 순으로, 청장년이 조금 안다 35.3%(73명), 보통 34.3%(71명), 모른다 21.7%(45명) 순으로, 노인이 조금 안다 44.1%(30명), 보통 32.4%(22명), 모른다 17.6%(12명)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제주시 동지역이 보통 34.5%(76명), 조금 안다 32.3%(71명), 모른다 25.0%(55명) 순으로, 제주시 읍면지역이 조금 안다 42.3%(11명), 보통 26.9%(7명), 전혀 모른다, 모른다 각 15.4%(4명) 순으로, 서귀포시 동지역이 조금 안다 33.3%(19명), 모른다 28.1%(16명), 보통 24.6%(14명) 순으로,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조금 안다 35.7%(10명), 보통 32.1%(9명), 모른다 25.0%(7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26>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역할에 대한 인지도

(단위 : 명, %)

구 분		전혀 모른다	모른다	보통	조금 안다	매우 잘 안다	전체
성별	남	13(10.2)	30(23.4)	37(28.9)	44(34.4)	4(3.1)	128(100.0)
	여	9(4.4)	52(25.6)	69(34.0)	67(33.0)	6(3.0)	203(100.0)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10(17.9)	25(44.6)	13(23.2)	8(14.3)	0(0.0)	56(100.0)
	청장년	10(4.8)	45(21.7)	71(34.3)	73(35.3)	8(3.9)	207(100.0)
	노인	2(2.9)	12(17.6)	22(32.4)	30(44.1)	2(2.9)	68(100.0)

구 분		전혀 모른다	모른다	보통	조금 안다	매우 잘 안다	전체
거주지	제주시/동	11(5.0)	55(25.0)	76(34.5)	71(32.3)	7(3.2)	220(100.0)
	제주시/읍면	4(15.4)	4(15.4)	7(26.9)	11(42.3)	0(0.0)	26(100.0)
	서귀포시/동	7(12.3)	16(28.1)	14(24.6)	19(33.3)	1(1.8)	57(100.0)
	서귀포시/읍면	0(0.0)	7(25.0)	9(32.1)	10(35.7)	2(7.1)	28(100.0)
전 체		22(6.6)	82(24.8)	106(32.0)	111(33.5)	10(3.0)	331(100.0)



[그림Ⅲ-26]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역할에 대한 인지도

(3) 주민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 혜택의 충분성

사회복지 혜택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통이다 55.6%(184명), 그렇지 않다 23.0%(76명), 그렇다 16.0%(53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보통이다 51.6%(66명), 그렇지 않다, 그렇다 각 21.1%(27명) 순으로, 여자의 경우 보통이다 58.1%(118명), 그렇지 않다 24.1%(49명), 그렇다 12.8%(26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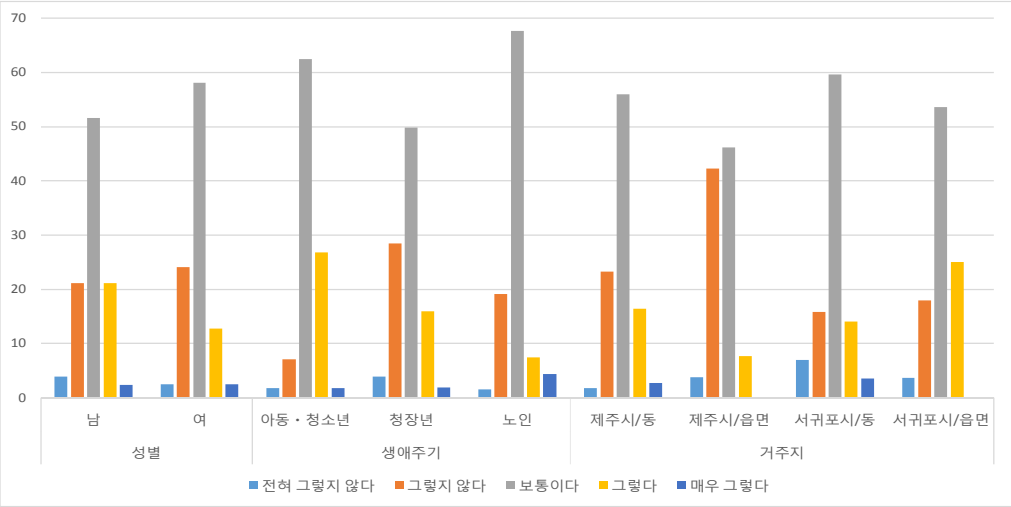
생애주기별로는 아동·청소년이 보통이다 62.5%(35명), 그렇다 26.8%(15명), 그렇지 않다 7.1%(4명) 순으로, 청장년이 보통이다 49.8%(103명), 그렇지 않다 28.5%(59명), 그렇다 15.9%(33명) 순으로, 노인이 보통이다 67.6%(46명), 그렇지 않다 19.1%(13명), 그렇다 7.4%(5명)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제주시 동지역이 보통이다 55.9%(123명), 그렇지 않다 23.2%(51명), 그렇다 16.4%(36명) 순으로, 제주시 읍면지역이 보통이다 46.2%(12명), 그렇지 않다 42.3%(11명), 그렇다 7.7%(2명) 순으로, 서귀포시 동지역이 보통이다 59.6% (34명), 그렇지 않다 15.8%(9명), 그렇다 14.0%(8명) 순으로,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보통이다 53.6%(15명), 그렇다 25.0%(7명), 그렇지 않다 17.9%(5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27> 사회복지 혜택이 주민에게 충분히 제공되는지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성별	남	5(3.9)	27(21.1)	66(51.6)	27(21.1)	3(2.3)	128(100.0)
	여	5(2.5)	49(24.1)	118(58.1)	26(12.8)	5(2.5)	203(100.0)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1(1.8)	4(7.1)	35(62.5)	15(26.8)	1(1.8)	56(100.0)
	청장년	8(3.9)	59(28.5)	103(49.8)	33(15.9)	4(1.9)	207(100.0)
	노인	1(1.5)	13(19.1)	46(67.6)	5(7.4)	3(4.4)	68(100.0)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거주지	제주시/동	4(1.8)	51(23.2)	123(55.9)	36(16.4)	6(2.7)	220(100.0)
	제주시/읍면	1(3.8)	11(42.3)	12(46.2)	2(7.7)	0(0.0)	26(100.0)
	서귀포시/동	4(7.0)	9(15.8)	34(59.6)	8(14.0)	2(3.5)	57(100.0)
	서귀포시/읍면	1(3.6)	5(17.9)	15(53.6)	7(25.0)	0(0.0)	28(100.0)
전 체		10(3.0)	76(23.0)	184(55.6)	53(16.0)	8(2.4)	331(100.0)



[그림Ⅲ-27] 사회복지 혜택이 주민에게 충분히 제공되는지에 대한 생각

(4) 사회복지 혜택 필요 시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음

사회복지 혜택이 필요할 때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보통이다 36.9%(122명), 그렇지 않다 32.0%(106명), 그렇다 20.8%(69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보통이다 39.1%(50명), 그렇지 않다 36.7%(47명), 그렇다 16.4%(21명) 순으로, 여자의 경우 보통이다 35.5%(72명), 그렇지 않다 29.1%(59명), 그렇다 23.6%(48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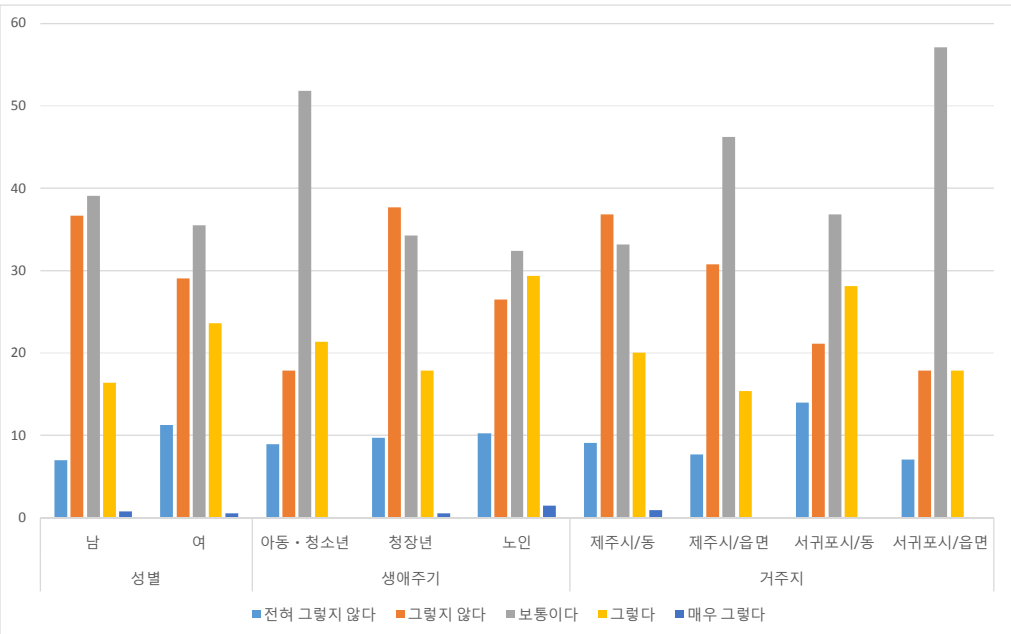
생애주기별로는 아동·청소년이 보통이다 51.8%(29명), 그렇다 21.4%(12명), 그렇지 않다 17.9%(10명) 순으로, 청장년이 그렇지 않다 37.7%(78명), 보통이다 34.3%(71명), 그렇다 17.9%(37명) 순으로, 노인이 보통이다 32.4%(22명), 그렇다 29.4%(20명), 그렇지 않다 26.5%(18명)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지별로는 제주시 동지역이 그렇지 않다 36.8%(81명), 보통이다 33.2%(73명), 그렇다 20.0%(44명) 순으로, 제주시 읍면지역이 보통이다 46.2%(12명), 그렇지 않다 30.8%(8명), 그렇다 15.4%(4명) 순으로, 서귀포시 동지역이 보통이다 36.8%(21명), 그렇다 28.1%(16명), 그렇지 않다 21.1%(12명) 순으로,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보통이다 57.1%(16명), 그렇지 않다, 그렇다 각 17.9%(5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28> 사회복지 혜택 필요 시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음

(단위 : 명,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성별	남	9(7.0)	47(36.7)	50(39.1)	21(16.4)	1(0.8)	128(100.0)
	여	23(11.3)	59(29.1)	72(35.5)	48(23.6)	1(0.5)	203(100.0)
생애주기	아동 · 청소년	5(8.9)	10(17.9)	29(51.8)	12(21.4)	0(0.0)	56(100.0)
	청장년	20(9.7)	78(37.7)	71(34.3)	37(17.9)	1(0.5)	207(100.0)
	노인	7(10.3)	18(26.5)	22(32.4)	20(29.4)	1(1.5)	68(100.0)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거주지	제주시/동	20(9.1)	81(36.8)	73(33.2)	44(20.0)	2(0.9)	220(100.0)
	제주시/읍면	2(7.7)	8(30.8)	12(46.2)	4(15.4)	0(0.0)	26(100.0)
	서귀포시/동	8(14.0)	12(21.1)	21(36.8)	16(28.1)	0(0.0)	57(100.0)
	서귀포시/읍면	2(7.1)	5(17.9)	16(57.1)	5(17.9)	0(0.0)	28(100.0)
전 체		32(9.7)	106(32.0)	122(36.9)	69(20.8)	2(0.6)	331(100.0)



[그림Ⅲ-28] 사회복지 혜택 필요 시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음

(5) 공공기관의 복지서비스 이용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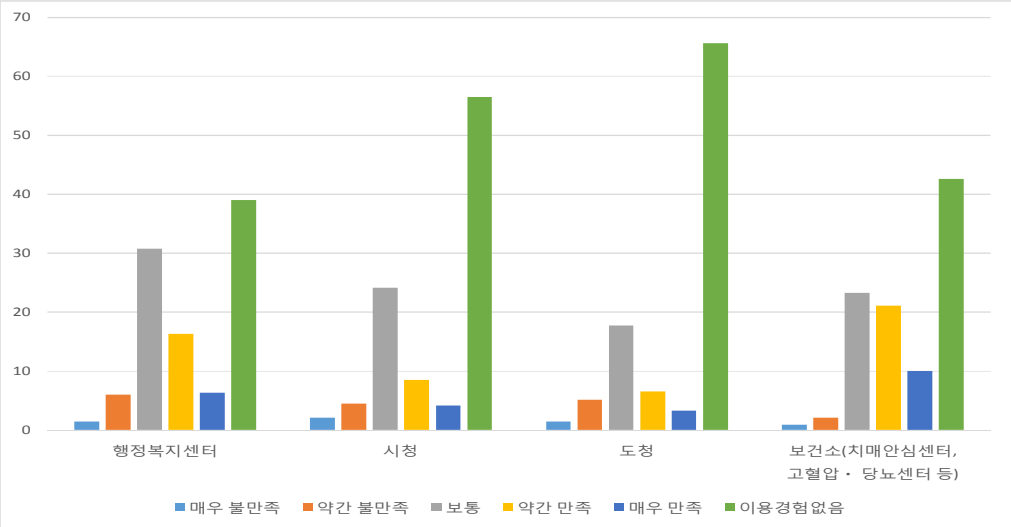
공공기관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따른 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용경험없음 51.0%(674명)이 가장 높게 나왔고, 이용경험이 있는 대상자들 중에서는 보통 24.1%(318명), 약간 만족 13.2%(174명), 매우 만족 6.0%(79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주민복지센터' 의 경우 이용경험없음 39.0%(129명)이 가장 높게 나왔고, 이용경험이 있는 대상자들 중에서는 보통 30.8%(102명), 약간 만족 16.3%(54명), 매우 만족 6.3%(21명) 순으로, '시청' 의 경우 이용경험없음 56.5%(187명)이 가장 높게 나왔고, 이용경험이 있는 대상자들 중에서는 보통 24.2%(80명), 약간 만족 8.5%(28명), 약간 불만족 4.5%(15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도청' 의 경우 이용경험없음 65.6% (217명)이 가장 높게 나왔고, 이용경험이 있는 대상자들 중에서는 보통 17.8%(59명), 약간 만족 6.6%(22명), 약간 불만족 5.1%(15명) 순으로, '보건소(치매안심센터, 고혈압, 당뇨센터 포함)' 의 경우 이용경험없음 42.6%(141명)이 가장 높게 나왔고, 이용경험이 있는 대상자들 중에서는 보통 23.3% (77명), 약간 만족 21.1%(70명), 매우 만족 10.0%(33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Ⅲ-29> 공공기관의 복지서비스 이용만족도

(단위 : 명, %)

구 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이용경험 없음	전 체
주민 복지센터	5(1.5)	20(6.0)	102(30.8)	54(16.3)	21(6.3)	129(39.0)	331(100.0)
시청	7(2.1)	15(4.5)	80(24.2)	28(8.5)	14(4.2)	187(56.5)	331(100.0)
도청	5(1.5)	15(5.1)	59(17.8)	22(6.6)	11(3.3)	217(65.6)	331(100.0)

구 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이용경험 없음	전 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고혈압·당뇨센터 등)	3(0.9)	7(2.1)	77(23.3)	70(21.1)	33(10.0)	141(42.6)	331(100.0)
전 체	20(1.5)	57(4.3)	318(24.1)	174(13.2)	79(6.0)	674(51.0)	1,322(100.0)



[그림Ⅲ-29] 공공기관의 복지서비스 이용만족도

(6) 공공기관 복지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부족 34.3%(113명), 사회복지 예산부족 17.9%(59명), 사회복지 인력부족 14.9%(49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복

지서비스 정보제공 부족 31.5%(40명), 사회복지 예산부족 18.9%(24명), 사회복지 인력부족 16.5%(21명) 순으로, 여자의 경우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부족 36.1%(73명), 사회복지 예산부족 17.3%(35명), 사회복지 인력부족 13.9%(28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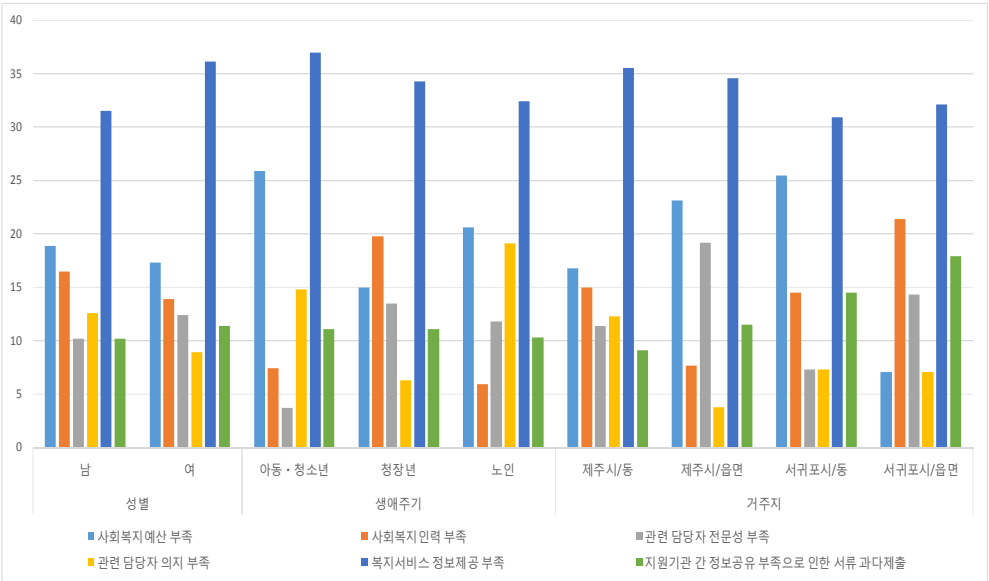
생애주기별로는 아동·청소년이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부족 37.0%(20명), 사회복지 예산부족 25.9%(14명), 관련 담당자의 의지 부족 14.8%(8명) 순으로, 청장년이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부족 34.3%(71명), 사회복지 인력부족 19.8% (41명), 사회복지 예산부족 15.0%(31명) 순으로, 노인이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부족 32.4%(22명), 사회복지 예산부족 20.6%(14명), 관련 담당자의 의지 부족 19.1%(13명)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제주시 동지역이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부족 33.5%(78명), 사회복지 예산부족 16.8%(37명), 사회복지 인력부족 15.0%(33명) 순으로, 제주시 읍면지역이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부족 34.6%(9명), 사회복지 예산부족 23.1%(6명), 관련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19.2%(5명) 순으로, 서귀포시 동지역이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부족 30.9% (17명), 사회복지 예산부족 25.5%(14명), 사회복지 인력부족, 지원기관 간 정보공유 부족으로 인한 서류 과다제출 각 14.5%(8명) 순으로,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부족 32.1%(9명), 사회복지 인력부족 21.4%(6명), 지원기관 간 정보공유 부족으로 인한 서류 과다제출 17.9%(5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Ⅲ-30> 공공기관 복지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

(단위 : 명, %)

구 분		사회복지 예산 부족	사회복지 인력 부족	관련 담당자 전문성 부족	관련 담당자 의지 부족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부족	지원기관 간 정보 공유 부족으로 인한 서류 과다제출	전 체
성별	남	24(18.9)	21(16.5)	13(10.2)	16(12.6)	40(31.5)	13(10.2)	127(100.0)
	여	35(17.3)	28(13.9)	25(12.4)	18(8.9)	73(36.1)	23(11.4)	202(100.0)

구 분		사회 복지 예산 부족	사회 복지 인력 부족	관련 담당자 전문성 부족	관련 담당자 의지 부족	복지 서비스 정보제공 부족	지원기관 간 정보 공유 부족으로 인한 서류 과다제출	전 체
생애 주기	아동·청소년	14(25.9)	4(7.4)	2(3.7)	8(14.8)	20(37.0)	6(11.1)	54(100.0)
	청장년	31(15.0)	41(19.8)	28(13.5)	13(6.3)	71(34.3)	23(11.1)	207(100.0)
	노인	14(20.6)	4(5.9)	8(11.8)	13(19.1)	22(32.4)	7(10.3)	68(100.0)
거주지	제주시/동	37(16.8)	33(15.0)	25(11.4)	27(12.3)	78(35.5)	20(9.1)	220(100.0)
	제주시/읍면	6(23.1)	2(7.7)	5(19.2)	1(3.8)	9(34.6)	3(11.5)	26(100.0)
	서귀포시/동	14(25.5)	8(14.5)	4(7.3)	4(7.3)	17(30.9)	8(14.5)	55(100.0)
	서귀포시/읍면	2(7.1)	6(21.4)	4(14.3)	2(7.1)	9(32.1)	5(17.9)	28(100.0)
전 체		59(17.9)	49(14.9)	38(11.6)	34(10.3)	113(34.3)	36(10.9)	329(100.0)



[그림Ⅲ-30] 공공기관 복지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

6) 민간기관의 복지서비스

(1) 민간기관의 복지서비스 인지도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른다 32.3%(107명), 보통 29.3%(97명), 조금 안다 26.3%(87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모른다 35.2% (45명), 보통 28.9%(37명), 조금 안다 23.4%(30명) 순으로, 여자의 경우 모른다 30.5%(62명), 보통 29.6%(60명), 조금 안다 28.1%(57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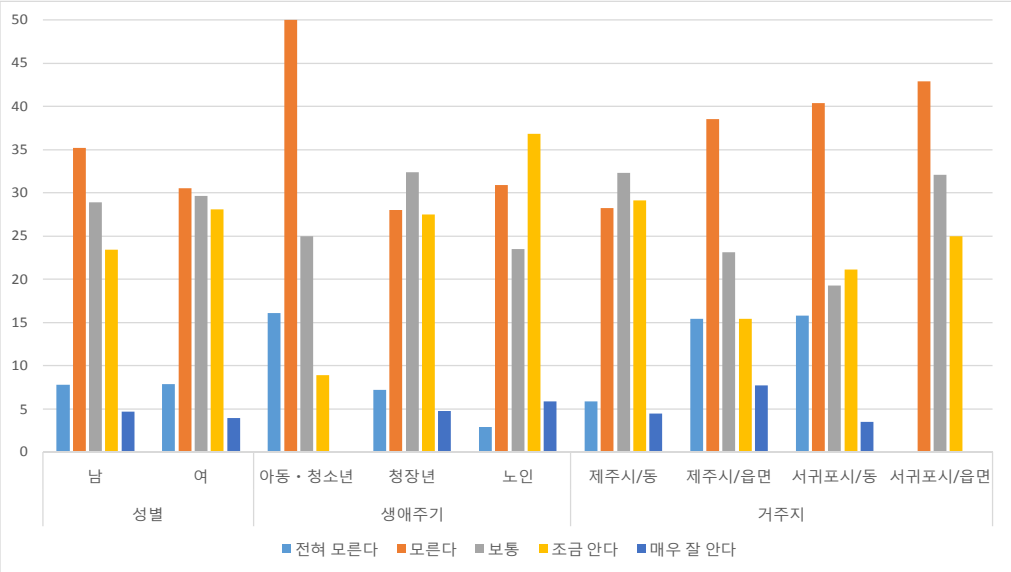
생애주기별로는 아동·청소년이 모른다 50.0%(28명), 보통 25.0%(14명), 전혀 모른다 16.1%(9명) 순으로, 청장년이 보통 32.4%(67명), 모른다 28.0%(58명), 조금 안다 27.5%(57명) 순으로, 노인이 조금 안다 36.8%(25명), 모른다 30.9%(21명), 보통

23.5%(16명)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제주시 동지역이 보통 32.3%(71명), 조금 안다 29.1%(64명), 모른다 28.2%(62명) 순으로, 제주시 읍면지역이 모른다 38.5%(10명), 보통 23.1%(6명), 전혀 모른다, 조금 안다 각 15.4%(4명) 순으로, 서귀포시 동지역이 모른다 40.4%(23명), 조금 안다 21.1%(12명), 보통 19.3%(11명) 순으로,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모른다 42.9%(12명), 보통 32.1%(9명), 조금 안다 25.0%(7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Ⅲ-31> 민간기관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단위 : 명, %)

구 분		전혀 모른다	모른다	보통	조금 안다	매우 잘 안다	전체
성별	남	10(7.8)	45(35.2)	37(28.9)	30(23.4)	6(4.7)	128(100.0)
	여	16(7.9)	62(30.5)	60(29.6)	57(28.1)	8(3.9)	203(100.0)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9(16.1)	28(50.0)	14(25.0)	5(8.9)	0(0.0)	56(100.0)
	청장년	15(7.2)	58(28.0)	67(32.4)	57(27.5)	10(4.8)	207(100.0)
	노인	2(2.9)	21(30.9)	16(23.5)	25(36.8)	4(5.9)	68(100.0)
거주지	제주시/동	13(5.9)	62(28.2)	71(32.3)	64(29.1)	10(4.5)	220(100.0)
	제주시/읍면	4(15.4)	10(38.5)	6(23.1)	4(15.4)	2(7.7)	26(100.0)
	서귀포시/동	9(15.8)	23(40.4)	11(19.3)	12(21.1)	2(3.5)	57(100.0)
	서귀포시/읍면	0(0.0)	12(42.9)	9(32.1)	7(25.0)	0(0.0)	28(100.0)
전 체		26(7.9)	107(32.3)	97(29.3)	87(26.3)	14(4.2)	331(100.0)



[그림Ⅲ-31] 민간기관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2) 복지서비스 이용을 위한 민간기관 방문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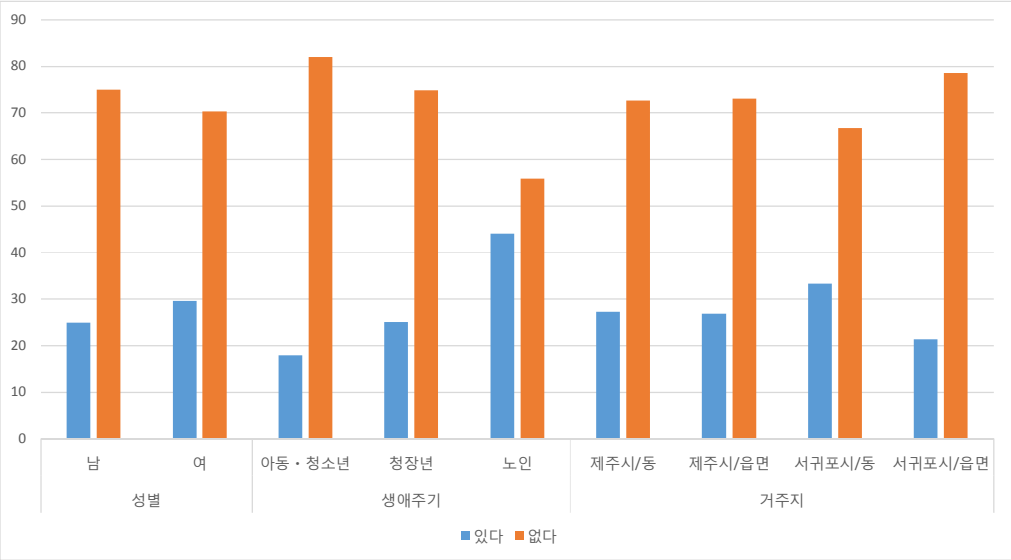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민간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없다 72.2%(239명), 있다 27.8%(92명)로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없다 75.0%(96명), 있다 25.0%(32명)로, 여자의 경우 없다 70.4%(143명), 있다 29.6%(60명)로 조사되었다.

생애주기별로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없다 82.1%(46명), 있다 17.9%(10명)로, 청장년이 없다 74.9%(155명), 있다 25.1%(52명)로, 노인이 없다 55.9%(38명), 있다 44.1%(30명)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제주시 동지역이 없다 72.7%(160명), 있다 27.3%(60명)로, 제주시 읍면지역이 없다 73.1%(19명), 있다 26.9%(7명)로, 서귀포시 동지역이 없다 66.7%(38명), 있다 33.3%(19명)로,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없다 78.6%(22명), 있다 21.4%(6명)로 조사되었다.

<표Ⅲ-32> 복지서비스 이용을 위한 민간기관 방문여부

(단위 : 명, %)

구 분		있다	없다	전체
성별	남	32(25.0)	96(75.0)	128(100.0)
	여	60(29.6)	143(70.4)	203(100.0)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10(17.9)	46(82.1)	56(100.0)
	청장년	52(25.1)	155(74.9)	207(100.0)
	노인	30(44.1)	38(55.9)	68(100.0)
거주지	제주시/동	60(27.3)	160(72.7)	220(100.0)
	제주시/읍면	7(26.9)	19(73.1)	26(100.0)
	서귀포시/동	19(33.3)	38(66.7)	57(100.0)
	서귀포시/읍면	6(21.4)	22(78.6)	28(100.0)
전 체		92(27.8)	239(72.2)	331(100.0)



[그림Ⅲ-32] 복지서비스 이용을 위한 민간기관 방문여부

(3) 사회복지 혜택 필요 시 민간기관의 도움을 받음

사회복지 혜택이 필요할 때 민간기관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그렇지 않다 40.8%(135명), 보통이다 27.5%(91명), 전혀 그렇지 않다 15.1%(50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그렇지 않다 43.0%(55명), 보통이다 28.9%(37명), 전혀 그렇지 않다 15.6%(20명) 순으로, 여자의 경우 그렇지 않다 39.4%(80명), 보통이다 26.6%(54명), 그렇다 16.3%(33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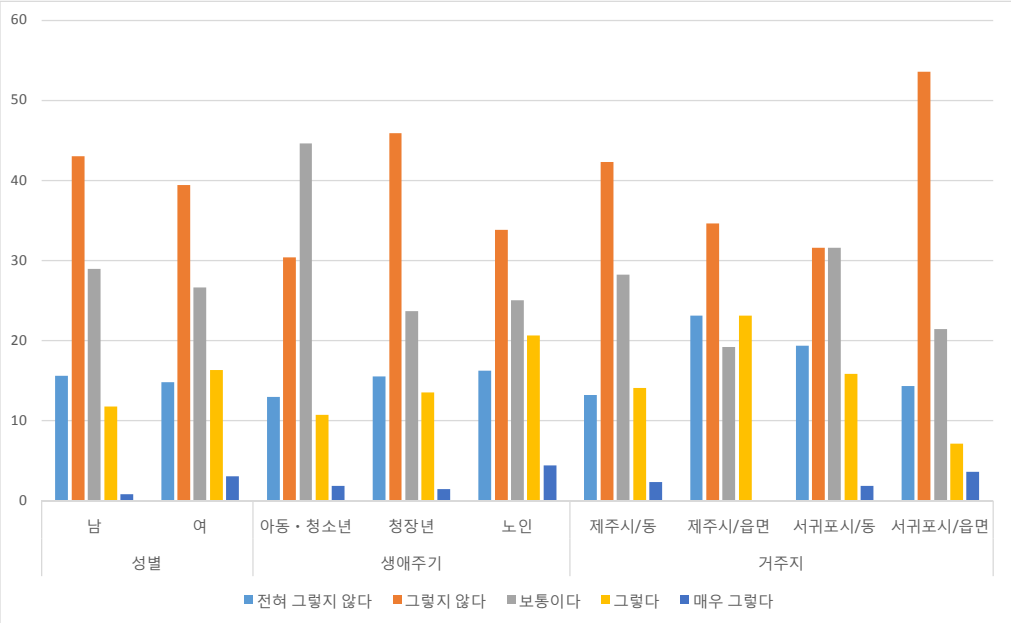
생애주기별로는 아동·청소년이 보통이다 44.6%(25명), 그렇지 않다 30.4%(17명), 전혀 그렇지 않다 12.9%(7명) 순으로, 청장년이 그렇지 않다 45.9%(95명), 보통이다 23.7%(49명), 전혀 그렇지 않다 15.5%(32명) 순으로, 노인이 그렇지 않다 33.8%(23명), 보통이다 25.0%(17명), 전혀 그렇지 않다 16.2%(11명)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제주시 동지역이 그렇지 않다 42.3%(93명), 보통이다 28.2%(62명), 그렇다 14.1%(31명) 순으로, 제주시 읍면지역이 그렇지 않다 34.6%(9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각 23.1%(6명) 순으로, 서귀포시 동지역이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각 31.6%(18명), 전혀 그렇지 않다 19.3%(11명) 순으로,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그렇지 않다 53.6%(15명), 보통이다 21.4%(6명), 전혀 그렇지 않다 14.3%(4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Ⅲ-33> 사회복지 혜택 필요 시 민간기관의 도움을 받음

(단위 : 명,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성별	남	20(15.6)	55(43.0)	37(28.9)	15(11.7)	1(0.8)	128(100.0)
	여	30(14.8)	80(39.4)	54(26.6)	33(16.3)	6(3.0)	203(100.0)
생애 주기	아동 · 청소년	7(12.9)	17(30.4)	25(44.6)	6(10.7)	1(1.8)	56(100.0)
	청장년	32(15.5)	95(45.9)	49(23.7)	28(13.5)	3(1.4)	207(100.0)
	노인	11(16.2)	23(33.8)	17(25.0)	14(20.6)	3(4.4)	68(100.0)
거주지	제주시/동	29(13.2)	93(42.3)	62(28.2)	31(14.1)	5(2.3)	220(100.0)
	제주시/읍면	6(23.1)	9(34.6)	5(19.2)	6(23.1)	0(0.0)	26(100.0)
	서귀포시/동	11(19.3)	18(31.6)	18(31.6)	9(15.8)	1(1.8)	57(100.0)
	서귀포시/읍면	4(14.3)	15(53.6)	6(21.4)	2(7.1)	1(3.6)	28(100.0)
전 체		50(15.1)	135(40.8)	91(27.5)	48(14.5)	7(2.1)	331(100.0)



[그림Ⅲ-33] 사회복지 혜택 필요 시 민간기관의 도움을 받음

(4) 민간기관의 복지서비스 이용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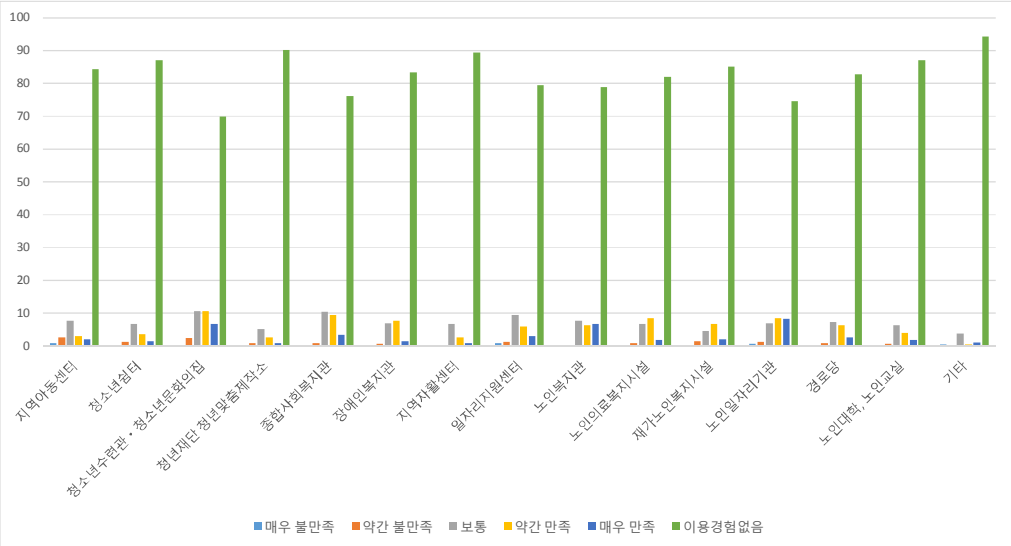
민간기관의 복지서비스 이용만족도를 기관별로 조사한 결과, ① 지역아동센터는 이용경험없음 84.3%(279명)이 가장 높게 나왔고, 이용경험이 있는 대상자들 중에서는 보통 7.6%(25명), 약간 만족 3.0%(10명), 약간 불만족 2.7%(9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② 청소년쉼터는 이용경험없음 87.0%(288명)이 가장 높게 나왔고, 이용경험이 있는 대상자들 중에서는 보통 6.6%(22명), 약간 만족 3.6%(12명), 매우 만족 1.5%(5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③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은 이용경험없음 69.8%(231명)이 가장 높게 나왔고, 이용경험이 있는 대상자들 중에서는 보통, 약간 만족 각 10.6%(35명), 매우 만족 6.6%(22명) 순으로 나타났다. ④ 청년재단 청년맞춤 제작소는 이용경험없음 90.3%(299명)이 가장 높게 나왔고, 이용경험이 있는 대상자들 중에서는 보통 5.1%(17명), 약간 만족 2.7%(9명), 약간 불만족, 매우 만족 각

0.9%(3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⑤ 종합사회복지관은 이용경험없음 76.1% (252명)이 가장 높게 나왔고, 이용경험이 있는 대상자들 중에서는 보통 10.3%(34명), 약간 만족 9.4%(31명), 매우 만족 3.3%(11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⑥ 장애인복지관은 이용경험없음 83.4%(276명)이 가장 높게 나왔고, 이용경험이 있는 대상자들 중에서는 약간 만족 7.6%(25명), 보통 6.9%(23명), 매우 만족 1.5%(3명) 순으로 나타났다. ⑦ 지역자활센터는 이용경험없음 89.4%(296명)이 가장 높게 나왔고, 이용경험이 있는 대상자들 중에서는 보통 6.6%(22명), 약간 만족 2.7%(9명), 매우 만족 0.9%(3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⑧ 일자리지원센터는 이용경험없음 79.5%(263명)이 가장 높게 나왔고, 이용경험이 있는 대상자들 중에서는 보통 9.4%(31명), 약간 만족 6.0%(20명), 매우 만족 3.0%(10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⑨ 노인복지관은 이용경험없음 78.9%(261명)이 가장 높게 나왔고, 이용경험이 있는 대상자들 중에서는 보통 7.6%(25명), 매우 만족 6.6%(22명), 약간 만족 6.3%(21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⑩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이용경험없음 81.9%(271명)이 가장 높게 나왔고, 이용경험이 있는 대상자들 중에서는 약간 만족 8.5%(28명), 보통 6.6%(22명), 매우 만족 1.8%(6명) 순으로 나타났다. ⑪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이용경험없음 85.2%(282명)이 가장 높게 나왔고, 이용경험이 있는 대상자들 중에서는 약간 만족 6.6%(22명), 보통 4.5%(15명), 매우 만족 2.1%(7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⑫ 노인일자리기관은 이용경험없음 74.6%(247명)이 가장 높게 나왔고, 이용경험이 있는 대상자들 중에서는 약간 만족 8.5%(28명), 매우 만족 8.2%(27명), 보통 6.9%(23명) 순으로 나타났다. ⑬ 경로당은 이용경험없음 82.8%(274명)이 가장 높게 나왔고, 이용경험이 있는 대상자들 중에서는 보통 7.3%(24명), 약간 만족 6.3%(21명), 매우 만족 2.7%(9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⑭ 노인대학, 노인교실은 이용경험없음 87.0%(288명)이 가장 높게 나왔고, 이용경험이 있는 대상자들 중에서는 보통 6.3%(21명), 약간 만족 3.9%(13명), 매우 만족 1.8%(6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Ⅲ-34〉 민간기관의 복지서비스 이용만족도

(단위 : 명, %)

구 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이용경험없음	전 체
지역아동센터	1(0.9)	9(2.7)	25(7.6)	10(3.0)	7(2.1)	279(84.3)	331(100.0)
청소년쉼터	0(0.0)	4(1.2)	22(6.6)	12(3.6)	5(1.5)	288(87.0)	331(100.0)
청소년수련관 · 청소년문화의집	0(0.0)	8(2.4)	35(10.6)	35(10.6)	22(6.6)	231(69.8)	331(100.0)
청년재단 청년맞춤제작소	0(0.0)	3(0.9)	17(5.1)	9(2.7)	3(0.9)	299(90.3)	331(100.0)
종합사회복지관	0(0.0)	3(0.9)	34(10.3)	31(9.4)	11(3.3)	252(76.1)	331(100.0)
장애인복지관	0(0.0)	2(0.6)	23(6.9)	25(7.6)	5(1.5)	276(83.4)	331(100.0)
지역자활센터	0(0.0)	1(0.3)	22(6.6)	9(2.7)	3(0.9)	296(89.4)	331(100.0)
일자리지원센터	3(0.9)	4(1.2)	31(9.4)	20(6.0)	10(3.0)	263(79.5)	331(100.0)
노인복지관	1(0.3)	1(0.3)	25(7.6)	21(6.3)	22(6.6)	261(78.9)	331(100.0)
노인의료 복지시설	1(0.3)	3(0.9)	22(6.6)	28(8.5)	6(1.8)	271(81.9)	331(100.0)
재가노인 복지시설	0(0.0)	5(1.5)	15(4.5)	22(6.6)	7(2.1)	282(85.2)	331(100.0)
노인 일자리기관	2(0.6)	4(1.2)	23(6.9)	28(8.5)	27(8.2)	247(74.6)	331(100.0)
경로당	0(0.0)	3(0.9)	24(7.3)	21(6.3)	9(2.7)	274(82.8)	331(100.0)
노인대학, 노인교실	1(0.3)	2(0.6)	21(6.3)	13(3.9)	6(1.8)	288(87.0)	331(100.0)
기타	1(0.5)	0(0.0)	7(3.7)	1(0.5)	2(1.1)	178(94.2)	189(100.0)



[그림Ⅲ-34] 민간기관의 복지서비스 이용만족도

(5) 민간기관 복지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

민간기관 복지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부족 50.6%(167명), 사회복지 인력의 부족 13.0%(43명), 복지시설의 낮은 접근성 12.7%(42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부족 23.6%(30명), 경영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부족, 사회복지 인력의 부족 각 15.7%(20명) 순으로, 여자의 경우 복지시설의 낮은 접근성 30.8%(62명),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부족 17.9% (36명), 사회복지 인력의 부족, 사회복지 인력의 전문성 부족 각 13.4%(27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생애주기별로는 아동·청소년이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부족 55.4%(31명), 사회복지 인력의 부족 17.9%(10명), 시설의 낙후성 8.9%(5명) 순으로, 청장년이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부족 50.5%(104명), 사회복지 인력의 부족 13.6%(28명), 시설의 낙후성, 복지시설의 낮은 접근성 각 12.1%(25명) 순으로, 노인이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부족 47.1%(32명), 복지시설의 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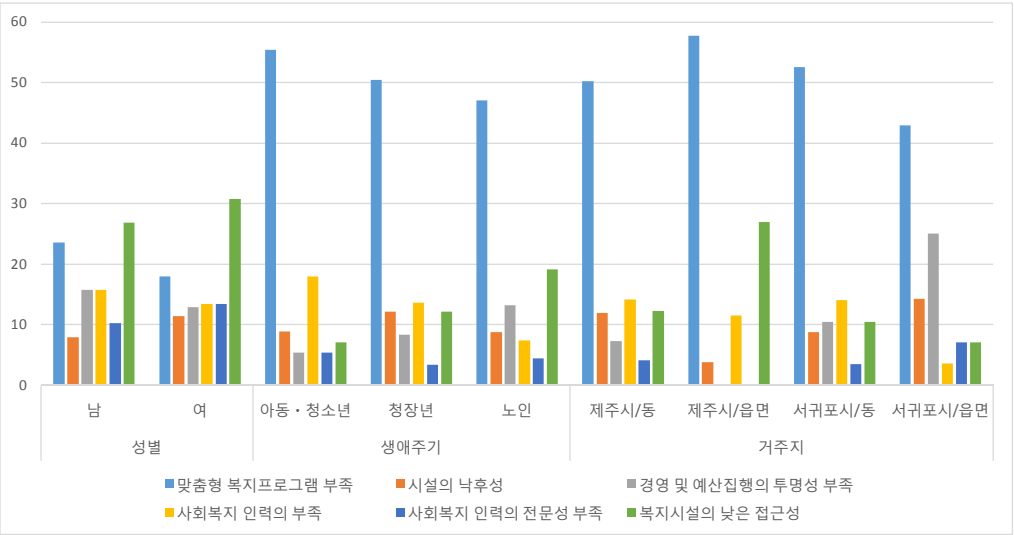
은 접근성 19.1%(13명), 경영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부족 13.2%(9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거주지별로는 제주시 동지역이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부족 50.2%(110명), 사회복지 인력의 부족 14.2%(31명), 복지시설의 낮은 접근성 12.3%(27명) 순으로, 제주시 읍면지역이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부족 57.7%(15명), 복지시설의 낮은 접근성 26.9%(7명), 사회복지 인력의 부족 11.5%(3명) 순으로, 서귀포시 동지역이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부족 52.6%(30명), 사회복지 인력의 부족 14.0%(8명), 경영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부족, 복지시설의 낮은 접근성 각 10.5%(6명) 순으로,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부족 42.9%(12명), 경영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부족 25.0%(7명), 시설의 낙후성 14.3%(4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35> 민간기관 복지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

(단위 : 명, %)

구 분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부족	시설의 낙후성	경영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부족	사회 복지 인력의 부족	사회 복지 인력의 전문성 부족	복지시설의 낮은 접근성	전 체
성별	남	30(23.6)	10(7.9)	20(15.7)	20(15.7)	13(10.2)	34(26.8)	128(100.0)
	여	36(17.9)	23(11.4)	26(12.9)	27(13.4)	27(13.4)	62(30.8)	202(100.0)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31(55.4)	5(8.9)	3(5.4)	10(17.9)	3(5.4)	4(7.1)	56(100.0)
	청장년	104(50.5)	25(12.1)	17(8.3)	28(13.6)	7(3.4)	25(12.1)	206(100.0)
	노인	32(47.1)	6(8.8)	9(13.2)	5(7.4)	3(4.4)	13(19.1)	68(100.0)

구 분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부족	시설의 낙후성	경영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부족	사회복지 인력의 부족	사회복지 인력의 전문성 부족	복지시설의 낮은 접근성	전 체
거주지	제주시/동	110(50.2)	26(11.9)	16(7.3)	31(14.2)	9(4.1)	27(12.3)	219(100.0)
	제주시/읍면	15(57.7)	1(3.8)	0(0.0)	3(11.5)	0(0.0)	7(26.9)	26(100.0)
	서귀포시/동	30(52.6)	5(8.8)	6(10.5)	8(14.0)	2(3.5)	6(10.5)	57(100.0)
	서귀포시/읍면	12(42.9)	4(14.3)	7(25.0)	1(3.6)	2(7.1)	2(7.1)	28(100.0)
전 체		167(50.6)	36(10.9)	29(8.8)	43(13.0)	13(3.9)	42(12.7)	330(100.0)



[그림Ⅲ-35] 민간기관 복지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

7) 향후 사회보장 정책의 방향

(1) 바람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개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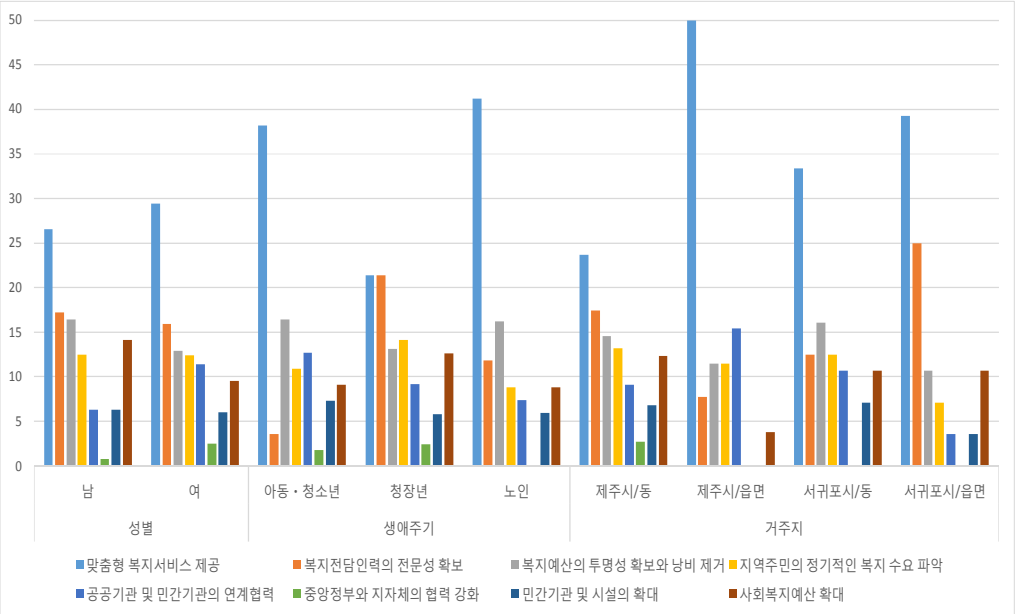
바람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개선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28.3%(93명), 복지전담 인력의 전문성 확보 16.4%(54명), 복지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낭비 제거 14.3%(47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26.6%(34명), 복지전담 인력의 전문성 확보 17.2%(22명), 복지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낭비 제거 16.4%(21명) 순으로, 여자의 경우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29.4%(59명), 복지전담 인력의 전문성 확보 15.9%(32명), 복지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낭비 제거 12.9%(26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생애주기별로는 아동·청소년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38.2%(21명), 복지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낭비 제거 16.4%(9명),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연계협력 12.7%(7명) 순으로, 청장년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복지전담 인력의 전문성 확보 각 21.4%(44명), 복지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낭비 제거 13.1%(27명) 순으로, 노인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41.2%(28명), 복지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낭비 제거 16.2%(11명), 복지전담 인력의 전문성 확보 11.8%(8명)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제주시 동지역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23.7%(52명), 복지전담 인력의 전문성 확보 17.4%(38명), 복지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낭비 제거 14.6%(32명) 순으로, 제주시 읍면지역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50.0%(13명),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연계협력 15.4%(4명), 복지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낭비 제거, 지역주민의 정기적인 복지수요 파악 각 11.5%(3명) 순으로, 서귀포시 동지역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33.4%(17명), 복지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낭비 제거 16.1%(9명), 복지전담 인력의 전문성 확보, 지역주민의 정기적인 복지수요 파악 각 12.5%(7명) 순으로,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39.3%(11명), 복지전담 인력의 전문성 확보 25.0%(7명), 복지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낭비 제거, 사회복지 예산 확대 각 10.7%(3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Ⅲ-36〉 바람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개선사항

(단위 : 명, %)

구 분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복지 전담 인력의 전문성 확보	복지 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낭비 제거	지역 주민의 정기적인 복지 수요 파악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연계 협력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강화	민간기관 및 시설의 확대	사회복지예산 확대	전 체
성별	남	34(26.6)	22(17.2)	21(16.4)	16(12.5)	8(6.3)	1(0.8)	8(6.3)	18(14.1)	128(100.0)
	여	59(29.4)	32(15.9)	26(12.9)	24(12.4)	23(11.4)	5(2.5)	12(6.0)	19(9.5)	201(100.0)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21(38.2)	2(3.6)	9(16.4)	6(10.9)	7(12.7)	1(1.8)	4(7.3)	5(9.1)	55(100.0)
	청장년	44(21.4)	44(21.4)	27(13.1)	29(14.1)	19(9.2)	5(2.4)	12(5.8)	26(12.6)	206(100.0)
	노인	28(41.2)	8(11.8)	11(16.2)	6(8.8)	5(7.4)	0(0.0)	4(5.9)	6(8.8)	68(100.0)
거주지	제주시/동	52(23.7)	38(17.4)	32(14.6)	29(13.2)	20(9.1)	6(2.7)	15(6.8)	27(12.3)	219(100.0)
	제주시/읍면	13(50.0)	2(7.7)	3(11.5)	3(11.5)	4(15.4)	0(0.0)	0(0.0)	1(3.8)	26(100.0)
	서귀포시/동	17(33.4)	7(12.5)	9(16.1)	7(12.5)	6(10.7)	0(0.0)	4(7.1)	6(10.7)	56(100.0)
	서귀포시/읍면	11(39.3)	7(25.0)	3(10.7)	2(7.1)	1(3.6)	0(0.0)	1(3.6)	3(10.7)	28(100.0)
전 체		93(28.3)	54(16.4)	47(14.3)	41(12.5)	31(9.4)	6(1.8)	20(6.1)	37(11.2)	329(100.0)



[그림Ⅲ-36] 바람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개선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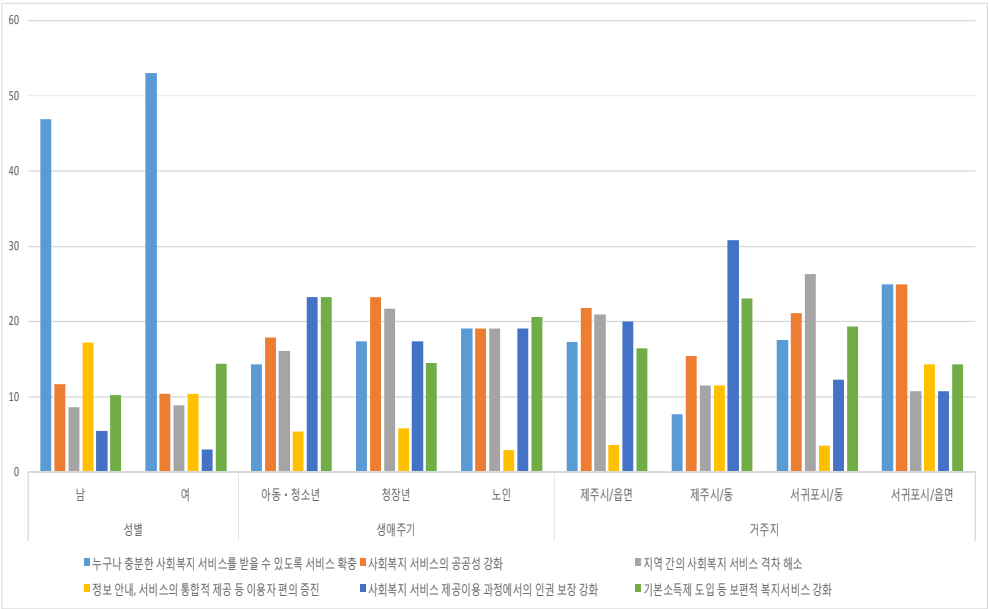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21.5%(71명), 지역 간의 사회복지 서비스 격차 해소 20.2%(67명),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이용과정에서의 인권 보장 강화 18.7%(62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누구나 충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확충 46.9%(60명), 정보 안내,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등 이용자 편의 증진 17.2%(22명),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11.7%(15명) 순으로, 여자의 경우 누구나 충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확충 53.0%(107명), 기본소득제 도입 등 보편적 복지서비스 강화 14.4%(29명), 정보 안내,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등 이용자 편의 증진,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각 10.4%(21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생애주기별로는 아동·청소년이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이용과정에서의 인권 보장 강화, 기본소득제 도입 등 보편적 복지서비스 강화 각 23.2%(13명),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17.9%(10명) 순으로, 청장년이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23.2%(48명), 지역 간의 사회복지 서비스 격차 해소 21.7%(45명), 누구나 충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확충,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이용과정에서의 인권 보장 강화 각 17.4%(36명) 순으로, 노인이 기본소득제 도입 등 보편적 복지서비스 강화 20.6%(14명), 누구나 충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확충,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지역 간의 사회복지 서비스 격차 해소,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이용과정에서의 인권 보장 강화 각 19.1%(13명)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제주시 동지역이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21.8% (48명), 지역 간의 사회복지서비스 격차 해소 20.9%(46명),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이용과정에서의 인권 보장 강화 20.0%(44명) 순으로, 제주시 읍면지역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이용과정에서의 인권 보장 강화 30.8%(20명), 기본소득제 도입 등 보편적 복지서비스 강화 23.1%(6명),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15.4%(4명) 순으로, 서귀포시 동지역이 지역 간의 사회복지서비스 격차 해소 26.3%(15명),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21.1%(12명), 기본소득제 도입 등 보편적 복지서비스 강화 19.3%(11명) 순으로,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누구나 충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확충,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25.0%(7명), 정보 안내,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등 이용자 편의 증진, 기본소득제 도입 등 보편적 복지서비스 강화 14.3%(4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Ⅲ-37〉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 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단위 : 명, %)

구 분		누구나 충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확충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지역 간의 사회복지 서비스 격차 해소	정보 안내,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등 이용자 편의 증진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이용 과정에서의 인권 보장 강화	기본소득제 도입 등 보편적 복지서비스 강화	전 체
성별	남	60(46.9)	15(11.7)	11(8.6)	22(17.2)	7(5.5)	13(10.2)	128(100.0)
	여	107(53.0)	21(10.4)	18(8.9)	21(10.4)	6(3.0)	29(14.4)	203(100.0)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8(14.3)	10(17.9)	9(16.1)	3(5.4)	13(23.2)	13(23.2)	56(100.0)
	청장년	36(17.4)	48(23.2)	45(21.7)	12(5.8)	36(17.4)	30(14.5)	207(100.0)
	노인	13(19.1)	13(19.1)	13(19.1)	2(2.9)	13(19.1)	14(20.6)	68(100.0)
거주지	제주시/동	38(17.3)	48(21.8)	46(20.9)	8(3.6)	44(20.0)	36(16.4)	220(100.0)
	제주시/읍면	2(7.7)	4(15.4)	3(11.5)	3(11.5)	8(30.8)	6(23.1)	26(100.0)
	서귀포시/동	10(17.5)	12(21.1)	15(26.3)	2(3.5)	7(12.3)	11(19.3)	57(100.0)
	서귀포시/읍면	7(25.0)	7(25.0)	3(10.7)	4(14.3)	3(10.7)	4(14.3)	28(100.0)
전 체		57(17.2)	71(21.5)	67(20.2)	17(5.1)	62(18.7)	57(17.2)	331(100.0)



[그림Ⅲ-37]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 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2. 전문가 초점집단면접 결과

1) 조사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현황 및 향후 방안’에 관한 의견조사를 위하여 청소년, 청년, 장년, 노인 분야의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초점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초점집단면접 참여자는 모두 7명으로 청소년 관련기관, 청년 관련기관, 장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 지역사회복지관 각 1명, 노인 관련기관 2명으로 구성하였다.

<표Ⅲ-38> 초점집단면접조사 참여자 특성

구분	성별	소속
사례1	여	청소년관련기관
사례2	여	노인관련기관
사례3	여	장애인관련기관
사례4	여	지역사회복지관
사례5	남	노인관련기관
사례6	남	장년관련기관
사례7	여	청년관련기관

면접조사 내용은 제주도에서 사회보장이 가장 잘 되고 있는 생애주기, 개입이 시급한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청장년, 노인 분야별 가장 중요한 문제와 해결방안 등으로 구성하였고 자유롭게 의견을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초점집단면접은 사전에 연구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질문내용을 공유한 후 1회 진행하였고 면접 내용 녹취 후 전사본을 만들어 내용을 분석하였다.

2) 전문가 초점집단면접 분석 결과

전문가 초점집단면접 결과 여러 생애주기 중 사회보장이 잘 되고 있는 생애주기와 개입이 필요한 생애주기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아동·청소년, 청장년, 노인 분야별로 중요한 문제와 필요한 정책을 도출할 수 있었다.

(1) 사회보장이 잘 되고 있는 생애주기

사회보장이 잘 되고 있는 생애주기로는 아동·청소년, 특히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이 잘 되고 있다는 의견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정책이 잘 이루어졌다는 의견이 있었다.

① 아동·청소년의 사회보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특히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동과 관련하여 아동수당, 아이돌보미 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고 지역사회보장계획 내에도 아동에 대한 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업 외에도 제주에서 특화사업으로 지원하는 수눌음 육아나눔터 등 사회보장제도들이 있었다.

우선 저는 아동·청소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저는 현장에서 뛰다 보니까 장애가정이라든지 장애아동을 만나거나 하면 아동 같은 경우에는 연결할 자원들이 아주 많아요. 교육자원도 있고 사회복지 관련한 것도 많고 아동센터라든지, 학교 등등 자원들이 많아서 사례관리를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자원연계가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사회보장이 잘 된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 외의 영역에는 저희도 자원을 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하기 때문에 제주시 보장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봤더니 아동은 9개 영역이 보장계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아동과 관련된 사회보장은 되게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사례3)

저는 가장 잘되고 있는 생애주기는 아동·청소년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아동 영역이라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아동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누리과정이라던가 또 가정에서 교육을 하면 가정양육수당이라는 부분들이 따로 또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도 실질적으로 청년과 아동,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을 많이 상대를 하다 보니깐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수혜를 본 게 아동이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동 수당도 받고 계시고 그리고 아동의 영역은 단순히 수당의 영역을 넘어서서 제주 같은 경우에는 수눌음육아나눔터라든가 육아지원센터라든가 아이돌봄서비스라든가 이런 체계들이 잘 되어 있고 또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 외에 따로 제주에서 지원해주는 영역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사례7)

② 노인의 사회보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

노인에 대한 사회보장정책들이 매우 많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중복해서 제공되는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어 사각지대에 대한 대안도 마련이 되어야 함이 제기되었다. 한정된 예산에서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사회보장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이 필요하다.

저는 정책적으로 잘 되어 있는 부분은 노인. 코로나로 인해 취약한 분야가 노인이다 생각을 하는데. 노인 정책이 너무 많아요. 진짜 일자리 분야도 그렇고 노인 일자리 정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일자리를 하려고 하는 사람에 비해 가지고 공급에 비해 수요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일자리, 시니어 클럽에서 어른들은 이제 싸우고 있어요. 수행기관에서 그리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 지금 저희도 복지관에서 최소한 삼백짜리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요번에 코로나 생기면서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거주지에 있는 어르신이나 그러신 분들한테 더 혜택을 줬으면 좋겠는데 일자리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그거를(급여를) 받는데 또 상품권이 플러스알파 해서 내려와요. 국가에서. 근데 일자리 하시는 어르신들은 그걸 '안 받겠다. 그냥 현금만 줘라.' 그래 가지고 이제 수요조사를 다 했는데 만약 우리 복지관에서 300명 중에서 '27만원만 받겠습니까. 현금으로.' 아니면 상품권으로 받게 되면 현금은 18만원 주겠지만 상품권에서 더 플러스해서 많이 주니깐 4개월 동안 나가니깐 이렇게 모아주면

은 몇 십만원 되니깐 나중에 쓸 수 있는데 아무도 안 받고 300명 중에서 6명이 받는다는 거예요. (후략)(사례2)

가장 잘 되고 있는 생애주기는 노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여러 부류의 대상을 보는데 노인정책이 꽤 많아요. 정말 많고 일자리라든가 일자리는 정말 많은 기관에서 하고 많은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지 않고 그 안에서는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고 그러한 사각지대를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사례4)

(2) 개입이 필요한 생애주기

개입이 시급하게 필요한 생애주기에서는 청장년에 대한 사회보장이 필요함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였고 노인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① 청장년 정책이 필요함

청장년, 특히 장년에 대한 정책이 부족함이 지적되었다. 청장년은 생애주기상 가운데에 위치한 세대(낀세대)이므로 가정 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는 데에도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청장년이 사회에서 일을 계속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정 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회안전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혼율이 전국 1위인 제주지역의 특성상 이혼가정의 경우 부모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고 사회보장에서도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주로 일자리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이것이 실효성 있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맥락으로 경력개발과 구직활동 중 안정된 생활자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저는 가장 시급한 부분은 청장년이 아닌가. (중략) 이제는 실업률이 낮아지니깐 청장년 쪽에 막 일자리를 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지만. 왜냐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이유가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1차 산업 위주. 거의 뭐 큰 기업이 없잖아요.(사례2)

청장년층은 너무 범위가 많기 때문에 아예 더 서비스를 연계하고 어떤 기관에 연계를 해야 할지 저희들은 솔직히 현장에 있으면 막막한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같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봐도 청장년층은 하나도 없었

어요.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보장영역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아예 고민조차 하고 있지 않는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청장년층이 가장 개입이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사례3)

가장 시급한 데는 청장년층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저는 저출산 문제가 아동의 문제가 아니라 청장년층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중략) 제주도의 문제를 생각했을 때 제주도가 오명이 있잖아요. 이혼율 1위라는 거. 이혼율 1위라는 게 장년층의 청장년층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책에서 이혼율 1위에 대한 정책은 거의 없는 실정에서 이 부분들을 위한 우리가 사각지대나 저소득층을 이렇게 보면 원인을 들여다봤을 때 이혼이 원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혼으로 인해서 가정이 해체되고 가정해체가 그러겠지만 그거를 뭔가 해줄 수 있는 정책이 물론 수급자 신분이 되고 뭐가 되고 이렇게 되긴 하겠지만 그를 메꿀 수 있는 거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청장년층 문제가 또 뭐냐면, 일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를 모시다가 우리가 갑자기 병으로 이게 지역사회가 이 아버지를 맡아서 케어를 해주면 청장년층은 그대로 삶을 유지하는데 이거를 자식이든 손자든 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를 해버리면 또다시, 또 다른 가난을 대물림이 돼버리는 거예요. 현상이 계속 발생이 되거든요. 가난 대물림이 계속 이어지는 거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가 사례관리를 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족의 문제가 부모가 아프거나 사례관리하다 보면 이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봤을 때 지역사회가 할 수 있는 한 이들의 삶을 보장해주는 유지를 해주고 지역사회가 할 수 있는 도리는 지역사회가 해줘야 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그래서 어쩌면 청장년층을 위한 정책이 좀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사례4)

청장년이 가장 힘들고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 "낀 세대"이잖아요. 노인을 모셔야 되고 자녀를 부양해야 되고 그런 복지의 책임이 국가와 사회가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가정 내에서 할 수밖에 우선이 되어야 하고 중장년이 무너지면 전체적으로 아들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해체가 되고 무너져서 구체적으로 유지되기 힘들다. 그래서 청장년이 어쨌든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보면은 지금 45세, 50세쯤에 제주도의 인구 기준으로 보면 여기

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30대 초반 이 부분은 낮게 나타나고. 이런 걸 봐도 위기상황에 놓여있기도 하고 인구도 많고 요즘은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위기가정들이 많이 있다 보니 혼자 사는 가정들도 많이 생겨나가고 그것은 결국 그분들에 대한 개입이나 서비스가 필요한데 이거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사례5)

일자리의 중심이 돼서 그래서 일단은 저도 가장 시급한 문제는 청장년층이라고 생각해요. (중략) 사실 청년창업을 지원해주는 편이에요.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분들이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떻게 보면 중추에 계신, 허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일자리 부분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에요. 중·장년 쪽이. 제주도의 사업으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대표적으로 청년 3종 세트예요. 취업희망 프로젝트 그다음에 재형저축, 보금자리 마련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중장년도 작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중략) 그래서 중장년도 사실상 실업을 하고 재취업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청년보다 더 무언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에요. '내가 실업을 했다.' 그러면 당장에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업을 한 상태에서 내가 뭔가 자기 계발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보통의 중장년들은 가정도 있을 거란 말이죠. 생계를 위해서 뭔가를 빠르게 다시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런 지원 없이는 말 그대로 정말 시간이 급해서 본인이 맞지 않는 그리고 고용시장 자체도 열약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저 그렇게 취업을 하신 다음에 이직을 하시고 경력관리가 전혀 안되시는...
중장년도 취업 전으로 지원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취업 후 인건비 지원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다음에 이 중장년층분들이 새롭게 취업을 해서 고용이 가장 오래 유지가 되었을 때, 지속적으로 되었을 때 지속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필요하지 않을까.(사례6)

② 노인 정책이 필요함

노인에 대한 사회보장이 잘 이루어져 있으면 아래 세대인 청장년이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일자리에만 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삶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제 가장 시급한 생애주기는 '노인' 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략)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청년들이 노인세대가 됐을 때는 지금의 노인세대가 받는 복지서비스나 임금의 서비스, 임금의 질, 노동의 질 이러한 부분들이 확연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근무의 연수나 이런 부분들도 취업이 늦어지면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가장 개입이 시급한 거는 청년보다도 노인 쪽에 개입이 시급하지 않나라고...
(중략) 실질적으로는 노인에 대한 영역들을 좀 더 시급하게 개입을 해 나아가야 나중에 조금 더 준비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더...(사례7)

(3) 생애주기별 중요한 문제와 해결방안

아동·청소년, 청장년, 노인 생애주기별 중요한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도 들을 수 있었다. 각 생애주기별로 특정된 문제가 제시되기도 했지만 전 생애주기에 걸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① 아동·청소년에게 중요한 문제

아동·청소년에게 중요한 문제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과 가정 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아동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사회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사회보장이 펼쳐져야 한다.

청소년 쉼터에 입소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던지 자립, 진로 체험이라던가 다양한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청소년 수련시설이라거나 (청소년)문화의 집을 청소년들이 이용하려고 하면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많고 또 대기도 많고 하다 보니깐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연령이 비슷하지 않고 하다 보니깐 올해 청소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조사해보니깐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는데 제주도에는 그런 곳이 많지가 않아요. 활동할 수 있는 곳도 없고. 그래서 체육 관련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수련시설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한정되어 있어요. 위험하다고 해서 또 안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없다 보니 해소할 수 있는 곳도 없고 그런 걸 우리 쉼터 내에서는 하고자 하지만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그 외의 청소년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센터가 조금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더라고요.(사례1)

저는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집에만 있는 상황이잖아요. 청소년수련관에 가면 탁구장 있고 포켓볼장 있고 그런데 좀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곳도 없고 가면 너무 대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청소년수련관에. 솔직히 청소년들은 자기 돈 내서 가는 거는 좀 꺼려하고 뭔가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곳을 찾게 되거든요. 어쨌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으로 가게 되는데 가게 되면 정말 찾아서 갈 만한 곳이 없다는 거. 근데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 안에서만 들어가고 컴퓨터 게임만 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해서 저는 애들이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시내에 많이 만드는 게 어찌 보면 애를 외부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의외로 그게 잘 안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우리 아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학교에서 지원하는 예를 들어, 서핑보드 체험을 가든지, 서바이벌 체험활동을 애들끼리 모아서 가는 거예요. 그게 애들 엄청 많이 지원을 하는 거. 그러니깐 애들이 잘 체험하지 못하잖아요. 누가 같이 데려가서. 근데 또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원 그런 데서 모아가면 애들은 잘 못 가는. 학교에서 하면 자기 학교 소속이니깐 정보도 많이 알게 되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깐 또 그런 걸 많이 참여하게끔 되더라고요. 주말에 애들이 또 그런 거 참여하게 되니깐 집에서 컴퓨터 게임 안 할 것이고. 지역사회 공간을 많이 마련하고 학교에서는 지원을 해서 주말에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애들이 활동할 수 있게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사례3)

보편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취약계층의 아이들, 어려운 가정들의 아이들을 보다 보니깐 대부분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한부모나 조부모 가정 아이들이거든요. '그 아이들을 위한 뭔가에 좀 더 촘촘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복지관에서 야간 보호 사업을 하는데 한정된 인원은 2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대기가 많고 그에 따른 예산은 사실 시에서는 안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아이들의

문제는 뭉뚱그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뭔가를 사례관리를 하고 이 아이들을 위한 뭔가가 돼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의 생각 입장에서는 이제 저소득 아이들을 대상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그 가정의 아이들, 이혼가정 아이들, 조부모나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좀 더 보살필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었으면..(사례4)

② 청장년에게 중요한 문제

청장년에게 중요한 문제로는 1인 가구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었고 새로운 직업을 구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점이 제기되었다. 청장년이 실업상태일 때 단계별로 지원하는 촘촘한 사회보장이 필요하다.

중장년 했을 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있잖아요. 남자고 한 가정을 책임졌던 사람이고 이제 50대를 넘어가다 보면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도 그렇고 청년은 주위에서 다 인정해주고 '새로운 거 해라. 그래그래 요즘 다 어려우니깐 이거 해서 안되면 그래도 또 해라.' 그렇게 하지만 아이들도 있고 이제 가정을 책임졌던 사람이 한 번 이렇게 실직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그쪽에 찾아가는 것부터가 힘들거든요. 있다는 거 알아도.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끄집어내느냐. 서귀포 같은 경우에도 혼자 사는 중년층, 혼자 사시는 분들이 돌아가시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방문해서 예전에는 어르신들 원스톱이라고 혼자 사시는 분들 안부 묻는 것이었는데 중장년층들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중장년층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많이 대두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집에서 못 나오는 거죠. 자신도 없고 자기가 아파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이제 4대보험도 안 되는 곳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뒀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하루하루 일하는 자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하다 보면은 이제 포기해버리는 거죠. 집에서 그런 분들은 혼자 돌아가시는 분들 봐보니깐 식사를 안 한 거는 이제 기본이고 술만 먹다가 아예 나오지도 않고 아파트 내에서도 젊은 사람이 살았던 곳이니깐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우리도 대부분이 혼자 노인이 살고 있으면 저기 할머니가 요즘 안보이시지? 이렇게 하지만 남자 50대 건장한 분이 사시는데 젊은 분이 사시는구나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죠.(사례2)

1인 가구가 확대되고 있거든요. 일자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청장년 1인 가구에 대한 보장 제도가 시급한 시점이 아닌가.
직업능력개발 배움 카드 있잖아요. 그거 보면 제과제빵, 바리스타, 컴퓨터 되게 단순해요.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근데 이런 거는 종목을 확대할 수 없는 거예요? 배움 카드 뭔가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건데 너무 단순한 거예요.(사례3)

저희가 1인 대상(중장년)으로 주소나 연락처를 받지를 못해요. 개인정보 때문에 받지를 못해서 개인정보를 무시하고 받는다면 우리가 다 방문하고 인테이크하고 이 과정을 거칠 텐데. 만약 이 사람이 퇴직을 했다, 이게 아까 단계별로 퇴직 시부터 취업 시까지 이 사람에 대한 생애에 대해서 그게 가능한데 그러지를 못하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동하고 얘기하면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1인 중장년 대상으로 이러이러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십시오 해서 안내문을 다 발송했는데 연락이 온 사람이 두 명이예요. 본인이 그런 의지, 연락이 와야 방문을 해서 뭔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고독사나 이렇게 발견이 되는 사례가 많고, 그리고 알코올홀릭 처음부터 알코올 홀릭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단계별로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사례4)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든 분도 있지만 찾아가서 보면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막 어려워하기보다는 1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어딘가에 가정해체가 되거나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이렇다는 얘기거든요. 이분들을 새로 일으켜 드리려고 하면 심리정서적으로 뭔가를 지원하고 상담을 통해서 뭔가를 나오게 하고 안내하고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사례5)

재정 지원 이전에 재정 지원받으시는 분들에 패키지 프로그램을 한다면 심리치료라든지 정서치료라든지 같이 들어가면 훨씬 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나아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만약에 이런 사업이 보장이 된다면...(사례6)

③ 노인에게 중요한 문제

노인과 관련한 범죄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고 노인들이 한 곳에서 어려움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정보가 정리되고 노인의 어려움을 들여다볼 수 있는 노인전문상담센터가 필요하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기대수명도 연장되고 있어 연령별로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경로당이 필요할 것이다.

신문에서 노인 범죄율이 아주 높아지고 있다고. 물론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깐 그거에 따라서 비율도 높아지기도 하겠지만 65세 이상 노인 범죄율이 월등히 높다고. 그에 따른 후속대책도 있었으면 좋겠다...(사례4)

노인 쪽은 사실은 여러 가지 복지 콘텐츠들을 정리하는 게 필요할 거 같아요.
노인분도 사실은 60세, 65세 되면 그 이후는 항상 노인이에요. 건강하신 분이든, 아프신 분이든, 어떤 분이든 간에 이것도 사실은 기능 정도에 따라서 그 제공할 수 있는 복지나 궁금해서 하고 60세, 65세분들이 경로당을 이용한다고 하면 이용할 거 같잖아요. 젊으신 노인분들은 잘 안 가세요. 그러기 때문에 마을에 경로당 하나 있으면 사실은 연세 드신 분들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서 소규모 경로당에 지금 어린이집 있는 거처럼 소규모 경로당이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경로당에 찾아가서 그렇게 하면 어르신들이 집에만 있지 않고 좀 나갈 수도 있고 집에 있다 보면 우울, 제주도에 있는 노인분들이 어떤 자살률이 높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완화를 할 수 있고 가정에서 조금 더 나올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장년층에 대한 심리정서지원도 중요하고 노인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될지 모르나 가족도 찾아오지 않고 몸이 건강하다 하지만 점점 악화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장애를 겪게 되고 직장도, 과거에 있던 명예나 다 사라지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모두 다 떠안고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노인 전문 상담센터가 한 곳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사례5)

④ 생애주기와 관계없이 나아가야 할 방향

생애주기별로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각각 나누어 지적하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보장정책들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정리하고 많은 도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애주기별로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일자리 창출사업이라 하면 기간은 다르지만 중복으로 이중으로 사업들이 많고 정리가 안 돼 있는 게 있는 거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들을 한눈에 띌 수 있도록 간략하게 어떠한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런 걸 알 수 있도록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중략) 현재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다양한 좋은 사업이 많은데 근데 그러면 조금 메시지라던가 안내를 해주거나 아니면 종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어플를 통해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사업이 있는데 소개를 해주면 그런 사업들이 있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청소년 분야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는데 애들이 정말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선생님들을 찾아서 방문하면 이런 혜택이 학교에서도 선생님들도 잘 모르세요. 이런 학교에 안내해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사례1)

생애주기별이라고 하면 어쨌든 노인, 장애인, 아동 이렇게 단절된 어떤 서비스가 연결되고 그 시기에 청장년이 되면, 노인이 되면 그에 맞는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복지정도만이라도 그분들에게 우리가 정확하게 아까 여러 가지 정책들을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하고 있는 것만이라도 정확하게 안내하고 상담을 해서 준비를 시켜주는 것도 중요한데 정책은 막 많이 하는데 수요자는 없다 하고 하는 것처럼 비슷하지 않을까. 도에서 정하고 만약에 조금 더 나아간다면 누군가가 생애설계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설계를 하고 그에 맞춰서 복지정책을 새로 막 만들어내고 서비스라는 것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 지금 현재 꾸려져 있는 각각의 복지들을 단편적으로 제공될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연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게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아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내지는, 취업하면 내지는, 중장년 돼서 정년퇴임을 하면, 노인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을 적극적으로 안

내를 해서 할 수 있게 그리고 미리 준비를 시켜주는 게 필요하다고... 모르고 이용 못하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통합된 뭐 시범 사업하고 있는 중복을 예방하기,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로 시스템을 만든다는 건데 그것 또한 어찌 보면 단절되어 있는 거잖아요. 장애인과 노인식으로, 예를 들면.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하나의 틀 안에서 만약 관리·조정하는 센터가 없다면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설치가 돼서 컨택해서 본인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제주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중복도 방지하고 연속적으로 낼 수 있게 하고 우리가 몰랐던 이런 것들. 아까 얘기한 장년을 위한, 실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위한 서비스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올리고 또 컨택해서 찾아서 볼 수 있게 하는 게 준비가 돼서 시내 곳곳에 설치해서 해놓으면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크게 돈을 안 들여도 개발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만 되면 그것만이라도 해놓으면 제주도에서 우리가 같은 예산으로 하고 있는 복지 서비스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고 효율적으로 찾아서 이용도 할 수 있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그니깐. 좀 아쉬운 부분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니깐 보편적 사회에서 누구나 제주도에 살면 제주도민이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어떤 건지 확인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은 분야에 노인, 장애인, 아동 이렇게 단절되고 그렇게 된 부분들을 전체로 하나 묶어서 하면 좋겠다는 얘기인 거죠.(사례 5)

3. 제주특별자치도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에 대한 SWOT분석

제주도의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의 복지공급자원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 연구의 제주시·서귀포시 지역주민 설문조사 및 FGI결과와 기존에 조사된 제주시·서귀포시 복지자원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생애주기와 사회보장자원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인에 대한 SWOT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Ⅲ-39> 제주특별자치도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에 대한 SWOT분석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아동영역의 보육료 지원 ▸아동관련 돌봄 센터 보유 (수눌음육아나눔터, 아이돌봄서비스 등) ▸아동·청소년과 노인 서비스연계가 용이 ▸청장년 취업 예산 투입이 높음 (자기계발비, 취업 후 인건비 지원, 더큰내일센터 등) ▸내부역량이 강함(제주특별자치도 권한) ▸인구대비 사회복지시설이 많은 비율 차지	▸복지예산이 편중(아동·청소년, 노인) ▸지역적 특색으로 인한 직업군의 편중 ▸노인정책 공급과 수요 불일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문제 ▸청장년층 기준선 미흡으로 연계의 어려움 ▸복지서비스 중복, 누락 및 사각지대 발생 ▸복지정책의 정보공유 미흡 ▸서비스등록 자격 제한으로 인한 어려움 ▸복지시설(노인)이 편중으로 이용의 어려움 ▸통합적 복지시스템의 부재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취·창업/청년창업 우선 지원사업 (취업희망 프로젝트, 재형저축(근로자 재산형성 저축), 보금자리 마련 등)) ▸중앙정부와의 관계개선을 통한 기회 마련 ▸지역적 특화 서비스의 창출 가능성 ▸제주특별자치도 생애주기별 서비스 조례의 제정	▸코로나(천재지변)로 인한 청년고용율의 낮음 ▸청장년의 높은 이혼율 ▸빈곤 세대 간의 전이 ▸중장년 고용시장의 열악으로 인한 경력단절 ▸기본소득의 최하위(평균임금) ▸생활임금 및 주거비용의 최상위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 발생 (고독사, 알콜중독, 우울, 자살 등) ▸지역의 노인인구 비율 증가

○ SWOT 분석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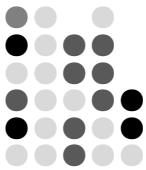
- 첫째, 제주특별자치도의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의 강점요인은 아동영역의 보육료지원, 아동관련 돌봄 센터 보유(수눌음육아나눔터, 아이돌봄서비스 등), 아동·청소년과 노인 서비스연계가 용이, 청장년 취업 예산 투입이 높음(자기계발비, 취업후 인건비지원, 더큰내일센터 등), 내부역량이 강함(제주특별자치도 권한), 인구대비 사회복지시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둘째, 제주특별자치도의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의 약점요인은 복지예산이 편중(아동·청소년, 노인), 지역적 특색으로 인한 직업군의 편중, 노인정책 공급과 수요 불일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문제, 청장년층 기준선의 미흡으로 연계의 어려움, 복지서비스 중복, 누락 및 사각지대 발생, 복지정책의 정보공유 미흡, 서비스등록 자격 제한으로 인한 어려움, 복지시설(노인)이 편중으로 이용의 어려움, 통합적 복지시스템의 부재하다.
- 셋째, 제주특별자치도의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의 기회요인은 취·창업/청년창업우선지원사업(취업희망프로젝트, 재형저축(근로자재산형성저축), 보금자리마련 등)), 중앙정부와의 관계개선을 통한 기회마련, 지역적 특화 서비스 창출 가능성, 제주특별자치도 생애주기별 서비스 조례의 제정을 들 수 있다.
- 넷째, 제주특별자치도의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의 위협요인은 코로나(천재지변)로 인한 청년고용율 낮음, 청장년의 높은 이혼율, 빈곤 세대 간의 전이, 중장년 고용시장의 열악으로 인한 경력단절, 기본소득 최하위(평균임금), 생활임금 및 주거비용 최상위, 1인 가구 증가로 사회문제 발생(고독사, 알콜, 우울, 자살), 지역의 노인인구 비율 증가를 들 수 있다.

○ 이에 본 연구에서의 최종 결론과 제언을 도출하기 위해 SWOT 분석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방안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 첫째, 강점요인을 살리고 기회요인을 활용한 전략으로 생애주기별 사회복지

서비스연계가 용이한 점을 살려 중앙정부와의 관계개선을 통한 기회를 마련하고 특히 우리 지역에 맞는 지역적 특화 서비스 창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 둘째, 제주특별자치도의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의 약점요인을 줄여 기회요인을 활용한 전략으로 노인정책 공급과 수요 불일치로 인한 복지서비스의 중복 및 사각지대 발생 해소를 위해 복지정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 복지시스템 구축과 지역적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생애주기별 서비스 조례의 제정을 고려해야 한다.
- 셋째, 제주특별자치도의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의 강점 요인을 살리면서 위협요인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중장년 고용시장의 열악으로 인한 경력단절, 기본소득의 최하위(평균임금), 생활임금 및 주거비용의 최상위, 지역의 노인인구 비율 증가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인 위협 등을 최소화시키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청장년 취업 예산 투입(자기계발비, 취업 후 인건비 지원, 더큰내일센터 등), 지역적 특화서비스 등을 활용한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과 활성화를 들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의 약점 요인을 줄이면서 위협요인을 최소한 시키는 전략으로 생활임금 및 주거비용의 최상위,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고독사, 알콜중독, 우울, 자살 등)가 발생되는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는 복지정책 정보공유 활성화 및 통합 복지시스템의 구축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론 및 제언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생애주기별(아동·청소년, 청장년, 노인) 현황을 파악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사업과 재정 분석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의 향후 방안을 제시하였다.

1. 연구결과 요약

1) 설문조사개요 및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기간은 2020. 7. 6. ~ 7. 21이고, 표집 및 인원은 생애주기 및 지역을 고려한 집락(cluster)표집을 통해 제주도민 33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생애주기별, 성별, 거주지, 가족 수, 직업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대상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생애주기별 현황은 아동·청소년(0~18세) 16.9%(56명), 청장년(19~64세) 62.5%(207명), 노인(65세 이상) 20.5%(68명), 성별은 남 38.7%(128명), 여 61.3%(203명), 거주지는 제주시 동지역 66.5%(220명), 제주시 읍면지역 7.9%(26명), 서귀포시 동지역 17.2%(57명), 서귀포시 읍면지역 8.5%(28명)로 나타났다. 가족 수는 4명 24.2%(80명), 2명 23.9%(79명), 3명 22.7%(75명) 순으로 나타났고, 직업은 청소년 17.2%(57명), 무직 13.9%(46명), 전업주부 12.4%(41명), 서비스직 10.9%(36명), 사무직 10.9%(36명), 전문직 10.6%(35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2) 도민의 삶과 사회보장

(1)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 만족 40.2%(133명), 보통 36.3%(120명), 매우 만족 11.8%(39명) 순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52%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애주기별로는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으며 청장년, 노인 순으로 나타났다.

(2) 제주에 대한 소속감 · 연대감

제주에 거주하면서 소속감·연대감을 갖고 있는 지에 대해, 보통 32.9%(109명), 조금 느낌 28.7%(95명), 많이 느낌 23.3%(77명) 순으로 조사되었고, 생애주기별로 보면, 아동·청소년의 소속감·연대감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청장년, 노인 순으로 나타났다.

(3) 제주지역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

제주도에서 경험해 본 복지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에 대해 보통 46.8%(155명), 만족 33.5%(111명), 불만족 9.7%(32명) 순으로 나타났고, 생애주기별로는 아동·청소년이 전체적인 만족도가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노인, 청장년 순으로 나타났다.

(4) 제주지역의 복지서비스에 불만족한 가장 큰 이유

제주지역의 복지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대상자에게 불만족한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복지 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 34.2%(13명), 희망서비스 부재 28.9%(11명), 복지 서비스의 질 불만족 21.1%(8명) 순으로 응답하였고, 생애주기별로는 아동·청소년과 노인은 복지 서비스의 질 불만족, 청장년은 복지 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5) 제주지역의 전반적인 사회보장 수준

제주지역의 전반적인 사회보장 수준에 대해 보통 57.1%(189명), 만족 18.4%(61명), 불만족 15.1%(50명) 순으로 응답하였고, 생애주기별로는 아동·청소년이 전체적인 만족도가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노인, 청장년 순으로 나타났다.

(6) 도내 사회보장 확대 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

제주도내에서 사회보장 확대 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으로는 노인 39.3%(130명), 청장년 29.3%(97명), 아동·청소년 23.3%(77명) 순으로 응답하였고, 생애주기별로는 아동·청소년과 노인은 자신들을 가장 중점에 두어야 한다는 반면, 청장년은 노인을 가장 중점에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3) 사회복지 영역별 제주지역의 문제점과 가장 필요한 정책

(1) 영역별 제주지역 문제의 심각성

영역별로 제주지역의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복지 영역 중 환경(73.1%), 고용(59.5%), 주거(57.4%), 안전(45.3%) 순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순위별 본인의 현재 걱정거리

응답자의 현재 걱정거리는 순위별 다중응답분석방법에 의해 1순위에 3%, 2순위에 2%, 3순위 1%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한 결과, 건강이 519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소득이 414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즉, 응답자를 중심으로 보면, 제주도민의 현재 걱정거리는 '건강'이라고 할 수 있다.

(3) 본인의 걱정거리에 대한 해결방법

본인의 걱정거리에 대한 해결방법을 질문한 결과, 스스로 해결 66.4%(219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족의 도움 14.2%(47명), 주민복지센터나 시청의 도움(서비스) 6.7%(22명)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생애주기별로는 전생애에서 스스로 해결하거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도움제공 시 이용의향

개인의 문제발생 시에 해결을 위한 도움을 제공할 경우 이용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이용하고 싶다 55.0%(182명), 잘 모르겠다 19.3%(64명), 반드시 이용하겠다 19.0%(63명) 순으로 조사되었고, 생애주기별로는 전생애에서 대체로 이용의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5) 도움 제공 시 이용할 의향이 없는 가장 큰 이유

복지와 관련한 문제 발생 시 도움이 제공하더라도 이용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에게 그에 대한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어떤 기관이 있는지 모름 49.4%(42명), 스스로 해결 가능함 14.1%(12명), 신뢰할 만한 기관 없음, 도움을 받아도 별로 나아지지 않음 각 10.6%(9명) 순으로 응답하였고, 생애주기별로는 아동·청소년과 청장년에서 어떤 기관이 있는지 모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은 어떤 기관이 있는지 모름과 스스로 해결 가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제주지역의 고용 관련 가장 필요한 정책

제주지역의 고용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자리 알선, 직업교육 등 실직 · 은퇴 대비지원 강화 29.6%(98명), 일과 일상생활의

균형 있는 근로문화 확산 17.5%(58명), 성별, 인종, 연령, 지역 등에 따른 차별 해소, 임금체계 개선 각 11.8%(39명) 순으로 응답하였고, 생애주기별로는 아동·청소년이 성별, 인종, 연령, 지역 등에 따른 차별 해소, 청장년이 일자리 알선, 직업교육 등 실직·은퇴 대비지원 강화, 노인이 일자리 알선, 직업교육 등 실직·은퇴 대비지원 강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7) 제주지역의 소득 관련 가장 필요한 정책

제주지역의 소득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자리를 통한 탈 빈곤 지원강화 44.1%(146명), 아동수당, 기본소득 등의 확대를 통한 가족소득보장 강화 19.6%(65명),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확대를 통한 노인 소득보장 강화 15.4%(51명) 순으로 응답하였고, 생애주기별로는 전생애에서 '일자리를 통한 탈 빈곤 지원강화'가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응답하였다.

(8) 제주지역의 보건 의료(건강) 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

제주지역의 보건 의료(건강) 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 접근성 강화 28.1%(93명), 의료비 부담 완화 24.5%(81명),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 17.5%(58명) 순으로 응답하였고, 생애주기별로 보면, 아동·청소년과 노인은 의료비 부담 완화, 청장년은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 접근성 강화가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응답하였다.

(9) 제주지역의 돌봄 관련 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

제주지역의 돌봄 관련 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고용안정을 통한 돌봄 인력 확충 24.2%(80명), 방과 후 학교 등 가족의 아동 돌봄 부담 완화 20.2%(67명), 노인,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19.6%(65명) 순으로

응답하였고, 생애주기별로 보면, 아동·청소년이 방과 후 학교 등 가족의 아동 돌봄 부담 완화, 청장년이 고용안정을 통한 돌봄 인력 확충, 노인이 노인,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가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응답하였다.

(10) 제주지역의 교육 관련 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

제주지역의 교육 관련 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교육비 부담 완화 28.7%(95명), 무상교육 확대 18.4%(61명), 평생 · 직업교육 혁신 17.2%(57명) 순으로 응답하였고, 생애주기별로 보면, 아동·청소년과 청장년은 사교육비 부담 완화, 노인은 무상교육 확대와 평생 · 직업교육 혁신이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응답하였다.

(11) 제주지역의 주거생활 및 주거환경 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

제주지역의 주거생활 및 주거환경 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주택가격 상승 억제 33.5%(111명), 공공주택 공급확대 23.3%(77명), 주차공간 확보 18.7%(62명) 순으로 응답하였고, 생애주기별로는 아동·청소년이 주차공간 확보, 청장년이 주택가격 상승 억제, 노인이 주택가격 상승 억제와 공공주택 공급확대가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응답하였다.

(12) 제주지역의 여가 및 문화서비스 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

제주지역의 주거생활 및 주거환경 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양한 체험 및 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 24.8%(82명), 문화생활 비용 인하 22.7%(75명), 제주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프로그램 개발 18.4%(61명) 순으로 응답하였고, 생애주기별로 보면, 아동·청소년이 다양한 체험 및 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 청장년이 문화생활 비용인하, 노인이 제주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프로그

램 개발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응답하였다.

(13) 제주지역의 환경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정책

제주지역의 환경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쓰레기를 위한 대책 강화 40.8%(135명), 자연친화적인 개발정책 수립 15.7%(52명), 환경기초시설 보강 11.2%(37명) 순으로 응답하였고, 생애주기별로 보면, 전생애에서 쓰레기를 위한 대책 강화가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응답하였다.

(14) 제주지역의 안전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정책

제주지역의 안전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도민과 관광객 운전의식 개선 및 강화 대책마련 21.5%(71명), 안전교육을 통한 도민 안전의식 개선 20.2%(67명), 재난발생 시 신속대응 및 수습체계 마련 18.7%(62명) 순으로 응답하였고, 생애주기별로 보면, 아동·청소년이 재난발생 시 신속대응 및 수습체계 마련과 외국인 범죄 등 범죄예방 대책 강화, 청장년이 도민과 관광객 운전의식 개선 및 강화 대책마련, 노인이 외국인 범죄 등 범죄예방 대책 강화를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응답하였다.

(15)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동·청소년 문화, 체육, 활동 지원확충 24.5%(81명),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 안전한 환경 조성 각 19.3%(64명) 순으로 응답하였고, 생애주기별로 보면, 아동청소년과 청장년에서 아동·청소년 문화, 체육, 활동 지원확충, 노인에서는 아동·청소년 문화, 체육, 활동 지원확충과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16) 청장년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청장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장년 일자리 확대 49.8%(165명),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는 정책 지원 13.0%(43명), 주거 지원 10.9%(36명) 순으로 응답하였고, 생애주기별로 보면, 전생에서 청장년 일자리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17) 노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은퇴 후 취업 또는 창업 지원 25.4%(84명), 치매, 독거, 학대노인 등에 대한 돌봄 강화 19.3%(64명), 노인에 대한 소득 지원 18.1%(60명) 순으로 응답하였고, 생애주기별로 보면, 아동·청소년과 청장년이 은퇴 후 취업 또는 창업 지원, 노인은 노인에 대한 소득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4) 공공기관의 복지서비스

(1) 지자체 포함 공공기관의 복지서비스 인지도

정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서귀포시, 읍 · 면 · 동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보통 38.4%(127명), 모른다 28.7%(95명), 조금 안다 23.0%(76명) 순으로 응답하였고, 생애주기별로 보면, 아동·청소년이 모른다, 청장년과 노인은 보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역할 인지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인지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

금 안다 33.5%(111명), 보통 32.0%(106명), 모른다 24.8%(82명) 순으로 응답하였고, 생애주기별로는 아동・청소년이 모른다, 청장년과 노인이 조금 안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주민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 혜택의 충분성

사회복지 혜택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통이다 55.6%(184명), 그렇지 않다 23.0%(76명), 그렇다 16.0%(53명) 순으로 응답하였고, 생애주기별로 보면, 전생애에서 보통이라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사회복지 혜택 필요 시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음

사회복지 혜택이 필요할 때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보통이다 36.9%(122명), 그렇지 않다 32.0%(106명), 그렇다 20.8%(69명) 순으로 응답하였고, 생애주기별로 보면, 아동・청소년과 노인이 보통이다, 청장년이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5) 공공기관의 복지서비스 이용만족도

공공기관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따른 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용경험 없음 51.0%(674명)이 가장 높게 나왔고, 이용경험이 있는 대상자들 중에서는 보통 24.1%(318명), 약간 만족 13.2%(174명), 매우 만족 6.0%(79명) 순으로 응답하였고, 전반적으로 이용경험 없음이 비율이 높고 이용경험이 있는 대상자 중 대부분 보통으로 응답했으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6) 공공기관 복지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부족 34.3%(113명), 사회복지 예산부족 17.9%(59명), 사회복지 인력부족 14.9%(49명) 순으로 응답하였고, 생애주기별로 보면, 전생애에서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5) 민간기관의 복지서비스

(1) 민간기관의 복지서비스 인지도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른다 32.3%(107명), 보통 29.3%(97명), 조금 안다 26.3%(87명) 순으로 응답하였고, 생애주기별로 보면, 아동·청소년이 모른다, 청장년이 보통, 노인이 조금 안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복지서비스 이용을 위한 민간기관 방문여부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민간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없다 72.2%(239명), 있다 27.8%(92명)로 응답하였고, 생애주기별로 보면, 아동·청소년에서 없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사회복지 혜택 필요 시 민간기관의 도움을 받음

사회복지 혜택이 필요할 때 민간기관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그렇지 않다 40.8%(135명), 보통이다 27.5%(91명), 전혀 그렇지 않다 15.1%(50명) 순으로 응답하였고, 생애주기별로 보면, 아동·청소년 보통이다, 청장년과 노인이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민간기관의 복지서비스 이용만족도

민간기관의 복지서비스 이용만족도를 기관별로 조사한 결과, 이용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매우 높았고, 이용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민간기관 복지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

민간기관 복지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부족 50.6%(167명), 사회복지 인력의 부족 13.0%(43명), 복지시설의 낮은 접근성 12.7%(42명) 순으로 응답하였고, 생애주기별로 보면, 전생에서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부족맞춤형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6) 향후 사회보장 정책의 방향

(1) 바람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개선사항

바람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개선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28.3%(93명), 복지전담 인력의 전문성 확보 16.4%(54명), 복지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낭비 제거 14.3%(47명) 순으로 응답하였고, 생애주기별로 보면, 아동・청소년과 노인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청장년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복지전담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가장 중요한 개선사항이라고 응답하였다.

(2)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

과,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21.5%(71명), 지역 간의 사회복지 서비스 격차 해소 20.2%(67명),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이용과정에서의 인권 보장 강화 18.7%(62명) 순으로 응답하였고, 생애주기별로 보면, 아동·청소년이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이용과정에서의 인권 보장 강화와 기본소득제 도입 등 보편적 서비스 강화, 청장년이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노인이 기본소득제 도입 등 보편적 복지서비스 강화를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응답하였다.

7) 전문가 초점집단면접 조사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현황 및 향후 방안' 에 관한 의견조사를 위하여 청소년, 청년, 장년, 노인 분야의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였고, 면접조사 내용은 제주도에서 사회보장이 가장 잘 되고 있는 생애주기, 개입이 시급한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청장년, 노인 분야별 가장 중요한 문제와 해결방안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8) 전문가 초점집단면접 분석 결과

전문가 초점집단면접 결과 여러 생애주기 중 사회보장이 잘 되고 있는 생애주기와 개입이 필요한 생애주기를 파악할 수 있었고, 또한 아동・청소년, 청장년, 노인 분야별로 중요한 문제와 필요한 정책을 도출할 수 있었다.

(1) 사회보장이 잘 되고 있는 생애주기

사회보장이 잘 되고 있는 생애주기로는 아동・청소년, 특히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이 잘 되고 있다는 의견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정책이 잘 이루어졌다는 의견이 있었다.

○ 아동·청소년의 사회보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

- 아동과 관련하여 아동수당, 아이돌보미 사업, 수눌음 육아나눔터(제주특화) 등이 실시되고 있고 지역사회보장계획 내에도 아동에 대한 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 노인의 사회보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

- 노인에 대한 사회보장정책들이 매우 많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고,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중복해서 제공되는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어 사각지대에 대한 대안도 마련이 되어야 함이 제기되었으며, 한정된 예산에서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사회보장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⑵ 개입이 필요한 생애주기

개입이 시급하게 필요한 생애주기에서는 청장년에 대한 사회보장이 필요함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고, 노인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한 의견도 있었다.

○ 청장년 정책이 필요함

- 장년에 대한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고, 청장년은 생애주기상 가운데에 위치한 세대(낀세대)이므로 가정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는데도 중심이 되어 있으며, 주로 일자리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이것이 실효성 있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맥락으로 경력개발과 구직활동 중 안정된 생활자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 노인 정책이 필요함

- 노인에 대한 사회보장이 잘 이루어져 있으면 아래 세대인 청장년이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일자리에만 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삶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3) 생애주기별 중요한 문제와 해결방안

아동・청소년, 청장년, 노인 생애주기별 중요한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도 들을 수 있었으며, 각 생애주기별로 특정된 문제가 제시되기도 했지만, 전 생애주기에 걸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이 지적되었다.

○ 아동・청소년에게 중요한 문제

- 아동・청소년에게 중요한 문제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과 가정 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아동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사회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사회보장이 펼쳐져야 한다고 하였다.

○ 청장년에게 중요한 문제

- 청장년에게 중요한 문제로는 1인 가구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었고, 새로운 직업을 구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점이 제기되었으며, 청장년이 실업상태일 때 단계별로 지원하는 촘촘한 사회보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노인에게 중요한 문제

- 노인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고 노인들이 한 곳에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보가 정리되면 좋겠고, 노인의 어려움을 들여다볼 수 있는 노인전문상담센터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기대수명도 연장되고 있어 연령별로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생애주기와 관계없이 나아가야 할 방향

- 생애주기별로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각각 나누어 이야기가 되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보장정책들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정리하고 많은 도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9) 제주특별자치도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에 대한 SWOT분석

○ 제주도의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의 복지공급자원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 연구의 제주시·서귀포시 지역주민 설문조사 및 FGI결과와 기존에 조사된 제주시·서귀포시 복지자원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생애주기와 사회보장자원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인에 대한 SWOT 분석을 실시하였다.

○ SWOT 분석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 첫째, 제주특별자치도의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의 강점요인은 아동영역의 보육료지원, 아동관련 돌봄 센터 보유(수눌음육아나눔터, 아이돌봄서비스 등), 아동·청소년과 노인 서비스연계가 용이, 청장년 취업 예산 투입이 높음(자기계발비, 취업후 인건비지원, 더큰내일센터 등), 내부역량이 강함(제주특별자치도 권한), 인구대비 사회복지시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둘째, 제주특별자치도의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의 약점요인은 복지예산이 편중(아동·청소년, 노인), 지역적 특색으로 인한 직업군의 편중, 노인정책 공급과 수요 불일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문제, 청장년층 기준선의 미흡으로 연계의 어려움, 복지서비스 중복, 누락 및 사각지대 발생, 복지정책의 정보공유 미흡, 서비스등록 자격 제한으로 인한 어려움, 복지시설(노인)이 편중으로 이용의 어려움, 통합적 복지시스템의 부재하다.
- 셋째, 제주특별자치도의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의 기회요인은 취·창업/청년창업우선지원사업(취업희망프로젝트, 재형저축(근로자재산형성저축), 보금자리마련 등)), 중앙정부와의 관계개선을 통한 기회마련, 지역적 특화 서비스 창출 가능성, 제주특별자치도 생애주기별 서비스 조례의 제정을 들 수 있다.

- 넷째, 제주특별자치도의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의 위협요인은 코로나(천재지변)로 인한 청년고용율 낮음, 청장년의 높은 이혼율, 빈곤 세대 간의 전이, 중장년 고용시장의 열악으로 인한 경력단절, 기본소득 최하위(평균임금), 생활임금 및 주거비용 최상위, 1인 가구 증가로 사회문제 발생(고독사, 알콜, 우울, 자살), 지역의 노인인구 비율 증가를 들 수 있다.

○ 이에 본 연구에서의 최종 결론과 제언을 도출하기 위해 SWOT 분석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방안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 첫째, 강점요인을 살리고 기회요인을 활용한 전략으로 생애주기별 사회복지서비스연계가 용이한 점을 살려 중앙정부와의 관계개선을 통한 기회를 마련하고 특히 우리 지역에 맞는 지역적 특화 서비스 창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 둘째, 제주특별자치도의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의 약점요인을 줄여 기회요인을 활용한 전략으로 노인정책 공급과 수요 불일치로 인한 복지서비스의 중복 및 사각지대 발생 해소를 위해 복지정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 복지시스템 구축과 지역적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생애주기별 서비스 조례의 제정을 고려해야 한다.
- 셋째, 제주특별자치도의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의 강점 요인을 살리면서 위협요인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중장년 고용시장의 열악으로 인한 경력단절, 기본소득의 최하위(평균임금), 생활임금 및 주거비용의 최상위, 지역의 노인인구 비율 증가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인 위협 등을 최소화시키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청장년 취업 예산 투입(자기계발비, 취업 후 인건비 지원, 더큰내일센터 등), 지역적 특화서비스 등을 활용한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과 활성화를 들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의 약점 요인을 줄이면서 위협요인을 최소한 시키는 전략으로 생활임금 및 주거비용의 최상위,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고독사, 알콜중독, 우울, 자살 등)가 발생되는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는 복지정책 정보공유 활성화 및 통합 복지시스템의 구축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제언

1)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보장 방안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보장 방안에서 필요한 부분은 문화, 체육, 활동 등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 마련' 이다. 아동·청소년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본인이 원하는 문화,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호체계 강화' 가 필요하다.

(1)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 마련

본 연구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아동·청소년 중 25.0%가 '아동·청소년 문화, 체육, 활동 지원 확충' 을, 21.4%가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강화' 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도 24.5%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아동·청소년 문화, 체육, 활동 지원 확충' 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청소년 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이용 경험 없음이 69.8%로 조사되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체육, 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대상이 한정되어 있거나 실시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 원하는 프로그램이 한정된 기관에서 운영함으로써 대기자로 등록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 등으로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

로그램과 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호체계 강화

본 연구에서 돌봄 관련 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 2순위(20.2%)로 '방과 후 학교 등 가족의 아동 돌봄 부담 완화'가 조사되었다. 아동·청소년의 응답에서는 30.4%가 '방과 후 학교 등 가족의 아동 돌봄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1순위로 조사되었다. 또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와 '안전한 환경 조성'이 2순위(19.3%)로 조사되었다. FGI를 통해서도 '가정 내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회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회보장'이 필요함이 조사되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고, 돌봄에 대한 지원으로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가정 내·외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체계를 강화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2) 청장년을 위한 사회보장 방안

청장년을 위한 사회보장 방안으로는 현재 주로 시행되는 고용과 관련된 정책 외에 보건 의료, 돌봄, 교육, 주거, 문화,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장년을 위한 사회보장 정책의 다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노인이 비중이 많은 사회보장 예산에서 '청장년을 위한 사회보장 예산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1) 청장년을 위한 사회보장 정책의 다변화

청장년을 위한 사회보장 정책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도내 사회보장

확대 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은 노인이 39.3%로 1순위로 나타났으며, 청장년은 29.3%로 그다음 순위로 조사되었다. 청장년에 대한 사회보장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청장년을 위한 정책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2019년)',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2019년)' 등 대부분 고용과 관련된 것들이다.

본 연구에서 제주지역의 보건 의료 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하여 청장년의 31.9%가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 접근성 강화', 21.3%가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제주지역의 교육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하여 청장년의 28.0%가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제주지역의 주거생활 및 주거환경 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하여 청장년의 25.1%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제주지역의 여가 및 문화서비스 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하여 청장년의 23.7%가 '문화생활 비용 인하'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청장년은 고용과 관련된 정책뿐 아니라 보건 의료, 돌봄, 교육, 주거, 문화, 안전 등 다양하고 삶과 밀접한 사회보장 정책에 관심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청장년의 사회보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청장년을 위한 사회보장 정책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2) 청장년을 위한 사회보장 예산 확대

청장년을 위한 사회보장 예산이 확대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예산 중 청장년 생애주기를 위한 사회보장 예산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생애주기 예산의 1.48% ~ 2.72%로 다른 생애주기 예산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장년을 위한 사회보장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

같은 기간 제주특별자치도 청장년 생애주기의 인구는 2011년 363,024명으로 전체 인구의 63.5%였으며, 2015년에는 398,195명으로 전체 인구의 64.8%, 2019년에는 441,232명으로 전체 인구의 66.2%를 차지한다. 사회보장 예산이 일률적으로 인구와 비례하여 편성하지는 않으나 청장년층이 전체 인구의 60%를 상회하고 있으며,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예산 편성은 매우 미미하므로 인구 비중에 걸맞은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FGI에서 개입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생애주기는 청장년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청장년 생애주기를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청장년 생애주기를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결과이며, 향후 청장년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청장년 생애주기를 위한 사회보장 예산 확대는 필요하다.

3)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 방안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 방안으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사회보장'을 위하여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노인들이 거주하는 동네'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과 안정적인 돌봄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노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 노인들은 문맹 혹은 디지털 기술부족 등으로 사회보장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노인들이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 제공도구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1) 건강한 노후를 위한 사회보장 필요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기대수명 역시 연장되고 있어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사회보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노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문항에서 노인의 응답 중 2순위(19.1%)가 '치매, 독거, 학대노인 등에 대한 돌봄 강화', 4순위(14.7%)가 '노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 5순위(13.2%)가 '자원봉사 또는 여가활동 지원'으로 조사되었다.

노인들이 거주하는 곳을 중심으로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하고 실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돌봄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하며, 본 연구에서 돌봄 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에 노인이 1순위(30.9%)로 선택한 '노

인,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순위(20.6%) 선택한 ‘고용안정을 통한 돌봄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노인을 위한 일자리 확대

본 연구에서 노인의 지원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25.4%가 1순위로 ‘은퇴 후 취업 또는 창업 지원’을 18.1%가 3순위로 ‘노인에 대한 소득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노인의 20.6%가 1순위로 ‘노인에 대한 소득지원’을, 17.6%가 3순위로 ‘은퇴 후 취업 또는 창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노인이 되어서도 안정적인 수입원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노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일자리 지원이 있어야 한다. 연소 노인이라 할 수 있는 65세~74세의 경우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신체적인 건강과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부족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을 비롯하여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의 창출이 필요하다.

(3) 사회보장정보 제공도구의 다양화 필요

본 연구에서 노인들이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않은 비율이 공공기관 22.1%, 민간기간 33.8%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과 기술 부족 등으로 정보접근성이 낮아 정보격차가 발생되어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예,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는 관련 법규를 만드는 등 법적 시스템을 갖추면서 노력하고 있지만 제주지역의 경우 이와 관련한 법규 등이 마련되지 않아 노인들의 정보격차해소에 있어서 실제적인 노력이 필요

하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노인들의 사회보장관련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 제공도구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문맹인 노인들을 위한 영상자료 및 시력이 낮은 노인들을 위한 글씨체 및 크기를 조정한 전달자료(홍보물) 제공 등이 필요할 뿐 아니라 노인들이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특성에 맞춘 디지털교육이 필요하다.

4) 전 생애를 위한 사회보장 방안

생애주기 구분 없이 전 도민을 위한 사회보장 방안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정보 제공' 이 있다.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양행정시를 비롯하여 사회보장과 관련된 다양한 민간기관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정보 제공을 통하여 수요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애주기가 구분이 되어있지 않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의 생애주기 구분' 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안정성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맞춤형 환경복지서비스 확대' 를 통해 생애주기를 고려한 환경정책이 펼쳐져야 할 것이다.

(1) 수요자 중심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정보 제공

수요자 중심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주지역의 복지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로 '복지 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 ,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부족' 으로 나타났고, FGI를 통해 나타난 '전 생애주기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정리하고 많은 도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는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이미 기존에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복지포털사이트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내 보건/복지/여성사이트, ‘제주복지통’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도민들이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복지서비스 정보를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복지서비스 정보의 내용이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정보는 계속 제공되고 있지만 늘 정보 부족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요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홈페이지를 개편하며 ‘제주복지넷’으로 복지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정보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수요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⑵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의 생애주기 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은 크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회계는 일반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처리하는 것이고,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별도의 세입·세출 예산을 경리하는 회계로 법률에 의해 일반회계에서 분리된 독립계정을 설치하는 것이며, 기금은 일정 자금을 활용하여 특정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예산의 편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전체에 대한 예산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생애주기 사회보장 현황을 연구하였다. 그 이유는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할 경우, 사회보장 사업의 생애주기별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았으며, 연구자에 따라 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될 우려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회계의 세부사업 설명서를 통해 사업의 대상과 성격을 분류하여 생애주기 사회보장 현황을 연구하였다.

향후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정책적 활용을 위해서는 특별

회계와 기금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청소년 육성기금의 편성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특별회계와 기금에 편성된 경우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지난 2019년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청년 기금 설치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와 같이 지속적으로 생애주기별 특별회계와 기금의 조성 및 예산 확대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사회보장 예산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의 시작점인 예산편성에서부터 생애주기에 대한 표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제주지역의 생애주기 사회보장 현황은 각 생애별로 요구하는 정책을 수반하는 시작점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제주를 표방하고, 인구 유입 정책에 동반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지방재정의 확보와 사회보장 예산의 확대, 예산의 효율적 안정성 구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맞춤형 환경복지서비스 확대

생애주기에 맞춘 환경복지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 제주지역의 문제점의 심각성에 있어 '환경은 매우 심각' 수준, 본인의 걱정거리로 '건강(1위)', '환경(3위)' 이 조사되었다. 따라서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들 중 대부분은 생애주기를 고려하지 않고 실행되고 있다.

환경문제로 인한 위험의 증가는 대부분이 아동·청소년, 노인 등 환경약자들이 주로 피해를 더 많이 입고 있고, 실제로 환경오염 피해에 취약하다. 환경문제로 인해 아동은 아토피 등과 같은 피부질환, 노인은 천식 등의 환경성 질환에 쉽게 노출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비자숲힐링센터)가 설립되어 환경성질환에 대한 예방교육 및 치유와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문제의 피해는 건강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환경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생애주기별 특성을 파악하여 이에 맞는 환

경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 등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공간은 예전에 지어진 집들이 많아 환경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인자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창민, 정영태, 홍연숙, 김양이, 고승한(2012). 제주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모델 개발 연구. 제주: 제주발전연구원.

고수현(2009). 노인복지이론과 실제. 경기: 학현사.

관계부처 합동(2019). 문재인 정부「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안)」.

김미곤, 이태진, 송태민, 우선희, 김성아(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욱, 김정현, 박현식, 조성희(2012). 노인복지론. 경기: 양서원.

김정득, 오윤정, 김은정, 박정훈 외(2019).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기준선 수립. 제주: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김종훈(2018). 인구정책 및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망, 보건복지포럼, pp61-74. 세종: 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2019).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세종: 보건복지부.

양정하(2014). 한국 아동복지정책의 통합적 분석. 아동교육, 24(3), 365-384.

연합뉴스(2019). [2020 경제] 1인가구 맞춤형 정책 짠다...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2019.12.19.일자.

윌리엄 새들러(2006). 서드 에이지, 마흔 이후 30년. 서울: 사이.

이병렬, 서영미, 김준홍(2019). 아동복지를 위한 행정의 효율적 통합관리 방안. 서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중섭, 송용호(2014). 전라북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모형개발 및 사업제안. 전북: 전북발전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청 주민등록인구통계(2020). https://www.jeju.go.kr/open/stats/list/population.htm(2020. 6. 1 검색)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2019) 제주: 사회복지편람.

호남지방통계청(2020). 호남·제주지역 고령자 1인 가구의 생활상. 광주: 호남지방통계청.

황성준, 김정득, 김은정 외(2019). 제주형 커뮤니티케어 운영모델 연구. 제주: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Y: Norton.

Havighust, R. J. (1953).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 NY: McKay.

부 록

[부록] 설문지

설문지ID | | | | |

제주특별자치도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현황 및 향후방안 연구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조사연구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현황 및 향후방안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는 정답이 없으며, 귀하께서 평상시에 생각하고 계신 것들에 대해 응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통계법 제 33조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본 연구의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응답은 제주지역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본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20년 7월

¤ 조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064-702-3784)

¤ 수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조사연구위원회

다음 중 해당되는 사항에 √표 해 주십시오.

성 별	① 남성 ② 여성
연 령	만 _____ 세
거 주 지	① 제주시 동지역 ② 제주시 읍면지역 ③ 서귀포시 동지역 ④ 서귀포시 읍면지역
학 력	① 무학 ② 초졸 ③ 중졸(고교중퇴, 고교 재학 포함) ④ 고졸(대학재학, 대학중퇴 포함) ⑤ 전문대졸 ⑥ 대학졸업(대학원 재학 및 수료 포함) ⑦ 대학원 졸업(석사 이상)
혼인여부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 ④ 사별 ⑤ 별거 ⑥ 기타( )
가 족 수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수 : 본인 포함 총 ( )명
연령대별 가족의 수 (※본인포함해서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수)	① 영유아 (출생직후 ~ 만6세) : ( )명 ② 아동·청소년 (만7세 ~ 만18세) : ( )명 ③ 청장년 (만19세 ~ 만64세) : ( )명 ④ 노인 (만65세 이상) : ( )명
직 업	① 청소년 ② 자영업 ③ 공무원 ④ 전문직 ⑤ 사무직 ⑥ 생산기능직 ⑦ 서비스종사직 ⑧ 단순노무직 ⑨ 전업주부 ⑩ 농·임·축·어업 ⑪ 무직 ⑫ 기타( )

문항을 읽은 뒤에 보기의 내용 중에서 해당되는 사항 **"하나만 골라"** √표 해 주십시오.

1. 귀하는 요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2. 귀하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제주도에 어느 정도의 소속감, 연대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① 전혀 느끼지 않는다 ② 별로 느끼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느낀다 ⑤ 많이 느낀다

다음(3, 4번)은 복지서비스에 관한 문항입니다.

복지서비스란?

복지서비스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줌으로써 사회인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하는 일을 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아동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가족복지, 장애인복지 등이 있습니다.

3. 귀하께서 그동안 제주도에서 경험해 본 복지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4. (위 질문, 3번에서 ①, ②으로 답을 하신 분만) 귀하께서 복지서비스에 만족을 못했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복지관련 기관 및 전문 인력의 부족
   ② 직원이 불친절함
   ③ 복지 서비스의 질이 만족스럽지 못함
   ④ 원하는 복지서비스가 없음
   ⑤ 이동하기가 어려움(접근성)
   ⑥ 복지 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부족

다음(5, 6번)은 사회보장에 관한 문항입니다.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사회보장법 제3조>

5. 제주도의 전반적인 사회보장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낮다 ② 조금 낮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높다 ⑤ 매우 높다

6. 제주도내에서 사회보장을 확대한다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영유아 ② 아동·청소년 ③ 청장년 ④ 노인

7. 다음은 제주지역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귀하께서는 각 영역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1) 고용	실직, 재취업, 퇴직 등 직업을 구하기 어려움					
2) 소득	저소득, 빈곤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 등					
3) 건강	수술 등 의료비용 부담, 알콜중독 및 우울증 등의 정신건강문제					
4) 돌봄	가족 내 아동, 어르신, 장애 등 돌봄 등의 문제					
5) 교육	아동·청소년의 학교교육 및 사교육 상황, 성인 평생교육 기관 수 및 참여기회 부족 등					
6) 주거	공공주택 공급부족, 높은 주택구입비 등					
7) 문화	문화(여가)시설・공간・프로그램부족 등					
8) 환경	넘쳐나는 쓰레기, 환경오염・훼손 등					
9) 안전	교통, 폭력, 범죄, 재난 등의 위험					

8. 귀하의 현재 걱정거리는 다음 중 무엇인지 순위별로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위: 2위: 3위:

① 고용 ② 소득 ③ 건강 ④ 돌봄 ⑤ 교육 ⑥ 주거 ⑦ 문화
⑧ 환경 ⑨ 안전

8-1. 귀하께서는 위(8번)에서 선택한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① 스스로 해결해 나간다(일, 저축, 노력, 운동 등)
② 가족의 도움으로 해결한다
③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다(받는다)
④ 읍·면·동 주민센터(주민복지센터)나 시청에 도움 또는 서비스를 요청한다
⑤ 의료기관, 시민단체에서 도움을 받는다
⑥ 사회복지기관, 복지단체에서 도움이나 서비스를 받는다

8-2. 귀하는 만약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해결을 위한 도움이 제공된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이용하지 않겠다 ② 하고 싶으나 여건이 안 된다
③ 잘 모르겠다(그저 그렇다) ④ 이용하고 싶다
⑤ 반드시 이용할 것이다

8-3. (위 8-2번에서 ①, ②, ③으로 응답한 분만) 이용할 의향이 없는 경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① 신뢰할 만한 기관이 없어서
②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몰라서
③ 이용해도 별로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④ 내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서
⑤ 친구·선배 등 주변이 도와줄 수 있어서
⑥ 부모·형제 등 가족이 도와줄 수 있어서
⑦ 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므로
⑧ 남에게 알리는 것은 창피한 일이기 때문에

9. 제주지역의 고용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성별, 인종, 연령, 지역 등에 따른 차별 해소
②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격차 완화
③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고용안정성 강화
④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고용안전망 강화
⑤ 임금체계 개선
⑥ 일자리 알선, 직업교육 등 실직·은퇴 대비지원 강화
⑦ 적절한 노동시간 준수
⑧ 일과 일상생활의 균형 있는 근로문화 확산

10. 제주지역에서의 소득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빈곤층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② 일자리(자활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를 통한 탈 빈곤 지원 강화
③ 아동수당, 기본소득(예, 재난지원금) 등의 확대를 통한 가족소득보장 강화
④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확대를 통한 노인 소득보장 강화
⑤ 장애수당 등의 확대를 통한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⑥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확대를 통한 실직자 및 산업재해 피해자 지원 강화

11. 제주지역의 보건 의료(건강) 서비스 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의료비 부담 완화 ②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 접근성 강화
③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
④ 정신건강 증진사업 확대 ⑤ 재난·응급 의료체계 강화
⑥ 감염병 등 질병예방사업 강화
⑦ 국민건강 증진 및 만성질환예방 사업 확대(예, 술, 담배 등 생활습관 관리)

12. 제주지역의 돌봄 관련 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방과 후 학교 등 가족의 아동 돌봄 부담 완화
    ② 한부모, 다문화, 저소득층 취약가구 양육지원 강화
    ③ 장애아동 돌봄 강화
    ④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안내 강화
    ⑤ 노인,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⑥ 고용안정을 통한 돌봄 인력 확충

13. 제주지역의 교육 관련 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국공립 교육기관 강화
    ② 무상교육 확대
    ③ 사교육비 부담 완화
    ④ 교사 자질 향상과 처우 개선
    ⑤ 고등교육의 질 향상 (예, 지역대학 지원강화)
    ⑥ 평생・직업교육 혁신

14. 제주지역의 주거생활 및 주거환경 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공공주택 공급 확대
    ② 주택가격 상승 억제
    ③ 집수리 지원강화(예, 방충망, 방도배)
    ④ 주차공간확보
    ⑤ 주거마련(임대, 자가)을 위한 금융자금지원(대출)
    ⑥ 공원 녹지 조성 및 확충

15. 제주지역의 여가 및 문화서비스 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기관 확대
② 문화생활 비용 인하 (예, 도민 할인)
③ 박물관, 도서관 등 문화 프로그램 확대
④ 문화공연 프로그램 유치
⑤ 주민복지센터(동사무소) 중심의 생활프로그램 확대
⑥ 프로그램 전문강사 확보
⑦ 제주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프로그램 개발

16. 제주지역의 환경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쓰레기 처리를 위한 대책 강화
② 자연친화적인 개발정책 수립
③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차량등록제한 (예, 등록차량 총량제)
④ 토양 및 바다 오염 문제 해결
⑤ 환경기초시설 보강 (예, 쓰레기소각장, 매립장, 하수처리시설)
⑥ 지하수 고갈 및 오염 해결 ⑦ 미세먼지 저감정책
⑧ 곶자왈, 오름 등 산림생태계 복원

17. 제주지역의 안전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기상이변 및 자연재해 대책 강화
② 도민과 관광객 운전의식 개선 및 강화 대책 마련
③ 안전교육을 통한 도민 안전의식 개선
④ 재난피해자와 현장 활동인원에 대한 심리지원 체계 강화
⑤ 재난발생 시 신속대응 및 수습체계 마련
⑥ 외국인 범죄 등 범죄예방 대책 강화

18.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아동 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
② 아동·청소년건강증진 프로그램 강화(비만, 정신건강 등)
③ 아동·청소년 문화, 체육, 활동 지원확충 (학교 밖·가정 밖(가출) 청소년 지원 확대 포함)
④ 방과 후 돌봄 강화
⑤ 한부모, 다문화, 저소득 층 취약가구 양육지원 강화
⑥ 상담서비스 강화
⑦ 안전한 환경 조성(아동·청소년 안전 환경 정비, 안전교육 강화 등)

19. 청장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청장년 일자리 확대
② 청장년의 쉼과 교류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마련 (예, 청년다락)
③ 주거 지원
④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는 정책 지원 (예, 1인 가구)
⑤ 청장년 활동 단체 지원
⑥ 예비 창업 지원공간 마련
⑦ 교육·훈련 지원확대
⑧ 문화·여가생활 지원확대

20.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은퇴 후 취업 또는 창업 지원 (교육, 훈련 등)
② 노인에 대한 소득 지원
③ 자원봉사 또는 여가활동 지원
④ 치매, 독거, 학대노인 등에 대한 돌봄 강화
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지원 확대
⑥ 노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
⑦ 노후대비를 위한 정보제공

21. 귀하는 국가, 제주도, 제주시·서귀포시, 읍·면·동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① 전혀 모른다 ② 모른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알고 있다
⑤ 매우 잘 알고 있다

22.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① 전혀 모른다 ② 모른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알고 있다
⑤ 매우 잘 알고 있다

23. 사회복지 혜택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4. 사회복지 혜택이 필요할 때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고 계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5. 귀하께서 복지서비스가 필요할 때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공공기관을 이용해 보셨다면 그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모든 기관에 표시하되, 이용경험 없는 분은 오른쪽 '이용경험없음'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 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이용경험 없음**
1)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복지센터)						
2) 시청						
3) 도청						
4) 보건소(치매안심센터, 고혈압 · 당뇨센터 포함)						

26. 귀하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사회복지 예산의 부족
② 사회복지인력의 부족
③ 관련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④ 관련 담당자의 의지부족
⑤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부족
⑥ 지원기관 간 정보 공유의 부족으로 인한 과다한 서류제출

다음(27~31번)은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 민간기관은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민간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27. 귀하는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① 전혀 모른다 ② 모른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알고 있다
⑤ 매우 잘 알고 있다

28. 귀하는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민간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9. 귀하는 사회복지 혜택이 필요할 때 민간기관의 도움을 받고 계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0. 귀하께서 복지서비스가 필요할 때 아래 표에 나와 있는 민간기관을 이용해 보셨다면 그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모든 기관에 표시하되, 이용경험 없는 분은 오른쪽 '이용경험없음'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이용 경험 없음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년재단 청년맞춤제작소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일자리지원센터						
노인복지관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 등)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 보호서비스 등)						
노인일자리기관 (시니어클럽, 느영나영복지공동체, 복지관)						
경로당						
노인대학, 노인교실						
기타( )						

31. 귀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맞춤형 복지프로그램 부족　② 시설의 낙후성
③ 경영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부족　④ 사회복지 인력의 부족
⑤ 사회복지 인력의 전문성 부족　⑥ 복지시설의 접근성이 낮음

32. 바람직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② 복지전담인력의 전문성 확보
③ 복지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낭비 제거
④ 지역주민의 정기적인 복지수요 파악
⑤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연계협력
⑥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강화
⑦ 민간기관 및 시설의 확대
⑧ 사회복지예산 확대

33.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누구나 충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확충
②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예,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③ 지역 간의 사회복지 서비스 격차 해소
④ 정보 안내,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등 이용자 편의 증진
⑤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이용 과정에서의 인권 보장 강화
⑥ 기본소득제 도입 등 보편적 복지서비스 강화
(※ 기본소득 : 재산소득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국가가 매월 정기적으로 주는 소득)

34. 위에서 응답한 내용 외에 제주도의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위해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_____

_____

-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현황 및 향후 방안 연구

- 발행일 : 2020년 12월
-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발행인 : 고 승 화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풍남8길 12-1
- 전 화 : 064)702-3784
- 팩 스 : 064)702-3383
- 홈페이지 : www.jejubokji.net
- 인 쇄 : 춘강인쇄사(T. 064-702-7854)

이 책의 저작권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제주복지 넷·통·콜·TV는
제주도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제주복지 넷(NET)
www.jejubokji.net

하나! 키워드 · 생애주기별 · 상황별 복지 TV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정보 검색

둘! 제주 도내 1,114개 사회복지시설 · 단체정보 검색
(2020년 12월 기준)

셋! 복지 · 법률 · 노무 · 정신건강 · 주거복지 상담 실시간 채팅상담

넷! 교육신청, 회원 간 소통, 사업안내 등 제주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사항 확인

* 스마트폰으로 접속해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복지 통(通)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하나! 제주지역1,114개 사회복지시설과 단체정보 (주소, 연락처, 악도 제공서비스 등) 제공
(2020년 12월 기준)

둘! 각종 복지상담 콜센터 연결

셋! 폭력, 학대 긴급신고 전화연결

넷! 온라인 무료 법률 상담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으세요

제주복지 콜(Call)
(전화)1833-9514 (문자)1877-2126

하나! 복지정보제공, 상담전화

둘! 사회복지 분야별 10개 전문기관과의 전문상담 체계 구축

셋! 전화상담 1833-9514 (월~금, 09:00 ~ 18:00)

넷! 문자상담 1877-2126 (매일, 접수 즉시 응답)
*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제주복지 TV
유튜브 채널

하나! 복지정보제공 유튜브 채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랑의 열매 지원)

둘! 복지서비스 이용자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복지정보 제공

셋! 생동감 있는 복지현장소식 전달

SSN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풍남8길 12-1(화북1동)
전화 064-702-3784 팩스 064-702-3383
홈페이지 http://www.jejubokji.net